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0 호

5월31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근로자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0호 (32)

1949년5월31일

내 용

권두언 신입당원들에 대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자……(三)

당적 처벌에 대하여……장 순 명(九)

당정치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경제과업을 정치적으로 보장하자……박 영(一八)

남조선 산업의 파탄과 통화팽창……석 국(二九)

—참고자료—

과학에 있어서 쏘베트의 우선권에 대하여……아·즈보르낀(四四)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연구자료—

레닌의 저서 「국가와 혁명」에 대하여……김 칠 우(七二)

당생활보도……(八九)

국제보도……(九一)

—비평과 서적해제—

「조선근대사연구」……김 승 화(九六)

신입당원들에 대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자

우리국가가 민주주의적 제개혁들을 실시하고 새로운 사회체제에로 급격히 발전됨에 수응하여 북조선로동당은 그를 더욱 힘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인민의 선봉대로서의 강유력한 대중적 정당으로 장성되었다。

당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정치생활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또 실지사업을 통하여 겸열 준비된 적지않은 로동자 농민 로력인테리겐챠들을 자기성원으로서 부단히 인입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당대렬에는 당사업의 경험이 적고 당사업에 능숙하지 못하며 계급적 정치적 자각성이 부족한 다수 신입당원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당은 당의 정치로선에 립각하여 당원들을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한 제반투쟁에 있어서 항상 선봉적 전위투사가 되게하며 민주조국의 부흥발전의 주동적 역할을 수행할수있는 당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였다。

당원들 특히 신입당원들에 대하여 실시할 조직정치사업의 기본방향은 당원들의 당적 자각성과 조직성 즉 당성을 강화하는 당 조직사업 원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방법으로 진행함에 있다。

신입당원들은 당년한이 짧으며 당적 교양과 훈련을 조직적으로 적게 받았으며、따라서 당사업의 경험이 적고、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자체의 리익을 당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헌신성과 각오정도가 아직도 미약하다。 이는 당의 정치로선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사상상으로 선진

과학적 리론인 맑쓰—레닌주의로 무장하여 낡은 지배계급들의 사상잔재를 타승하는 계급적 강인성과 인내성이 약하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때문에, 당원들을, 특히 신입당원들을 구체적 조건과 환경에다타 당사업에 깊이 인입하며, 세심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을 질적으로 전변시킬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아직 일부 하급당단체들은 신입당원들에 대한 조직정치사업을 자연생장적 형편에, 방임하여 두었으며 무원칙하게 진행하고있는 사실들이 있다。 그 결과 일부당원들이 당적위임과 국가의 제시책들을 준수함에 있어서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홀시하는 경향들을 보여주며, 또 당적규률을 준수하고 당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적 행동의 결과, 행동의 통일성 보장을 약화시키는 경향들을 보여주며, 그는 동시에 광범한 근로대중들에게 시범할 사상정치성이 미약하게 보장되는등 사실들로 표현된다。

이와같은 제사실들을 발생케하는 원인들은 무엇보다도 당간부들이 신입당원들에게 꾸준하게 실시하여야될 조직정치사업에 대하여 옳지못하게 인식한 자창창 결함에 기초하였다。

어떤 간부들은 인식하기를, 최근 우리당에 입당하는 사람들은 지나간 三년동안에 걸쳐 민주건설의 로선에서 교양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교양과 훈련이 없어도 좋은것처럼 오해하고 당원들과 비당원들과의 사상정치적 및 조직적 제관계에 대한 구체적 차이점에 대하여 아무런 구별도 하려도 없다。 이러한 견해는 신입당원들을 구체적 조건과 환경에서 당적교양과 훈련을 줌에 대하여 방관하는데로부터 기인된다。

三년전 구체적 환경에서 입당한 당원을 오늘의 신입당원과 대비하고 만족히 생각함은 사업을 발전되는 수준에서 관찰하지 못한것이며 비당원 군중들이 아무리 사상정치적으로 발전되였다고하더라도 당대열에서 조직적으로 교양훈련 받는 우리당원들보다 더 발전되지 못하였을것만은 사실이다。 이 사실은 당단체들이 신입당원들에 대한 특별한 당사업을 실시하며 그들의 당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더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것이다。

당성강화는 수많은 서적을 독파하고 많은 강연과 연설회에 참가하며 민주건설에 열성있게 참가함으로써만 달성되는 문제가 아니다。 당성강화는 이런사업과 함께 당원들을 직접 당사업에 참가시키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게하는 사업과 결부됨으로 이루어지는 성과이다。

다음으로 약한 고리를 강대한 고리로 전변하게하는 성과는 적극적 활동의 결과임을 리해하지못하였으며 교양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지 못하였다。 다소를 물론하고 당사업의 성과는 저절로 오는것이 아니라 조직적 투쟁의 결과이다。 투쟁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신입당원들의 당성을 강화하며 그들의 당적 발전의 가능성과 조건들을 충분히 발휘케하여 당적 각성을 촉진하는 당사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신입당원들을 일반당원들과 동일한 정치리론수준에서 교양하는것은 또한 기본결점의 하나로 된다。 최근의 신입당원들이 해방된 민주조국 북반부에서 과거 三년간 교양되었다 할찌라도 그는 우리당 학습체계에서 조직적으로 교양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적 교양과 훈련을 받을 기회는 적었고, 따라서 조직성과 정치성은 자체 당생활에 있어서의 커다란 약점으로 되고 있는것이다。

신입당원들을 당사업에 적극 참가시키지않고 당사업으로부터 제외하는 경향들은 하급당단체들이 신입당원들에게 대한 조직 정치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범하고 있는 부분적 결함중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지적되는 결점으로된다。 신입당원들을 당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는 것이 신입당원들에 대한 당사업의 기본으로 되어야한다。 신입당원들에 대한 당사업을 강화할 대신에 그를 방임하는것은 제二차전당대회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지 않았으며 당조직적 원칙으로부터 나온 당적 사업정신이 미약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오늘 정치 경제 문화등 각분야에 걸쳐 조국건설사업에 있어서의 열성적인 분자들이 부단히 우리당

대렬에 가입됨에 따라 당단체와 당간부들은 이들 신입당원들에 대한 당사업을 여하히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강화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대하여 중요하게 관심할것이다。

신입당원들에 대한 당사업은 그들 신입당원들의 공통적 사실로 되고 있는 약한 당성을 강화하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에 복무하려는 높은 열성을 사상 정치적으로 제고하는것을 그 원칙으로 삼아야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신입당원들에게 그들의 정치 리론수준에 알맞는 당정치교양사업을 실시하여야한다。그것은 당원 특히 신입당원들에게 무엇보다도 당에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주는것이 선결적 사업으로된다。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사회적、정치적 생활에 있어서 일체의 계급적 자각성을 높이며 온갖 계급적 원쑤들을 증오분해하는 투쟁심을 고무 격동케하며 사회발전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력사적 과업들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며 자체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 향상케하는 제업적들은 오로지 당만이 거둘수있는 성과로된다。

당원들이 당의 령도성의 고귀함과 당원의 영예를 자각 고수함은 오직 당의 본질을、파악하는데 있다。

당에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는 사업은 당강령과 규약을 정확히 인식시키며 철저히 준수케하는것을 그 기본으로한다。당강령은 제기된 계단에 있어서의 당의 총로선이며 당규약은 당원들의 당생활과 당내부사업의 규범으로된다。당원들이 이를 파악함이 없이 진실한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없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당단체들이 당원 특히 신입당원들에게 당강령과 규약을 철저히 리해시키며 준수케하는 해석사업조직이 미약한데로부터 당 정치로선을 오해하며 조직생활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적 행동들을 시정하지못하고 있는 사실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신입당원들에게 당원으로서의 할 과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의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당성을 높여주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강령규약을 철저히 인식 준수케하는 사업이 첫째사업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신입당원들이 정치리론수준을 구체적 조건에서 향상 제고시키는 사업에 있어서「전체당원들은、특히 새로입당한 당원들은 적어도 당강령과 규약의 습득、일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해방운동사에 대한

초보적 지식、로동당의 발전의 기본적 계단에대한 지식、민주건설에 있어서와 우리조국의 자유 및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로동당의 역활에 대한 지식을 내용으로하는 최소한도의 정치적 준비를 의무적으로 하여야할것이다」라는 제二차전당대회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조직집행하여야한다。

신입당원들에 대한 당의 두번째로 중요한 사업은 새로 들어온 당원들을 당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고 훈련하는 사업이다。

당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는것은 당사업에 경험이 짧으니만큼 그들의 사업능력과 소질을 참작하여 힘에 적응한 사업을 주며、집행을 겸열하여 주며、적당한 비판을 주는등 사업을 통하여 당사업에 깊이 인입하여 활동하는 조건과 가능성을 조성하여 줌을 말하는것이다。

이 사업의 실질적 의의는 막대하다。그것은 새로 들어온 당원들에게 당사업방법을 가르쳐주며、책임감을 제고시켜주며、당적 리익에 복무하는 회생성과 용감성을 배양하는 성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당원들을 훈련함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당사업에 광범히 참가시키는 방법과 수단을 백방으로 강구하여야 할것이다。

당단체들이 신입당원이라하여 아무런 과업도 주지않고 다만 회의와 학습회에만 참석을 요구하는데 그친다면 그는 자연히 당에 대한 용기와 헌신성을 잃게될것이다。

당적 위임의 실행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는것이며 더우기 그들의 당적 조직성과 규률이 단련되는것이다。때문에 신입당원들에게 적당하게 당사업을 맡기는 사업을 등한히하거나 제외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의 사업능력과 소질을 연구하고、적당한 사업을 주며、사업의 정치성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양주며、집행과정을 살피며、자기비판과 비판에 의하여 자체사업을 검토하는 기회와 조건을 지어주는 조직지도사업이 부단히 진행되어야 한다。

새로 입당한 당원들이 당적 과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지어주며 그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좋은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각적 열성과 창의성을 발휘케 하며, 당적 책임의 철저한 실천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당적 훈련이 적은 신입당원들에게 승리는 반드시 가혹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된다는것을 깊이 인식시켜 당적 투지와 계급적 각성을 제고시켜 반동에 대한 적개심을 일층제고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산과 사회 정치생활에서 모범적 역활을 높이도록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끝으로 당간부들은 신입당원들과의 개별적 접촉과 지도사업을 통하여 훈련하며 교양하여야한다。 직장과 가정을 물론하고 더욱 친밀하여지며 그들의 일상생활이 당적 리익에 복종되어 당의 기치를 높이 드는 사상의식을 고무 추동하여야한다.

신입당원들에 대한 당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당 조직을 강화하는사업에 있어서 기본적 과업의 하나로 된다。 때문에 최근 당중앙본부 상무위원회는 이 문제를 토의하고 제반대책들을 수립하였다。 당단체들과 당간부들은 이 사업의 성과를 더많이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당중앙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깊이 연구 침투시키는 사업을 옳게 조직집행하여야 할것이다.

당적 처벌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검열위원회 위원장 장 순 명

一、

당내 사상통일과 당규률을 강화하면서 당을 공고화하기 위하여는 당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당원자격을 상실한자에 대하여 당적 책벌을 적용한다。

당은 당규률을 준수할것을 각개 당원에게만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어떠한 당단체들에 대해서도 이를 요구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당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당상급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지않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상급기관으로부터 과오를 범한 그 당단체에 대하여 당적책벌을 줄수있다。 이는 우리당이 근로인민들의 모범이 되며,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며, 항상 전진하고 있는 강유력한 조직적 부대라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우리당은 근로대중의 우수한 선진적 분자들로써 조직된 강철같은 규률의 보지자이며 혁명적 정신으로 무장한 조직적 부대이다。 우리당은 조직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내의 고상한 규률을 요구한다。 당조직상 강철같은 규률이 없이는 한덩어리의 전투적 조직적부대로서 일치한 행동을 취할수없으며 위대한 조직적 력량을 발휘할수없다。 더우기 국제 국내적으로 복잡첨예화한 현정치정세하에서 원쑤들과의 가혹한 투쟁에 있어서 당규률의 강화는 무엇보다 당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당규률의 해이는 당조직의 무장해제를 의미하는것이다。 당은 규률과 조직적 확신이 되는 때라야만 투쟁의 임무를 실행할수있으며 제과업들의 승리적 성과를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당은 비당원대중을 교양주며 지도하며 대중의 힘을 당의 주위에 집중시키지 못한다면 당으로서 존재하기 곤난하다。 당은 엄격하고 고상한 규률이 없이는 근로대중을 자기의 주위에 끌고 나아갈수 없는것이다。

당규률의 강화는 당내외 사상통일을 보지하며

당조직의 일치성을 보장하며 당과 국가에서 위임한 제파업들을 승리적으로 달성할수있는 담보로 되며 적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힘을 발휘할수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것이다。

그런까닭에 우리당에 들어올수있는 자는 정치적으로 검열되고 준비된 자로서 당에 충실하고 정직하여야하며 일정한 절차와 수속을 밟아야한다。

이는 우리당 규약 제三조에 명백히 기록되어있다。로동자、농민、인테리겐챠들로서 당의 강령을 승인하고 당규약에 복종하며 당의 일정한 조직내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려는 자를 당에 가입시킬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당강령을 찬성하지 않는 자는 당에 들어올수 없으며 또한 당내에 있을수도 없는것이다。당원으로서 당의 강령을 찬성하지 않는자에 대하여、옳지못한 사상을 가진자에 대하여 당적책벌을 적용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리하여 불순분자、이색분자、기회주의자들을 당내에서 몰아내는것은 당정책상 정당한 규률의 발동인것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당강령을 찬성하고 승인하는것으로만은 만족하지 않는다。당원들은 반드시 당규약에 복종하여야 된다。당규약에 위반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당원들은 당규약에 충실하여야 된다。만일 파오를 범한 경우에는 당원의 립장에서 정당한 자기비판이 있어야하며 당의 지적을 정당하게 받으며 당적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이렇게함으로써만 자기의 허물을 고칠수있으며 자기자신을 옳게 발전시킬수 있을뿐만 아니라 당에서 위임한 자기사업을 집행할수 있으며 그 사업을 부단히 발전시켜서 당과 국가에 기여하는바 큰 성과를 가져올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당강령을 찬성하고 승인하였으며 당규약에 복종하는것으로만은 아직 당원의 자격을 다 갖추었다고 인정할수 없는것이다。당강령을 승인하고 당규약에 복종할뿐만 아니라 당에서 위임한 모든 당적 임무를 충실히 열성적으로 실행하는것이 또한 중요한것이다。당원이 당강령을 찬성하면서 당적임무를 실행하지않는다면 이는 우리당이 자기의 정치로선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곤난을 극복하면서 투쟁하는 당의 진로를 막아버리는 장애물로 되는것이다。당원으로서 당적임무를 실행하지 않을때에 당적 규률을 발동하는것은 또한 당연한 일인것이다。

당적임무를 실행한다는것은 자의적 동작을 말하는것은 아니다。당에서 위임한 자기의 사업을 성심 성의껏 충실하게 실행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만일에 당장성을 한다고 하여서 당을 함부로 확대하는것을 허락할수있겠는가? 입당절차를 무시하고 입당자의 성분을 고려하지않고 되는대로 당장

성을 하였다면 그 당단체가 우리당의 로선을 옳게 집행하였다고 볼수없을것이며 또 옳게 집행하리라고 믿을수 없을것이다。우리당의 기본성분이 아닌자 혹은 친일분자 불순분자등 이러한 종류의 성분들을 당에 흡수하였다고 하면 이것으로써 당장성을 옳게하였다고 인정할수 있겠는가? 이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당에 대한 모욕이다。이러한 당단체에 대하여서나 그 당단체 지도일꾼들에 대하여 당적 책임을 추궁하고 엄중한 책벌을 주는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와는 반대로 당장성에 특별한 주의를 돌린다고 하여서 당문을 닫고 관문주의를 쓰며 우리당의 기본성분인 로동자들을 무시하고 정치적 수준이 낮다는 구실로써 당에 받지않는다면 이는 옳은 일이라고 인정할수 없을것이며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것이다。평북도내 일부 당단체에서 이와같은 과오를 범하였던것이다。이 과오에 대하여 당단체의 책임일군들에게 당적 처벌을 준것은 가장 옳은 일인것이다。

인민경제계획실행을 협조하는데 있어서 수량만을 뽑거놓고 그 질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계획량 실행을 옳게 보장하였다고 인정할수있겠는가?물론 옳지못하다고 지적하여야할것이다。

이와같이 당적임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다만 충실히 실행하는가 하는것이 문제인것이다。당원의 충실성—정직하고 진실한것—이것이 당원의 온갖 행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어있다。로동당원으로서 당강령을 승인하고 규약에 복종하며 당적임무를 실행하지않는 당원은 없다。그러나 실행、그것이 충실하냐 충실치못하냐?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당 사업가운데 있어서 당규률을 침범하고 아니하는 중대한 계기로 되어있다。당원의 충실성、이것은 대중의 모범이 되며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것이며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당의 규률은 맹목적이어서는 아니된다。우리당의 규률은 복종에 대한 자각성과 자원성을 제외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는것이다。자각적 의식적 규률만이 당의 강철같은 규률이 될수있는것이다。

二、

우리당에서는 어떠한 책벌을 줄수있는가?

당적 파오를 범한 경우에서는 주의、견책、경고、엄중경고 및 출당까지 줄수있는것이며、책임적 지위로부터 해직시킬수 있으며、행정 및 사법기관에 법적 처리할것을 위임할수도 있는것이다。조직체에 있어서는 파오를 범한 당단체에 대하여 책벌을 줄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그 당단체를 해산시키고 재등록까지 할수있다。

이와같은 책벌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는가? 자기의 리력을 기만하고 당에 들어온자, 당을 속이는 자에 대하여 엄중한 책벌을 적용하되 출당까지 줄수 있다. 당을 기만하는 자가 당에 충성을 다할수 있겠는가.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충실한 일군이 될수 있겠는가.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거짓으로 장식하는자, 당에 진실을 알리지않고 허위와 가장으로 보고하는자, 이러한 자가 당원이될수 있겠는가. 우리당원은 근로대중의 지도자요, 모범적 역군인것이다. 우리당은 사상적으로 순결하며, 조직적으로 일치 단결된 당이다. 순결하지못한 비당적 오물은 당내로부터 청결하여야 한다.

더우기. 불순한 리력을 기만하고 당내에 잠입하여 인민적 민주건설을 반대하며 당과 국가와 인민들에게 해독을 주는 반동분자, 친일분자, 이색분자들을 당내에서 몰아내며 사법기관에 넘기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이러한 반당적 분자들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보증선 당원에게까지 그 책임을 추궁하여야하며 적당한 책벌을 주어야한다. 신입당원의 불순한 리력을 알면서 보증하였다면 더욱 엄중한것이요, 가령 그 리력을 모르고 보증섰다고 하여도 그 과오에 대한 책임은 면치못할것이다. 제二차 전당대회에서 당규약수정시에 입당보증인의 책임을 명백히 규정하여 놓은것은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당내에 불순분자, 이색분자의 잠입을 미연에 방지할수있으며 나아가서 당의 기초를 공고히하며 당조직의 순결성을 보장할수있는 까닭이다.

또 리력이 불순하며 우리당에 충실하지 못할자들이 당내에 그대로 있을수 있겠는가 우리당은 이러한것을 용납하지않는다. 또한 당에 충실성이 없으며 당사업에 태만하며 당의 결정과 지시에 마지못하여 움직이는 형식분자, 기회주의자, 이러한 분자들은 당에서 몰아 내어야 한다. 이러한 분자들은 우리당의 기본적 요소가 아닐뿐만 아니라 더우기 충실성 없는것은 당사업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들이다. 이러한 분자들을 당내에 그대로 둘수없는것은 당연한 일인것이다.

우리당은 당내에 프락치야의 존재를 허락하지않는다. 당내 종파적 그루빠를 인정하지않으며 종파분자의 반당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우리당은 사상적으로 통일되고 조직적으로 일치단결된 유일한 당이다. 당규약 제四조에 명기하여 있는 바와같이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당기관의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며 당원은 조직에 복종한다. 전당은 당중앙위원회의 주위에 튼튼히 뭉치어야한다. 이러한 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강력한 규률이 없이는 전

당을 통제할수없으며, 수백만 근로대중을 지도할수 없는것이며, 원쑤들과의 가혹한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할수 없으며, 제반 민주주의적 성과들을 공고확대할수 없는것이다.

당적 임무실행에 있어서 책임적으로 실행하지않고 태만하며 충실성이 없는자에 대하여 당에서 책벌을 준다. 당적책임을 망각하고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이런 혹은 저런 종류의 당적 책벌을 주는것은 정당한 일이다. 당원은 어데까지든지 정직하여야되며, 당에서 위임한 자기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이며 열성적이어야한다. 당원들이 자기회생과 용감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모든 곤난을 극복하면서 승리적 성과를 달성할수 없는것이다. 당적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는것은 당원의 의무인 것이다.

당의 정책을 위반하는자, 당의 결정과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당적 책벌을 준다. 당의규률을 존중히 하는자는 국가법령도 등한히 하지않을 것이다. 오늘 공화국정부의 모든 법령과 시책은 당의 정책에 결부되어 있으며, 당의 로선에 합치되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당은 인민주권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것은 당의 정책과 당의 결정을 위반하는것이다. 이러한 분자에 대하여 책벌을 주어야할것이다. 당원은 국가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지며 인민경제건설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것이다. 공장, 광산, 철도, 농촌, 학교, 병원, 상점등 정치, 경제, 문화 각분야에 있어서 그 실행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 우리당원이 먼저 책임을 지는것이다. 국가의 법령, 로동규률등 이것은 조선의 민주주의적 독립을 보장하며 근로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신속히 향상시키는 조건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당의 결의와 국가의 법령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하여야한다.

또 당원은 당과 정권기관 및 사회단체들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는분자에 대하여는 당적 처벌을 주어야한다. 일부 당원들중에는, 당기관의 위신만 생각하고 정권기관 및 사회단체의 위신에 대하여 고려하지않는 당원들이 있다. 그들은 사회단체에서 누가 주동적 역활을 하며, 수많은 비당원군중속에서 누가 선진적역활을 하고있는가를 모르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당 및 정권기관과 사회단체의 위신을 제고시키는데 더욱 노력하여야한다.

당원으로서 인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자, 국가와 사회도덕과 질서를 파괴하는자는 물론이거니와 당과 국가재산을 애호하며 절약하지않고 국가재산에 많은 손실을 준자에 대하여 당적 처벌을

적용한다。 심한경우에 있어서는 법적기관에 넘길수있다。 오늘 우리당규률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것은 당과 국가의 재정규률문제이다。 수많은 당원은 국가의 경제기관에서 책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개의 당원들이 재정규률을 엄수한다면 여러가지의 범죄적 사실은 미연에 방지할수 있으며 국가에 많은 리익을 줄것은 의심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당원들중에는 재정규률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고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생활을 원조한다는 구실로써 후생사업비라는 명목하에 적지않은 국가재산을 랑비하고 있는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있다。 이에 대하여 당원들은 특별한 주의를 돌릴것이며 당적 경각성을 높여야할것이다。 따라서 당재정규률을 위반하는 당원에 대하여 엄중한 당적 책벌을 준다。

당생활을 기피하는자、 즉 당회의에 참가하지 않으며 당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자 이러한 자에 대하여 당적 책벌을 주어야한다。 만일에 의식적 행동이라고 할진대 출당까지 줄수있다。 당규약 제七조에는 당원의 임무에 대하여 명백히 기록하여 있다。 당원은 의무적으로 당회의에 반드시 참가하여야하며 당비 및 의연금등으로 당에 물질적 원조를 할것이라고 하였다。 당원은、 당의 조직적 활동에 참가하여야 하며 당비를 제대에 납부하여야 당원의 자격을 가질수 있는것이다。

우연히 입당한자 당의 허락없이 이동하는자는 당규률을 위반한 것이다。 당원은 당조직에 종속되어있다。 조직적 행동은 당원의 자유를 구속하는것으로 그릇되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당원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더욱 제고시키는데 의의가 있는것이다。 당조직생활에 부자유를 느끼는 자는 당에 있을수없나。 어떤 당원을 물론하고 당조직에서 떨어져서 생활할수는 도저히 없는것이다。

당증을 분실한자、 당증을 오손한 자에게는 당적 책벌을 적용한다。 당증은 보통의 증명서가아니다。 당증은 당원의 정치적 생명을 표정하는 유일한 물질적 증거이다。 당증이 타인의 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당원의 커다란 불명예이며 당에 주는 정치적 손실은 막대한것이다。 여하한 곤난에서 발생되었든지 당증을 분실하였다는것은 당에서 엄중히 처벌하여야한다。

당원은 개인생활에 있어서 당규률과는 관계없는가? 당규약에는 당원의 사생활에 대하여 문자로 기록하여 놓은것은 없다。 그러나 당원의 생활은 개인생활로 될수없으며 당원의 가정생활은 개인의 문제로 될수없다。 당원이 불순분자들과 친교하거나、 당원이 매일같이 술만먹는 이러한 일들을 사소한 일로 볼수없는것이다。 당원의 아들과 딸들이、

현재 부모들이 조선의 민주건설을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반국가적 행동을 하거나 하는것이 모두 당원의 개인문제、 가정의 문제로 묵과할수없다。 당원이 분에 넘치는 사치와 안일한 생활을 하거나 당원이 뢰물을 받아먹으며 당원이 방탕하며 불량한 생활을 하는것이 사소한 일로 될수없다。 우리에게는 당생활의 도덕이 있다。 당의 도덕적 생활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당원의 생활도덕을 준수하여야 군중의 모범이 될수있으며、 인민의 지도자가 될수있는것이다。 이러한 과오에 대하여 당에서 주의를 돌리는것은 당연한 일이며、 당적규률로써 제재하는것은 또한 옳은것이다。

당은 당원 한 개인에게만 당적규률을 엄수하라고 하지않는다。 같은 당원들의 과오와 결점에 대하여 투쟁하지않는다면 그는또한 당규률을 위반하는것이다。 과오와 결점에 대하여 타협하지말며、 융합하지 말아야한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방관시하는것은 당내 비판을 마비시키며、 당의 규률을 해이하게하는것이다。 이는 당을 해하게 하는것이며 적을 도와주는것으로 된다。

당원은 항상 자기의 정치적 리론과 문화적 수준을 제고하여야한다。 레닌은 일찌기 「혁명적 리론이 없이는 혁명적 운동이 있을수없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깊이 명심하고 자기학습에 충실하여야한다。 또 자기맡은바 사업과 기술에 능숙하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한다。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리해할줄 모르며 정치적으로 처리할줄 모른다면 당에서는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하지않는다。 자기사업과 자기기술에 능통하지못한다면 당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한다。 그러므로 당원은 자기의 정치적 리론수준을 향상하기에 노력하며 자기사업과 기술에 능통하도록 전력을 다하여야될것이다。

三、

당원들의 범과에 대한 책벌문제취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엄격하여야하며 공정하여야한다。 가족적이며 친우적이어서는 안된다。 정실관계에 사로잡힌다면 당규률은 해이해지고 당원의 무책임성을 조장하는것이다。 아직까지 일부 당단체들에서는 개인의 친분관계로 융화주의、 무사주의가 잔존하여있는것을 볼수있다。 이는 적을 도와주며 당을 해롭게하는것이다。 그와 반대로 당규률문제 취급에 있어서 감정적이어서는 아니된다。 당을 분해시키려는 불순분자들의 암해와 여론에 동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원들의 범과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열하고 그의 사상적 근거를 정확히 판단한후、 적당한 책벌을 주어야한다。 일부 당단체에서는 당원의 규률문제취급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취급하여 당원의 정치적 위신을 침해

하는 일까지 있었던것이다。

당규률문제 취급에 있어서 당내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일부 당단체들에서는 본인을 참가시키지않고 단지 보고에 의하여 책벌을 적용하는 일들이 적지않게 있는것이다。그 사실을 긍정하며 그 책벌을 접수할것인가 아니할것인가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이러한 일들은 당원의 의사를 봉쇄하는것이며 당원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억압하는것이다。

당증분실에 대하여 치벌주는것으로 그 일이 끝난것으로 알아서는 안된다。분실된 당증을 어디서든지、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도로 찾아내어야 할것이다。그 책임을 그 당원에게 지워야할것이다。당원은 당증을 분실하지 말아야할것과 당증을 분실한 당원은 반드시 분실한 당증을 도로 찾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 당단체들에서 복당을 함부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다。무조건 복당을 허락할바에는 처음에 출당을 주지말것이 아닌가?당에서 출당을 결정하는것은 영구히 당에서 떠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출당당한자가 장구한 시일을 두고 자기사업에서 열성과 충성을 다하여 사상적 개변이 확실히 인증되는때 새로 입당하는것은 별문제이다。그러나 출당조건 리유가 당규률에 해당치 않거나 또 범과의 사실이 근거가 확실치못한때는 당연히 출당결정을 취소하고 복당시킬수 있는것이다。그러나 범과의 사실이 확실하고 출당조건과 리유가 분명한때에는 다시 복당될수는 없는것이다。

당단체와 당원의 과오와 결정에 대하여 당규률을 적용하는데 늦어서는 아니된다。제대에 신호를 주는것이 항상 당의 규률을 튼튼히 보지할수있는 조건으로 된다。

당규률은 당원의 사사로운 사생활에 대한 문제에 치중할것이 아니라 당규률은 당원의 사업을 보아야하며 그 사업의 결과를 평정하여야한다。여기에 당규률의 공정성이 있으며、당사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당원의 리력은 그 당원의 사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출신 성분、과거의 직업등등은 그 당원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당사업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는 당원에게는 반드시 그 당원의 리력을 들추어 보아야한다。이리하여야만 그 당원의 오유가 어떠한 사상적 근거에서 발생되었는가를 판정할수 있는것이다。이 문제가 당규률문제 취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四、

당적처벌은 당규률을 강화하는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되어있다。당원들을 고상한、규률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당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원수들에 대한 경각성과 투쟁의 정신을 제고하며 모든 과오와 결점을 증오하는 사상으로 교양하는것이다。·이렇게·함으로써 당의 사상통일과 당조직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여 일치단결된 강유력한 당으로 발전하는것이다。

우리당은 해방이후에 건설된 젊은 당이다。그러므로 일본제국주의의 낡은 잔재는 오늘의 조선형편에 있어서 당내에 새어들어올수 있는것이다。비당적 잔재의식들은 국가재산을 좀먹으며、당의 정책을 의곡하며、당사업을 태공하여 당과 국가에 많은 손실을 주는것이다。북반부 민주건설을 과괴하며、조국의 통일과 독립에 장애를 줌으로써 당파 인민정권의 위신을 손상시키려는 일들이 부분적으로 있다。당내에 잠입해있는 이러한 경향들에 대하여서는 용서없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당을 공고히 할수있는것이다。당단체와 당원들은 이 모든 불순경향들과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우리당을 더욱 튼튼한 반석위에 세워야하며 당로선의 승리를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당정치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경제과업을 정치적으로 보장하자

북조선로동당 함남도당부 위원장 박 영

공화국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하기위한 방대한 경제건설 사업의 각분야에 있어서 로동계급을 핵심으로한 근로인민의 조직적 선진부대인 우리당은 항상 인민의 선두에서 선봉적 역활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 투쟁행정에서 부단히 장성되고 강화 발전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과업 실행에 있어서 우리당의 정치적 활동의 강화는 사업의 성과를 보장함에 있어서 절대한 조건으로 되고있다。 더우기 一九四九년—一九五〇년의 二개년 인민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투쟁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쟁취하기 위하여 경제부분에서의 우리당단체들의 정치사업을 어느때보다 활발히 전개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결정서에 「각급당단체들은 二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강력하고 철저한 일상적인 군중정치사업을 통하여 경제과업을 정치적으로 보장하고 매개당원들이 자기사업에서 핵심적 역활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계획생산을 보장하도록 하여야할것이다」라는 중대한 과업을 전당에 제시하였다。

함남도당단체는 이미 一九四七년도와 一九四八년도 경제계획실행을 협조보장하는 투쟁행정에서 경제분야의 당단체를 정치적 조직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경제계획실행을 당적으로 보장하여야한다는 당중앙의 기본방침이 가장 정확하다는것을 확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당단체는 경제부문 특히 생산부문내 당단체를 강화하기에 특별한 주의를 경주하여 왔으며 더우기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결정집행을 위한 사업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 ×

경제부문의 당단체들의 기본임무는 전체 당원들로 하여금 고상한 당적 계급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전체 근로자들의 모범이되며 당원들의 활동이 광범한 비당원 군중들의 행동상 지침으로 되도록 정치적 사상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또한 유일관리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관리측 명령계통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직장규률을 강화하며 행정간부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적극 방조하여야한다。 이와 동시에 당단체들은 해당부문 사업을 균형적으로 또한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 투쟁에서 앞을 멀리 내다보고 전망성 있는 정치적 활동을 원만히 전개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결코 단순한것이 아니다。 례를들어 한 생산직장의 사업을 정치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당단체는 우선 자기직장이 경제계획실행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처하여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철저히 인식한 기초위에서 직장내 어느부문을 물론하고 물샐틈없는 당적주의를 돌려야하며 따라서 당의 력량을 적확히 배치하는 사업부터 보장하여야 한다。

더우기 조선의 민족공업은 일제에 의하여 극도로 파괴되었던것이며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악독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우수한 기술자들이 풍족하지 못하며 자재와 각종 부속품들이 부족한 환경에서 인민경제를 부흥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사업행정에서 적지않은 애로와 난관들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단체들은 이러한 애로와 난관들을 사전에 예견하고 그를 타개할 대책들을 강구하며 전체로동자들과 간부들에게 그를 뚫고 나갈 의지와 용기를 배양하여 주어야 한다。

생산직장내의 모든 투쟁은 질이 좋고 값이싼 필수품들을 대량적으로 또한 계속적으로 생산하는데 있으며 그 사업을 점차적으로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는데 기본목적이 있다。 그런까닭에 복잡하고 밀접한 련계관계를 가진 생산부문의 한부분이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못하는 경우에는 필연코 전체생산에 지장을 주게되며 생산직장의 기본목적에 배치되는 현상을 낳게된다。 그러므로 당단체들은 각부문에 로력을 정확히 배치하며 배치된 로력이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며 새로운 창의창안으로써 보다높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에 당적주의를 경주하며 생산의 정상적 발전을 위하여 기본건설 사업을 촉진시키며 로동자들의 물질 문화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에서의 그들의 창발력을 더욱

제고하는등 각부문의 사업들을 정확히 협조 보장하여야 한다。

× × ×

경제과업들을 정치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중의 하나는 부분적 당단체들이 당사업을 행정화하고 생산직장내에서 군중정치사업을 등한히 조직하는 경향들과의 투쟁에 있다。

적지않은 당단체들에서 당원들과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을 정치적 사상적으로 교양훈련하여 그들이 의식적 자각적으로 증산에 분투하도록 당조직과 사회단체를 발동시키는 사업보다 오히려 관리측 사업범위에 침범하여 행정식 지시를 주며 보고를, 받는등 사업방법으로써 자기사업을 잘한듯이 인식하였다。

이와같은 사업작풍은 경제과업 실행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었으니 그는 우선 유일관리제 원칙을 위반하고 관리측 명령계통을 마비시켰다。 이는 중요한 결점이였다。 한직장에서 지배인이나 공장장의 명령계통을 무디게하는것은 생산의 발전속도를 더디게하는 엄중한 사태를 낳게되는것이다。

왜그러나 하면 한기업소나 공장 광산 철도의 전체적 관리운영을 위임맡고 사업하는 지배인, 공장장이 전체적 견지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하부에 내린 지령이 그의 요구하는 시간내에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가 계획한 사업은 실현되지 못할것이니 이는 곧 국가와 인민이 요구하는 속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하게되는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당단체가 관리측 사업을 대행하는 결과로써 행정간부들의 책임성을 마비시키게하는것이며 그들의 의존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것이다。 과거 많은 당회의들에서 자재구입 로력알선등 행정적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토의하였던데서 부분적 행정간부들이 자기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로력을 경주하기보다 당에와서 애로를 진술하는데 그치거나 심하면 그것조차 하지않고 전혀 당에서 해결해 주겠거니 하는 의뢰심을 조성하였다。 사업지도상 이와같은 부분적 결점들은 생산곡선의 심한 굴곡을 보게되었으며 사업의 정상적 발전을 보장하지못하였다。 즉 당단체가 당원들과 비당원군중 가운데서 정치적 활동을 미약하게 전개하였으므로 그들의 자각적 투쟁을 고무하지 못하였으며 관리명령계통과 관리간부들의 책임성을 부분적으로 마비시키는데서 초래되는 결과이다。

도당단체는 일찌기 이 결점이 경제과업실행에 미치는바 영향이 크다는것을 알게되자 당사업의 행정화경향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투쟁은 이미 一九四七년말 一九四八년 초기부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제二차전당대

회이후 더욱더 이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면에 당적주의를 경수하였다。 그 결과 오늘에와서 이 경향은 부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근절되기에 이르렀다。

흥남 五대공장에서의 사업경험을 보면 이 방대한 공장들의 관리운영사업을 정치적으로 협조보장함에 있어서 당단체사업이 부분적으로 행정화하여 관리측 사업을 대행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생산에 미치는바 영향이 다른 어느 부문보다 컸던 것을 알게되었으므로 도당단체는 이에 커다란 관심을 일상적으로 돌려왔으며 또 돌리고있다。

도당단체는 우선 공장내 당세포들이 너무나 비대한데서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전체 당원들을 상대로 사업하기보다 관리측 간부를 상대로 사업하려는、편에 기울여지려는 경향을 시정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당중앙의 결정을 받들어 한세포에 수백명의 당원이 속하고있던것을 세분화하였으며 가장 방대한 비료공장 및 본궁공장내에 구역당부를 조직하고 공장내 중요한 생산부문별로 부문당부를 조직하여 세분화된 분세포들을 지도케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단체들로 하여금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보다 철저히 장악 지도할수 있게하였으며 당내정치교양사업과 군중교양사업을 자기의 가장 큰 사업중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에 중대한 관심을 돌리도록 보장하였다。

이와동시에 전체 당원들로 하여금 관리측 명령에 출선, 모범적으로 복종하며 관리간부들의 위신을 제고하기에· 노력할것을 제시하였으며 당원인 관리일꾼들의 책임성을 높이기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었다。 그러기 위하여 공장내에 부분적으로 조성된 무원칙한 평균주의적 경향과의 강한 사상투쟁을 호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지 않는 개별적 불순한 간부들을 숙청함으로써 간부들에대한 군중의 신임을 제고하는 사업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이와같은 치렬한 사상투쟁의 결과로써 오늘 흥남五대공장내의 절대다수의 당단체가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해결을 정확히 하며 관리명령계통이 확립됨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렇다고해서 부분적 결함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 도내 일부 생산직장들에서 당단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못하는 결과 관리측 명령계통이 부분적으로나마 철저히 관철못되고 사업상 산만성을 완전히 극복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당단체는 이들 당단체사업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유능한 간부들을 파견하여 사업상 결점들이 조성된 원인들을 철저히 규명하며 결점들을 시정할때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여 이미

부분적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시킬것이다。

× × ×

도당단체가 경제과업을 보장함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것은 당의 력량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는 문제이다。 우리당원들이 조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당원들을 경제과업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들에 배치함으로써 광범한 비당원군중을 지도하여 그 부문사업을 당적 국가적 립장에서 정확히 보장하도록 조직하는 사업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그러나 종래에 일부 당단체들에서는 이에대한 주의가 부분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당원들이 한 부문에만 편중하고 당원비률이 극히 낮은 부문들이 있는데 대하여 그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게한 사실들이 있었다。 이런 결과에 직장사업을 균형적으로 보장못하고 편파적 현상들을 가져오게하였으며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는등 약점을 낳게하였다。

만약 어떠한 직장을 물론하고 우리당의 력량을 정확하게 배치하였다면 거기에는 파괴분자들이 침입하기 곤난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경각하여야 할것은 우리당의 력량배치가 비교적 약한 고리를 적들은 찾고있으며 우리당의 력량이 약한 곳에서 제반 약점들이 조성될수있는것이다。 이는 생산직장내 당단체들이 자기직장에서 발생되는 사고들을 계급적 립장에서 심각히 분석하여 본다면 쉽게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당의 력량을 배치함에 있어서 기술기능의 숙련정도와 사상적 준비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함께 반드시 적에대한 정치적 경각성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것이다。

도당단체는 함흥 철도국당단체를 비롯한 일부당단체들이 이에대한 주의가 부족하였던 결과 사업상 적지않은 지장을 주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적시에 그를 시정할데 대한 대책들을 강구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시에 근거하여 전체국내(局內)의 당력량을 재배치하고 불순분자를 숙청하며 적에 대한 경각성을 제고하며 교양사업을 강화하는등으로써 적극 시정에 노력한 결과 오늘에와서 사고가 훨씬 감소되고 철도수송을 정확히 보장하며 내각우승기까지 수여 받을수 있게 되었다。

함흥 철도국당단체의 이러한 사업상 개선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였는가? 그것은 사업을 보장함에 있어서 반드시 약한 고리를 포착하여 최

단기간내에 당의 력량을 보장함으로써 되도록 심중한 오유에까지 이르기전에 그 사업을 전환시켜 다른부면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한도로 국한시키는데 일상적인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고있다。

당의 력량을 정확히 배치하는 문제는 당장성사업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있다。 생산직장내 당단체들은 제반 건설투쟁 행정에서 충분히 검열된 우수한 고착로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교양주어 부단히 입당시킴으로써 그 부문의 당력량을 더욱 강화하는 사업들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종전에 림산부문의 일부 당단체들이 이 사업을 등한히 하였기때문에 부분적 림산직장에 당조직을 두지않고 당원장성에 노력하지 않은데서 이 부문의 당적 보장을 약하게 하였던 결과 一九四八년도 목재생산계획을 보장함에 많은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

도당위원회는 이러한 결점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매개 림산작업장에 당초급조직을 두고 당적협조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우수한 림산로동자들을 적극 교양훈련하여 당장성사업을 촉진시킬것을 제시하고 강력히 집행시킨결과 오늘에 와서 그의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 × ×

경제계획실행을 협조함에 있어서 당단체가 보장하여야할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사업을 일시적 깜빠니아식으로가 아니라 줄기차게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인것이다。

만일 이 사업을 보장 못하는데서 생산에 심한 파동성을 초래하였다면 그것만으로서 경제계획의 의의를 적지않게 약화시키는 좋지못한 현상으로 되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생산계획량을 달성하였다는 것으로서 덮어놓고 사업이 잘되었다고 평가를 내릴수는 없다。 물론 계획량을 달성하였다는것은 사업이 잘되었다고 평가할수있는 한가지 조건으로는、될수있으나、그의 전부는 아니다。 요컨대 그 직장의 생산이 정상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 계속 정상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였는가 하는 여부에서 정치적으로 평가해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험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생산곡선의 굴곡이 심하다는 그것이다。 대체로보아 년초보다 년말생산이 같은 조건하에서도 훨씬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으며 매 四분기초 보다 분기말 생산숫자가 높다。 여는 년초 또는 분기초에 많은 관리일군들이 앞날이 있다는 근거없는 안일성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지 않고 있다가 날자가 림박하게 되여야

돌격식으로 덤비는 비정상적 사업작풍에 대하여 당단체들이 제때에 준렬한 비판을 주지못한데 기인된다。

또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보장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부분적 지도일군들이 사업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않고 목전의 예정숫자 달성에만 급급하는데서 기본건설 사업과 기계보수사업들을 정밀한 계획밑에 정확히 추진시키지 못하는데 있다。이러한 고식적(姑息的) 사업작풍은 기계와 로력에 적지않은 타격을 주며 나아가서 생산의 정상적 발전에 지장을 주는것이다。

례를들면 일부 탄광내 당단체들이 생산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는데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기본굴진 사업을 추진시키지 않고 그날 그날 생산에 급급하여 여기저기에서 산만하게 채탄하였던 결과 금년초에와서 생산의 저하를 보게될 우려성을 낳게 하였다。또한 흥남비료공장에서 一九四八년도 년간계획을 一개월 단축하여 실행하였으나 사업상 부분적 결점들이 적지 않았다。그렇기때문에 도당단체는 이들 시군당 단체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이며 무계획적 사업작풍을 시정하고 기본건설과 기계보수를 제때에 대담하게 진행할것을 제시하여 다시금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장하고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보장 못하였던 경험은 과거의 증산 경쟁운동에서도 볼수 있었다。해방이후 각직장들에서 五·一절、八·一五해방기념들과 기타 명절들을 계기로 증산경쟁운동을 조직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쟁취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一九四七년도 八·一五를 계기로 흥남시당단체가 지도한 증산경쟁운동은 그때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에있던 생산수준을 급격히 제고하여 첫번째 경제계획을 승리에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활을 놀았던것이다。또한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을 一개월간 단축하여 완수할것을 전북반부 근로자들에게 호소한 흥남비료공장 로동자들의 증산의 봉화는, 경쟁운동에 있어서 항구적 성질을 부여하였다는 점만으로써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그러나 다수경우에 있어서 경쟁운동은 일시적 깜빠니아에 그치고 경쟁주간에 제고되었던 생산수준을 계속 유지못하였을뿐만 아니라 경쟁주간이 지나면 저하를 면치못한 현상들까지 볼수 있었다。

이에 도당단체는 증산운동을 항구적인 경쟁운동으로 조직추동할것을 제시하고 각직장의 정형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으로 진행할데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어 이미 초보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흥남시당단체가 도당의 지시를 구체화하여 비료공장을 중심으로 五대공장에서 실시하고있는 「민주주의 경쟁운동」은 출근률 제고、생산 책임량 완수、제품의 질적 제고와 원가저하、물자애호、안전시설의 완비와 사고방지、창의창안、기술습득、로동생산성의 제고、정치교양、군중문화사업의 강화、직장규률 강화등 구체적 조건들을 내용으로 광범하게 조직 실시되고 있다。

이미 흥남五대공장의 二〇五과와 九八二개반과 一五、七五六명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개인과 개인、반과 반、과와 과와의 경쟁조약을 체결하고 눈부신 애국적 증산운동에 궐기하고 있다。이 운동은 벌써 수많은 모범적 사실들을 낳았으며 당단체들의 선전활동으로 전체로동자들의 증산의욕은 무한히 고무되고있다。

이 운동의 성과는 一·四분기 생산숫자들이 증시하고 있으니 비료공장의 一월실적은 계획의 七二·八%、二월실적은 九一·九%、三월에와서는 一三〇·六%이며 기타 공장들에서도 생산숫자가 점차 상승되고 있다。

생산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는 기술자 기능자 양성사업과도 긴밀한 련관성을 가진다。기술자 기능자가 많이 부족하나 그를 양성할수 있는 앞으로의 전망은 풍부하다。그런데 오늘 일부 관리일군들이 자기사업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기술자 기능자를 양성하려는 노력에 비하여 타에의 존하려는 경향들이 아직 부분적 직장들에 있음을 보게된다。

그렇기때문에 도당단체는 기술전습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자체내에서 가급적으로 문제를 해결할것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생산사업을 정상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직장내의 모든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만일 로력조직을 정밀히 하였다 하더라도 원료자재를 제때에 공급못하거나 제품의 량적 달성은 되었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내지못하였거나 경쟁조직은 하였으나 작업조건을 효과있게 지어주지못하는등 불합리한 현상들을 극복못한다면 생산의 성과는 보장할수없다。그러나 일부당단체 책임일군들은 직장내부 정형을 모르고 무계획하게 제기된 문제의 뒷꼬리를 따라다니는 현상으로서 직장내 전체적 문제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 부분적 경향들을 볼수있다。

그렇기때문에 도당단체는 당지도일군들로 하여금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정부의 결정、지시、법령、규정들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관리측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조할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할것을 제시하고있다。

다시말하면 관리측 사업을 대행하면서 당정치사업

을 등한히 하는 경향과 생산정형에 무관심함으로써 관리측 사업을 사회적으로 협조할 방법들을 연구하지 않는 두경향들을 다 같이 배격할것을 제시하고있다。

× × ×

경제과업을 정치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당정치 교양사업과 군중정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전체당원들과 비당원들을 정치적 사상적으로 교양훈련하여 매개 로동자로부터 책임간부에 이르기까지 자각적 의식적으로 경제과업 실행에 참가하도록 보장하는 문제인 것이다。

특히 로동자들을 고상한 애국적 민주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우리당의 정치로선과 정부의 제반정책들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조국건설에서 로동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깨닫게 하여야 할것이다。 그럼으로써 자기말은 임무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경제건설에서 더욱더 영웅적 회생성을 발휘케 하여야한다。

그렇기때문에 도당단체는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생산직장내에서의 선전선동사업 군중문화사업들에 대하여 특별한 당적주의를 경주하여 왔으며 또 경주하고있다。 이 사업들에서 특히 교양사업에서의 중요한 결점은 대상의 의식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강의를 진행하는 형식적 경향과 강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 못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낮은 강의들을 진행한데 있으며 이 경향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극복 못하고있는 결점인것이다。

당세포학습회에 있어서도 얼마전까지 군중학습회 형식으로 진행한데서 당원들에게 계급적각성을 제고 하지못하고 평범한 시사해설형식의 강의에 그쳤던것이다。 그러나 당학습회에 있어서의 이러한 결점들은 완전히 시정되었으며 강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도 도당 및 시군당 강사강습을 수시로 조직 실시하여 점차 그의 질을 제고하고 • 있다。

특히 도당단체는 군중교양사업에 출현하는 강사들을 우수한 동무로써 보장할것을 제시하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 실시하도록 직맹 민청단체들을 지도할것을・강조하고있다。

이와동시에 생산직장내 당단체들이 비판과 자아비판을 높은 수준에서 철저히 진행할것을 제시하였으며 이 사업은 당내에서 뿐만아니라 당원들의 주동적 역할하에서 군중단체 직장회의들을 통하여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태공분자 자유주의적분자들을 조직적으로 비판하는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도록 하였다。

도당단체가 수산부분 당단체들이 수상(水上)작

업의 구실로 당학습회、군중교양、군중문화 사업들을 일반적으로 등한히 하는 경향에 대하여 준렬히 비판하고 선원(船員)들이 상륙하면 즉시 교양줄수 있는 준비를 갖출것과 계절적으로 많이 동원되는 부녀로동자들에게 선전사업들을 가강히 집행할것을 제시하여 적지않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특히 수산로동자들이 가지고있는 투기적 근성과 이 부문의 일부간부들에게서 나타난 사업작풍에 대한 치렬한 사상투쟁을 전개하여 직장내 새로운 민주주의적 기풍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시、군당단체의 부분적 지도간부들이 군중강연사업에 적게 출연하며 군중과 접촉하는 사업들을 적게 조직하고있다。 또한 적지않은 관리측 간부들과 기술간부들이 사업상 분망을 구실로 맑쓰—레닌주의 선진과학리론으로 자체를 무장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

그렇기때문에 도당단체는 시군구역당 지도일군들의 하부직접지도와 생산정형을 료해하는 문제들을 강조하는 한편 관리간부들과 기술간부들에대한 정치교양사업을 특별히 강화할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연히 등용된 불순간부들을 검토배제하는 사업들을 강하게 집행하도록 하고있다。

× × ×

로동자들의 물질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생산을 보장함에 중요한 부면을 차지하고 있다。

도당단체는 당중앙위원회 제三차회의 결정이 있은 이후 이 사업에 대하여 어느때보다 세심한 주의를 일상적으로 돌려왔다。 이 사업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당과 직맹 및 관리일군들이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리해하는 그것이다。

오늘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시책으로 말미암아 로동자 사무원들의 량곡배급 기준량은 증가되고 로동보호물자와 작업복을 무상으로 배급하며 물가는 점차 저하되는 등으로써 로동자들의 생활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당단체와 직맹단체들이 관리 행정사업을 보다 정확히 협조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도당단체는 로동자가정에 소채전을 제공하여 채소의 자급자족을 보장하며 가축사육을 비롯한 부업장려와 가정생활의 합리적 조직등 구체적인 지도사업을 전개할것을 제시하였다。

이와동시에 상업부문 당단체로 하여금 로동자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정상적으로 렴가공급하기 위한 심각한 주의를 돌리도록 지도하였으며 수산물 농산물의 교류와 상점망의 확충강화를 위하여 특별한 로력들을 경주케하여 적지않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여기서 결부하여 지적할것은 로동보호와 안전제설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로동자들을 고착시키며 그들이 안심하고 로동능률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까닭에 도당단체는 오래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강한 집행을 제기하고 적지않은 개선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들에 있어서 아직도 적지않은 부분적 결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물론 여러가지 경향으로 나눌수 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일군들이 로동자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계급적 립장에서 노력하는 점들이 부분적으로 부족한데서 그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방조하여 주지못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당단체는 로동자들의 생활에 무관심한 온갖 경향들과 무자비한 사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 ×

이상에 제기한 모든 사업들을 더욱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경제부문의 당단체 특히 당세포를 일층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하부당단체들의 강화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그것을 위한 기본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도당단체는 당중앙이 제시한 결정에 근거하여 하부당단체 지도사업을 제때에 구체적으로 조직실시하며 상급당의 결정지시들이 하부에 민속히 침투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지도하고 있다. 또한 당내민주주의를 일층 강화함으로써 전체 당원들이 당사업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며 당날에 대한 당원들의 인식을 높이며 당회의를 성과있게 조직 진행함으로써 당원들을 실질적으로 교양 훈련하도록 지도하여 적지않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금후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결정을 더욱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경제 부문의 당단체를 일층 강화하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의 고도로 앙양된 증산 투지를 적극 고무하여 二개년 인민경제계획 실행을 더욱 튼튼히 보장할것이다.

남조선산업의 파탄과 통화팽창

석 국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있어서도 오직 침략정책, 식민지 예속화정책만을 추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조선의 자주독립 보장」「조선의 경제재건 원조」라는 념불을 외이면서 남조선에 나타난 그 첫날부터 조선재식민지화정책만을 일삼아 온것이다.

그들은 남조선에 상륙하자 곧 인민들의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를 박탈하고 조선인민의 창의로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탄압하는 한편, 일체 정치적 주권과 경제적 리권을 자기수중에 장악하고 일본인에 대신하여「식민지로서의 조선」을 통치하는 태세를 갖추었던 것이다.

월가의 앞잡이들이 조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조선」이 아니라「미국의 식민지로서의 조선」「미국의 침략기지로서의 조선」인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모쓰크바三상회의에서 실질상 무기한의 위임통치제를 제의하였던것이며 쏘미공동위원회에서는 조선의 통일적 민족정부수립문제에는 조금도 관심을 돌리지 않고 다만 미국독점자본가들이 전조선의 경제적 리권을 장악할수있는 통일적 경제기관설치에만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이와같은 침략적 야망은 량군동시철퇴에 관한 쏘련의 제의를 거부하고 쏘련군이 이미 철거를 완료한지 반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공화국남반부에 자기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의 장기주둔을 꾀하고 있는데서 변명할 여지없이 뚜렷이 폭로된 것이다.

미군은 남조선주둔 四년동안에 직접 군정으로부터「과도정부」니「대한민국정부」니 그 명칭을 바꾸며 그 형식을 바꾸면서 그들은 일관하여 식민지침략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오늘날 이것을 일층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잠정적 군사협정」「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한미경제원조협정」등 일련의 침략조약을 리승만매국도당들과「체결」하고 이와같은「협정」으로써 자기

물외 남조선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분식하려 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차관」 혹은 「원조」라는 마명으로써 썩은 밀가루、강냉가루등 식량 기타 처치곤난한 전쟁과잉물자를 제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수입하여 남조선을 상품시장화하는 한편 남조선산업을 무참히 파괴하였으며 또 중석、흑연등 군수품원료를 미국 혹은 일본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또 「적산불하법」으로써 전(前)일본인소유의 기업소들을 직접 간접으로 지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기타의 각종방법으로써 중요자원 산업기관등을 강탈하고 있다。이리하여 오늘날의 남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미국독점자본가들과 그의 앞잡이들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같은 침략정책과 이를 환영 방조하는 리승만도당들의 매국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남반부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되고 미독점자본가들의 상품시장、원료공급지 및 자본투하시장으로 변하고 말았다。오늘날 남반부의 공장 기업소 광산등은 대부분 파괴 폐쇄되고 농촌은 황폐하여 생산은 점점 감소되어가고 있으며 그 반면에 미국의 전시잉여물자는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또 통화의 람발로 악성인플레는 조장되어 물가는 천정부지로 등귀하고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점점 떨어질뿐만 아니라 실업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로동자 농민은 말할것도 없고 전체 인민들의 생활형편은 극도로 궁핍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의 완전한 박탈、세계에서 그 류례가 드문 인민에대한 군사적 백색테로는 인민들에게 생산에 안심하고 종사할 가능성을 조금도 주지않고 있다。

× × ×

오늘날 남조선의 경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파멸상태에 빠지고 있다。

남조선의 산업의 기간(基幹)은 그 九七%를 차지하고 있는 전(前) 일본인 소유기업체 소위 「적산」이다。이 「적산」은 소위 「적산불하법」에 의하여 미독점자본가들과 그의 현지앞잡이 미군인들의 손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모리간상배들의 소유로 되어 이 기업체들을 복구하기는 커녕 현상 유지조차 하지못하고 이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반동신문인 「련합신문」까지도 「이나라 경제부흥의 귀중한 근간이 될 적산기업체는 시설의 파괴、일산(逸散)、도난、기타로 날이 갈수록 그 기능자체의 위축을 초래하고 만목황량(滿目荒涼)의 감을 깊게한다」(四월十五일부)고 보도하리만치 그 파괴상은 비참한 것이다。

그 실례를 「관제(官制)」통계에 의하여 보더라도 명확히 알수 있다。「조선경제년보」(조선은행 조사부 발행 一九四八년판)에 의하면 남조선 전체 공장 기업소 수는 一九四三년六월현재 一〇、〇六五개소였던 것이 一九四七년三월현재는 四、五〇〇개소로 즉 四四%로 감소되었다。특히 동기간에 토목건축업은 九九七개소에서 九〇개소(九%)로、방적공업은 一、六八三개소에서 五三七개소(三二%)로、인쇄제본업은 四二〇개소에서 一四三개소(三四%)로、식료품공업은 一、七〇四개소에서 六四三개소(三七·七%)로、제재 목제품(木製品)공업은 一、三五九개소에서 五四二개소(四一%)로 각각 격감하였다。광산부문에 있어서는 더욱 비참하다。一九四七년현재 채광하고 있는 광구수는 남조선 총광구 수 四、五八二개소중 一一九광구 즉 二·六%에 불과하며 광산수는 五四개소에 지나지 않는다。현재 채광하고 있는 광산들 중에서 비교적 성적이 좋은 것은 오직 미제국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중석(重石)、흑연(黑鉛)등 특수광산에 불과하고 기타의 광산은 채광한다는 것은 명색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그 구체적 실례를 옹진광산(금、은 등을 포함한 연(鉛)、아연—亞鉛—광)에서 볼수 있다。이 광산은 해방전에는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一년에 약三만톤을 채광하는 대광산이었으며 해방후는 남조선 광업총생산량의 五〇%를 점하는 우수한 광산이다。「련합신문」이 보도하는바에 의하면 해방직후 왜적이 이 광산을 파괴하려는것을 로동자들이 미연에 방지하고 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열혈분투(熱血奮鬪)로써 매월三〇〇톤을 생산하였다 한다。그러나 현재는 이 광산이 거의 파괴되어 근근 매월 二〇톤(즉 해방전의 〇·八% 해방직후의 六·六%)밖에 생산하지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三월二十三일부)

이것은 극히 一소부분의 례에 지나지 않는다。이와같은 파괴현상은 남조선의 모든 생산부문에서 거의 전체 공장 광산 기업소에서 볼수있는 보편적 현상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장 광산 기업소들이 직접파괴될과 아울러 각생산부문의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또 나날이 감소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유신문」이 「남한공업생산」은 「현하 종전의 약〇·八%밖에 생산능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휴면상태(休眠狀態)」(二월四일부) 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수 있는바와같이 오늘날의 남조선의 공업생산은 거의 전멸상태에 있다。

철강부문을 보면 一九四八년도 총생산량은 四、六〇八톤이며 이것은 一九四七년一월부터 八월까지의 八개월간 생산량 五、四五二톤보다도 감소되었으며 현유(現有) 생산능력의 六%에 불과한것이다。

(二월二十二일부 「국제신문」)

금년四월十六일부 「련합신문」이 게재하고 있는 해방후 남조선의 중요 공업생산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품명	단위	一九四五년	一九四七년	一九四八년	一九四九년 계획
제二차제품(第二次製品)	(톤)	二、五六六	七、五四八	七、六〇四	四、八〇〇
산업기계	(톤)	二、八〇〇	一、〇三〇	六〇〇	一五〇
농기구	(톤)	三三、〇〇〇 (一九四六년)	三、一〇〇	八、五〇〇	二、一三五
운수기계	(톤)	三、八〇〇	三三〇	一、八〇〇	四五〇
세멘트	(톤)	四〇、〇〇〇	三、八八八	三、六六六	七、〇〇〇
우갑피(牛甲皮)	(매)	二一〇、〇〇〇	六五、〇〇〇	七〇、〇〇〇	一〇、〇〇〇
변압기	(대)		二、八七二	一、三三三	一三三
전동기(電動機)	(대)		一、〇〇二	三九	八
전구(電球)	(개)		四、九八五、六六七	二、七五八、〇六一	三〇〇、〇〇〇

이 숫자는 부정확하고 의곡된 숫자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신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생산품의 수량이 해방전보다 급격히 감소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품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즉 이 표는 오늘날 남조선 공업이 나아가는 방향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소위 「산업부흥五개년계획안」의 제一년인 一九四九년도 계획이 선행(先行) 수년간의 매년생산고에 비하여 수분지一 내지 수十분지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만일 이 표의 一九四七년 一九四八년도 생산실적숫자가 아무 과장없는 정확한 숫자라면 一九四九년도 「계획」은 생산시설을 더욱 파괴하고 생산량을 상기한바와 같이 급격히 축소시켜 소위 「한미경제 원조협정」에 의한 「원조」를 받기 위한 지반을 닦아놓는 「계획」 즉 「산업부흥계획」이 아니라 「산업파괴계획」인 것이다。

그와 반대로 一九四九년도 「계획」이 「자유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바와 같이 「현하 종전의 약〇・八%밖에 생산능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남한 공업생산의 휴면상태를 타파하고저 새로이 작성된 경제부흥 五개년계획안」 (二월四일부)이라고 하면 이 표의 량년(一九四七년도 및 一九四八년도) 생산실적숫자는 「종전의 〇・八%밖에」 안되는 「생산능률」을 은폐하기 위하여 과장 날조한 허위숫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두가지 추단(推斷)중의 어느 것이 옳은 것이든간에 어쨌든 남조선의 공업생산이 점점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광업부문에 있어서도 광산물 생산량은 특수광물을 제외하고는 점점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련합신문」 四월二十일에 게재된 남조선광물 생산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품명	단위	一九四八년一・四분기생산량	一九四九년一・四분기생산량	해방전최대생산능력에대한%
석탄	(톤)	一六〇、九三一	一二八、二二一	一七%(註)
흑연	(톤)	四、〇四〇	八、五〇九	一〇三%
중석	(톤)	二六七	三〇〇	四七%
금	(그람)	五六、四四四	一二、五五二	一・五%
은	(그람)	五〇八、八二九	一四一、七四四	—
동	(톤)	二五	四	一・九%

(註) 이%는 식산은행 조사월보 一九四八년도 제三권 제二호 자료에 의하여 필자가 계산한것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석탄、금、은、동등 광물은 작년에 비하여 그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전 생산량에 비하여서는 문제도 되지않으리만치 미미한 것이다。

그 반면에 흑연 중석과 같은 군수품원료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광물은 작년에 비하여 각각 증산되었으며 특히 흑연은 작년에 비하여 二배이상 증산되었을뿐만아니라 해방전 최고생산량을 三%나 초과 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것이며(소위 「한일통상협정」에 의하면 금년 一년간의 대일수출량은 흑연이 백二十二만七천딸라 중석이 七十五만딸라로 되어 있다。 —四월十三일부 「련합신문」) 우리들의 원쑤일본제국주의를 재무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필요한 생산부문만이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반면에 그 외의 생산부문은 비참히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수산업에 있어서도 생산물의 감소는 현저하다。 一九四八년도 생산고를 一九四六년에 비해보면 다음과 같다。(四월二十일 「련합신문」)

품명	一九四六년	一九四八년
어류(魚類)	二三六、七四九톤	二〇五、二六三톤
조개류(貝類)	二一、三一八	六、九四〇
해채류(海菜類)	二四、五四一	七、八九一
이상어획물(漁獲物)합계	二八二、六〇八	二二〇、〇九四

품명	一九四六년	一九四八년
건제품(乾製品)	三七、七七〇톤	八、三九二톤
염제품(鹽製品)	五四、八六〇	五、三五二
통조림	一五、四一八	五、三一九
기타	一八、二二六	四、二〇一
이상제조품합계	一二六、二七四	二三、二五七

즉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一九四八년은 어획고에 있어서 七七%로 감소되었고 제조품에 있어서는 실로 一八%로 격감하였다。

조선의 곡창이요、또 해방전에는 일본으로 년에 천만석、북조선으로 년二—三백만석을 보내던 남조선의 농업생산은 어떠한가? 미국경제협조처(E·C·A)「한국국장」 뻰즈「박사」는 말하기를 「농업은 한국경제의 기본이며……그러므로 一九四五년九월부터 一九四八년八월까지 남한을 미군정이 통치한 기간중 동군정은 농업의 가장 긴박한 제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동문제중에는 농사생산의 증대、농민지위의 향상 및 생산자 비생산자를 막로한 전한국인에 내하여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는것등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였다。(금년四월四일「국련신위원단」제一분과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 —四월十二일부「련합신문」)

이와같은 미군정의「노력」의 결과로 남조선의 파종면적은 一九四七년에 七一%로 감소되었으며 (一九三五—一九三九년 평균을 一〇〇으로 하여) 생산고는 七〇% 이하로 저락되었으며 하곡생산고는(一九四二—一九四四년 평균을 一〇〇으로하여) 一九四七년은 四二·八%로 격감한 것이다。

뻰즈「박사」는 계속하여 말하기를「한국의 불량한 토양에서 생산을 증가하는 관건(關鍵)은 농장에서 생산한 비료 또는 금비를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그렇기때문에「미군정은 一九四六년 一월一일부터 一九四七년六월三十일까지 十五만톤의 비료를 구입하여 남한에 공급하였으며 一九四七년 七월一일부터 一九四八년七월三十일까지의 분으로 四十만톤을 수입할 조치를 취하였다」(동상)고 하였다。

소위「원조물자」중에서 비료와 식량이 가장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미군정이「농업의 가장 긴박한 재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 이같이 다량으로「원조」하여준 비

료와 식량은 어떠한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선 비료를 보면 一九四八년十二월一일부터 一九四九년二월二十一일간에 수입된 비료 二억四천六백만폰드중 과린산석회가 一억三천八백만폰드로 그 五六%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三월四일부터 二十三일간에 수입할 예정 十여만톤의 비료도 그 대부분이 과린산석회이며 또 一九五〇년도 수입예정인 七三만三천五백여톤도 그 태반이 그것이라고 한다。(「노력자」三월二十五일부) 그런데 과린산석회는 조선의 토질에 전혀 맞지않는것이며 이것을 계속사용하면 토지는 변질하여 황무지로 변한다고 한다。그렇기때문에 농민들은 이것을 배격하고 있으며 소위 량곡매입법에 의한 미곡매상보상물자로 배부된 八만톤의 비료는 농민들의 거부로 배급소에 산적(一월二十九일부『서울신문』)되어있다고 한다。그와 반대로 가장 중요하고 농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질소비료는 극소부분에 지나지않는 것이다。이것은 조선의 농산물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수시키는 것이며 미국의 잉여물자를 처분하기 위한 강매(强賣)인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다음 식량수입을 보면 一九四六년五월부터 一九四八년말까지의 사이에 백四만六천九백五十톤이 수입되었는바 그 가격은 배급가격으로도 二백수十억원(一九四六년五월부터 一九四八년七월까지의 분만도 一七〇억원—一九四八년八월五일부「조선중앙」)의 거액에 달한다。이 수입식량중에서 재一위를 차지하는 것이 썩은 밀가루이며 제二위가 설탕이며 그외에 강낭가루、안남미、통조림、우유가루、캔듸등이다。이와같은『식량』은 조선사람은 먹지않고도 살수있을뿐만 아니라 이와같은「식량」을 수입하지 않고라도 식량은 충분한 것이다。소위「국회의원」인 조한영이 말한바와 같이 남조선의 인구를 二천만명으로 보고 一인당 소비량을 三홉三작으로 잡더라도 또 양주 기타 특수용미를 가산하더라도 년 백二十一만六천석이 남는다는 것이다。이와같이 남조선의 식량은 절대로 부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조선사람이 좋아하지않을뿐만 아니라 도리어 수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이와같은「식량」을 강제 수입하는 리유는 어디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전시중 저장하였던 미국의 잉여식량을 처분하자는 것이요、둘째는 조선에서 산출되는 좋은 미곡을 일본으로 가져다가 재무장에 분망한

일본의 식량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一九四八년에 八백만석을 일본으로 가져갔고 또 「한일통상협정」에 의한 대일수출총액 二천九백二十九만四천딸라중 그의 五五%에 해당하는 一천六백만딸라가 미곡인 것을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이다. 오늘날 「량곡 매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구실로 소위 「중점배급」이라하여 배급대상을 七○%나 축소시킨것은 남조선의 식량이 부족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농민들로부터 강탈한 「수집미」를 인민들에게 배급하지않고 그것을 일본으로 수출하자는 것이다.

이와같이 매국적 식량정책을 쓰면서 미제국주의자들과 매국노 리승만도당들은 식량을 증산하기 위한 대책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를 토지개량사업에 들어보더라도 해방직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이미 四、五할의 토지개량사업을 진행한 것이 약十二만정보 있었는데 미군정은 그 대부분을 중지하고 그중 불과 一만정보밖에 완성하지않았으며 (一九四八년六월二十일부 「조선중앙일보」) 오늘날 리승만괴뢰정부도 또한 아무 대책도 세우지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남조선의 농토는 황폐하고 농산물은 점점 감수되고 있는 것이다. 「농림장관」리종현도 「가는 곳마다 나역 눈에 띄운것은 벌거숭이 산(山)과 황폐화한 농지이다」라고 이 현실을 인정하지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四월十六일—二十일간 호남각지를 시찰한 후의 담화—四월二十七일부 「합동통신」).

오늘날 남조선농민들은 농지의 황폐, 략탈적 강제공출등으로 극도로 피폐하고 있으며 그렇기때문에 망국적 식량정책을 강행하는 리승만괴뢰 「정부」를 타도하고 북반부에서와 같은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총궐기하여 투쟁하고 있는것이다.

이에 당황한 매국노들은 농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소위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매국 「국회」에서 장황하게 「토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법이 아니라 지주들이 강제매도하다가 처분못한 잔여토지처분법(殘餘土地處分法)이요, 농민의 립장에서 관찰한다면 三○할의 고률보상액(補償額)에다가 제세공과(諸稅公課)까지 부담시켜 과거의 소작농이상으로 농노화시키려는 농노창정법(農奴創定法)이라고 밖에 칭호할수 없다. 이러한 반동적이며 비민주적인 초안을 중심으로 토의한다는 것은 민중을 기만하는 것」 (四월六일부 「련합신문」)이라고 소위 「국회의원」 김병회까지도 말하지 않을수 없으리만치 극 반동적 기만적 「법안」인 것이다.

× × ×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오늘날 남조선의 모든

산업과 농촌경리는 파괴되고 생산은 나날이 감소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통화는 팽창되고 물가는 등귀하여 악성 인플레는 나날이 조장되고 있으며 생활비는 폭등하는 반면에 실질적 로동임금은 저락되어 인민들의 생활은 파멸의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우선 통화면을 보면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통화정책에 있어서 인플레를 조장함으로써 인민수탈을 강화하고 경제파괴를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남조선의 불환지폐(不換紙幣)의 발행고는 四월十四일현재 三七三억八천七백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 자들은 패망직전에 있어서 조선은행권을 람발하여 통화를 극도로 팽창시켰다. (一九四五년八월十四일 현재 四十八억三천九백만원—그러나 이것은 전조선에 류통되었고—만주 화북에서도 약간류통—그후의 통화류통고는 남조선에 국한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그후 일제는 패망하자 조선의 경제를 교란 파괴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약 배액을 방출하여 동년九월에는 八四억八천八백만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미군이 진주한 이후에는 이 통화팽창의 추세는 더욱 급격화하였다. 즉 一九四六년八월에는 백억을 돌파하고 동년十二월에는 一七七억一천만원에 달하였다. 一九四七년九월에는 二백억을 초과하여 二백四억四천四백만이 되었으며 그후 불과 二개월간에 백억원이 격증하여 三백억을 돌파하였으며 동년十二월에는 실로 三三三억八천八백만원에 달하였다. 一九四九년에 들어서면서 四백억을 돌파하였으며 동년二월五일에는 四二八억八천四백만원에 달하였다. 이것은 해방직전 전조선 류통고의 실로 八·八배로서 불과 三년동안에 三백八十억원의 격증인 것이다. 그후 다소 축감되어 三백억대로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일시적 기절적 변동에 지나지않는것이다.

이와같이 생산은 저하되고 통화는 팽창되기때문에 악성인플레는 점점격화되어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四월一일부 「평화일보」에 의하면 금년一월현재 물가는 一九三六년에 비하여 八○四배로 되었으며 금년一월九일부 「서울신문」에 의하면 직물(織物)의 소매가격은 一九三六년에 비하여 一、七五○배로 폭등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이에 수반하지 않는다. 전기 「평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교원, 회자원, 관공리, 은행원, 백화점점원등 봉급생활자의 임금은 一九三六년에 비하여 금년一월현재 남자는 一一八배 녀자는 一五八배 량자를 평균하여 一三八배로되었다. (이조사의 기준은 남자는 전문 대학졸업후 三년이

상 근무한자이며 녀자는 고녀졸업후 一년이상 근무한자라 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고급봉급생활자의 실질임금도 一九三六년에 비하여 一七%로 저하된 것이다. 이 실질임금도 해마다 더욱저하되고 있는 것이니 一九四六년一월에는 三一%, 一九四七년一월에는 二七·四%, 一九四八년一월에는 二一·八%이던것이다. (「민성」一九四八년 제五호 제三〇페지)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이 이하로 떨어졌을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나마의 임금이라도 받는 것은 직장에서 쫓겨나지않은자에 한한 것이다. 이 저렴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실업자의 수는 취업로동자의 수배에 달하는 것이다. 四월九일부「조선중앙일보」에 의하면 당국이 조사한 실업자만도 二〇〇만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서울시장」윤보선은 서울인구의 三분의二에 해당하는 九十二만二천명이 세궁민이라고 하였다. (四월八일부「련합신문」) 二월三일부「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경제적궁핍으로 인하여 민생(民生)이 날로 곤난해감에 따라 영양부족으로」「서울시내 중 소학교 학생의 폐결핵환자가 六五%」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인민들의 경제적 생활이 도탄에 빠지고 극도로 피폐하여 감과 아울러 미제국주의자와 리승만 매국도당들의 인민들과 애국인사들에 대한 학살 테로 정책은 날이갈수록 포악화하고 있다. 「지금 남반부에서는 나날이 수십 수백의 인민들이 반동파들의 총칼에 쓰러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만도 도내 四백부락중 二백九十五부락이 전소되고 一만三천二백五十五호가 소실되었다고 하며 사상자가 수백명에 달한다」고 한다. (三월三十일「서울신문」) 그리고 三월한달동안에 전남한도에서 경찰에게만 학살당한 인민이 六〇七명에 달한다고 경찰자신이 발표하고 있다. (四월七일「자유신문」) 四월十二일「국회」에서「국회의원」리문원까지도「지방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입이 있어도 말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수 없는 기막힌 사정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하며 탄압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문제가 된것이다」라고 말하리만치 인민에 대한 탄압과 학살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 × ×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오늘날 남반부의 모든 산업은 파괴되고 생산은 극도로 위축되고 물가는 등귀하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저락되어 인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남반부에서 이와같은 비참한 상태를 자아내고 있는 원인은

어디있으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두말할것도없이 미제국주의군대가 남반부에 계속주둔하고 미독점자본가들이 남조선분할예속화정책을 강행하고 있기때문이며 리승만망국도당들이 정권을 잡고 매국정책을 실시하고 있기때문이다.

첫째로 미제국주의자들은 소위「원조」라는 간판밑에「한미경제원조협정」이라는 침략협정을 괴뢰「정부」와 체결하고 남반부를 그들의 상품시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협정에 의하면 一九四九년七월부터 一九五〇년六월까지의「원조」액수는 一억六천三十七만딸라로 되어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계 및 그 부속품은 七백九十二만딸라로 전액의 五%에 불과하고 썩은 밀가루, 설탕, 강냉이, 캔듸등 소위 식료품, 조선토질에는 맞지도 않는 과린산석회를 주로하는 비료, 피복류, 화장품등 소모품과 사치품이 전수입액의 八八%를 점하는 一억三천九백二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또 괴뢰「정부」「상공부」에서는 미국상전의 지령에 의하여 一九四九년도 수출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수출은 六〇여억원이고 수입은 그 七배인 四二〇여억원이며「이 숫자중 四二〇여억원은 이·씨·에이에 치중한것」이라고한다 (一월十八일부「자유신문」). 이「계획」에 의하여 이·씨·에이를 통하여 들어오는「미국원조물자」어는 대체 얼마나 되는가? 一월十九일부「서울신문」보도하는바에 의하면「미원조물자는 월평균 二四만톤」이다. 「이 화물은 철도화차로 八천대, 트럭으로는 八만이란 적재량(積載量)을 헤아릴수 있다」고한다. 즉 월평균 화차八천대의 적재량이 수입되니 一일 평균二七〇대의 화차가 필요하며 이것을 운반하기 위하여서는 매일 二十二대 내지 二十七대의 기관차가「미국원조물자」운반전용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또 월평균 二四만톤이니 一일평균八천톤이다. 남조선철도의 一일평균화물수송톤수는 一九四六년四월—一九四七년三월의 一년간의 一일평균이 八、三四三톤(조선경제년보 一九四八년판 三—一六一페지)이라는것을 고려한다면 一九四九년도는「미국원조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거의 전철도수송력이 이에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와같이 물밀듯 밀려들어오는「원조물자」는 그 가격이 비싸며 질(質)이 극히 렬악한 것이다. 「원조물자」수입에 있어서는 一딸라를 四五〇원으로 환산하고 있는데「이 수입물자중에는 四五〇대 一의 비률로 승(乘)한 원화(圓貨)로 구매하자면 국내자유시장가격보다 월등의 고가로되어있는 원조물자가 허다한 관계로 배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에 있다고 四월八일부 「련합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역시 동신문에 게재된 가격표에 의하여 쌀의 가격을 상기비률로 계산하여 보면 수입쌀 一톤에 十二만六천원(종전의 수입가격의 三、四배)으로 결국 대두一두에 二천원이상이 되며 여기에 운임、보관、수수료등 一〇%를 가산하면 二천二백원이상이 된다。

또 四월十四일 「조선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모 대행기관(代行機關)이 「씨·에이」물자중 수종(數種)은 이땅 생산품보다 질이 저조(低粗)하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상품의 반환을 「상공부」에 건의하였다 한다。이에 대하여 당시 「상공장관」임영신은 「얻어먹는 사람이 쌀법찾고 보리밥찾고하기는 곤난하니 이번만은 그대로 받아두기로 하자」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미제국주의자들은 다 못쓰게된 전시괴잉물자를 고가로 남조선에 강제로 떠맡기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매국노들은 상전이 보내주는 것이니 고맙게 받아야된다고 설교하고 있다。

이렇듯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반부를 단지 상품시장화할뿐만 아니라 아무데도 팔아먹을 수없는 쓰지못하게된 상품을 처리하는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날 남조선의 시장은 전체 미국상품으로 꽉 차있는 것이다。

둘째로 남반부는 미제국주의의 원료공급지로 화하고 있다。즉 귀중한 광산물인 흑연、중석、운모、활석등은 전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강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석은 一九四七년 생산량이 一、一三七톤인데 동년에 그 전부를 미국으로 가져갔으며 흑연은 토상(土狀)、린상(鱗狀)합하여 一九四六—一九四七량년동안에 四、三九七톤을 생산하였는데 동년간에 미국이 가져간 것은 재고품까지 합하여 一八、三五六톤이다。(「조선경제년보」一九四八년판에서) 상기한 바와같이 모든 생산부문이 전부파괴되고 생산량이 격감하는데 오로지 흑연과 중석만이 해마다 증산되는 것은 이것이 군수품원료로써 미국이 요구하기때문이다。

또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를 재무장시키는데 남조선을 리용하고 있는 것이다。즉 그들은 리승만괴뢰 「정부」로 하여금 「한일통상협정」을 체결케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쌀、흑연、중석등 식량、군수품 원료를 일본으로 보낼것을 지시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수출 二九、二九四천딸라、수입 四八、六八七천딸라라는 식민지적인 「통상협정」으로 책、남반부경제를 또다시 일본에 예속시키려하고

있으며 이렇게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수탈을 일층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남반부를 그들의 자본투하시장화하고 있는 것이다。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진주하자마자 「적산불화법령」으로써 운영기업소의 대부분을 미주둔군지도자들이 그 실권을 장악한 것이다。일례를 들어보면 미군정장관이었던 뗀은 경전(京電)의 과반수의 주권(株券)을 가지고 있으며 쏘미공위 미국수석대표 뿌라운과 소위 「미국대사」 무쵸는 녕월、상등 중석채굴광업소에 거액의 투자를 하였으며 미주둔군사령관의 경제고문이요、쏘미공위미국대표였으며 현재 미국경제협조처 「한국국장」인 뻔즈는 전일본인소유토지를 소유하고 「신한공사」의 중요주주(株主)였던 것이다。이외에도 중요자원과 기업소들은 미독점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一월十일부 「노력자」)

오늘날 미제국주의자들은 소위 「한미경제원조협정」에 의하여 사적투자(私的投資)와 무역상경영권을 가지고(동협정 제二조 바항) 마음대로 투자할수 있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정부소유의 생산시설 급 재산을 운영、우는 처리」(제二조 아항)케하여(즉 「적산불하」) 남반부산업의 九七%를 점하는 「적산」을 전부 강탈할것을 기도하고 있다。

그들은 벌써 스탄다드、라이징쎈、텍사스가 통합한 「대한석유회사」이·씨·에이가 출자(出資)한 자본금 백억원의 「대한석탄회사」 또는 「대한전력회사」 등을 설립하여 남반부의 중요산업을 그들의 수중에 장악하고 있는것이다。

미국경제협조처장 호프만이 「남한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은 장래의 가능성은 있다할찌라도 충분히 자족하기에 이르기까지 된다는것은 희망할수 없다」(一월十四일부 「서울신문」)라고 그들의 의도를 이미 토로한바와같이 남반부의 경제권을 미제국주의자들이 장악하고 「남한의 경제적 자립」과 「자족」을 영원히 불가능하게하자는 것이 그들의 계획인것이다。

오늘날 남반부의 경제가 그같이 파탄되고 인민들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상술한바와같은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침략계획의 결과인 것이다。그렇기때문에 남반부경제를 재전부흥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제국주의군대를 몰아내고 그들의 가장 충실한 주구인 리승만매국도당들의 괴뢰 「정부」를 타도해야 되는 것이다。남반부가 지금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은 오로저 미제국주의 군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남반부인민들은 十월인민항쟁、三·二二총파업、二·七구국투쟁등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왔으며 四·三 제주도인민항쟁、五·十단선 반대투쟁으로써 망

국단선을 파탄시킨후 오늘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높이받들고「미군 즉시 철퇴」「괴뢰「정부」타도」를 부르짖으며 남반부 방방곡곡에서 영용하게 유격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니라 우리 공화국정부의 올바른 지도와 위대한 쏘련의 우의적원조로써 모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북반부인민들은 조국통일의 튼튼한 기지로되어있는 북반부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二개년인민경제계획초과완수에 애국적 로력을 경주하고 있다。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 계획을 一〇二·九%로 초과완수한 북반부인민들은 룡성기계제작소의 一〇一·九%、흥남비료공장의 一〇一%를 비롯하여 많은 공장 광산 기업소들에서 금년도 제一·四분기 계획을 초과완수하고 있는것이다。 이리하여 조국창건의 훌륭한 기수들로 된 북반부의 근로인민들은 북반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서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나아가서 장차 남반부의 경제도 재건부흥시키며 남반부인민들의 생활도 보장할것을 목표로 애국적 열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북반부인민들의 장엄한 건설투쟁의 성과는 조국의 통일완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어떤 제국주의국가도 우리공화국을 절대로 침략할수 없게하는 것이며 조선인민의 필승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방자이며 진정한 원조자인 위대한 쏘련은 우리의 요청을 응낙하여 자기군대를 철퇴시킨 후에도 조선의 진정한 독립과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원조하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조쏘량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은 우리공화국의 경제 및 문화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며 조국의 통일과 발전에 거대한 힘이되는것이며 국토완정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의 승리를 약속하여주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쏘련과의 친선은 조선의 자주독립의 불가결의 조건이며 우리들의 장래발전과 영원한 번영의 절대적인 담보인것이다。

북반부인민들의 힘찬 건설투쟁과 남반인민들의 영웅적 구국투쟁은 쏘련을 위시한 전세계 자유애호인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정책이라도 이를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승리는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 앞에서는 어떠한 침략세력이라도 반드시 패배하고야 만다는 것을 잘·보여주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전조선인민들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높이들고 우리민족의 영웅 김일성수상과 공화국정부주위에 더욱 굳게 집결하여 미군의 철퇴와 조국의 통일적 완전자주독립을 하루속히 쟁취하는 길로 용감히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五월五일)

참고자료

과학에 있어서 쓰베트의 우선권에 관하여

아·즈보리낀,

과학사는 세계문화사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세계문화는 민족문화밖에서는 존재하지않는다。 그것은 개개민족들의 문화의 성과로써 형성된다。

쓰딸린동지는 말하기를 「쓰베트사람들은 어느민족을 물론하고 다 한가지로 크나 적으나 할것없이 다른민족에게는 없는 본질적 특징 또는 자기의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인정한다。 이 특징들은 각민족이 세계문화의 공동적 보고(寶庫)를 보충하며 또는 풍부히 하는데 공헌하고있다」고 하였다。

어떠한 추상적인 비(非)민족적세계문화가 없는것과같이 비민족적 세계과학도 없는것이다。 세계과학이란것은 각종민족에 속하는 학자들의 과학적성과의 총화이다。 개개민족의 역활을 무시하고서 세계과학일반의 발전을 운운한다는것은 이데올로기현상연구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태도의 기본원칙을 위반함을 의미하며 또 맑쓰—레닌주의와는 관계없는 그리고 그것에 적대되는 립장 즉 려사적 관념론과 부르죠아적 코스모포리탄니즘의 립장에 전락함을 의미한다。

사회적존재가 사회적의식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려사적유물론의 기본원칙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형태의 하나인 과학에도 완전히 결부된다。 과학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것은 그나라에 존재하는 사회적 조건이다。 이때문에 각개민족의 려사적 발전 즉 그나라의 사회제도등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고찰없이는 과학발전행정을 리해할수없다。 과학발전을 연구할때에 민족적요소를 무시하는것은 과학을 때양하고있는 그 사회적 지반으로부터 그것을 분리시키는것을 의미한다。

추상적인 초(超)민족적세계과학에 관한 고찰은 유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특히 영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대상으로 택한 그 민족들의 과학적 공헌을 저하 또는 부정하기 위하여 반동세력에 의하여 리용되고있다。 우선 이러한 고찰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의 지주이며 제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강력한 옹호자인만큼 쓰베트동맹을 반대하는데 그 방향을 돌리고 있는것이다。

쓰베트사람들은 각종과학분야에 있어서의 쓰련의 우선권(優先權)을 정당하게 고수하면서 세계문화와 과학의 발전에 있어 쓰련의 역활을 경시하려는 온갖 기도를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나서고있다。 려사적인 진리를 부흥시키면서 쓰베트사람들은 쓰베트학자들의 영예와 공적을 경시하며 세계과학에의 쓰련과학의 공헌을 의곡 또는 묵살하려고 시도하는 해외의 반동학자들、부르죠아국가활동가들 및 기타 자본주의대변가들을 폭로하고있다。 쓰베트사람들은 부르죠아책략가(策略家)들의 이러한 무익한 노력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것이 바로 공산주의를 성공리에 건설하고있는 인민에 대한 계급적 증오라는것을 정당하게 보고있다。

쓰련학자들의 공적을 경시하려는 기도는 쓰련의 과거속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는것이다。「짜리로씨야에서 확고한 근거를 차지하고 있던 외국자본가들은 로씨야인민이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열등하다는 관념을 로씨야에서 백방으로 지지하고 부식하였다。 인민으로부터 유리되고 그와는 관계가 없는 짜리로씨야의 지배계급들은 로씨야인민의 창조력을 믿지않았으며 로씨야가 자체의 힘으로써 락후로부터 벗어나려는 가능성을 허용하지않았다。 여기로부터 로씨야사람들은 항상 서구라파 「선생님들」의 「생도」의 역활을 놀아야 된다는 옳지않은 관념이 발생한것이였다」라고 그·므·말렌꼬브동지는 말하였다。

혁명전로씨야에있어 학자들의 형편은 아주 곤난하였다。 전제—농노제적 제관계와 국가의 일반적인 경제적 락후성은 로씨야의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큰 곤난을 조성(造成)하였다。 귀족계급과 부르죠아지는 외국자본을 로씨야에 침입시키기위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조국의 리익을 팔아먹고 모든 외국풍(外國風)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문화적 창조에대한 로씨야인민의 능력은 적다고하는 추악한 「리론」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지지가 없는것、다수의 발명과 발견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없는것、실험시설들이 빈약한것、자금이 적은것、또는 자금이 아주 결핍한것등은 로씨야학자들의 위대한 창조력을 꺾지못하였으며 로씨야인민이 세계문화의 보고(寶庫)에 가장 고귀한 공헌을 기여하는것을 막지 못하였다。 세계문화와 과학의 발전도상의 중요한 표지로 되어있는 다수 발견과 발명들 가운데서 론할 여지가없는 우선권(優先權)은 로씨야과학활동가들에 속하는것이다。

독창성(獨創性)、대담성、억제할수 없는 혁신적

(革新的) 정신들은 오래전부터 과학과 문화의 무대위에서의 로씨야인민들의 로작의 특성이였다。

과학사는 과거 로씨야사상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달성들의 전모(全貌)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쏘련의 저명한 인사들의 명단에 더욱 새롭고 새로운 이름들을 첨부하여준다。

十八세기의 로씨야의 천재적인 박학자(博學者) 므·브·로모노소브의 유산을 연구하면서 벨린쓰끼는 로씨야인민의 위대한 창조적능력을 감탄으로써 강조하였다。 로씨야적 천재력을 그렇게도 완전히 구현한 로모노소브의 강력한 개성(個性)은 세계문화력사상에 있어 가장 찬란한것의 하나이다。 위대한 물리학자이며 화학자인 로모노소브는 물질(질량—質量)불멸 법칙을 방식화하고 실험으로써 증명하였으며 또한 물질과 에네르기불멸의 총법칙 즉 오늘날 자연과학의 초석의 하나로 되어있는 총법칙의 선포자이었다。 로모노소브는 서부(西部)의 일부학자들이 十九세기초엽에 있어서도 아직 지지하고 있었던 열소론(熱素論)을 반대하고나섰다。 그는 까스(瓦斯)원자론을 성공리에 연구하였다。 그의 로작들은 새과학인 물리화학의 기초로 되었다。 로모노소브는 광학(光學)、전기설(電氣說)、천문학、지리학、지질학등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기여하였다。 그는 야금기술 기술화학의 제문제를 연구하고 기구와 공작기계들을 설계하였다。 그는 또한 력사가、언어학자、시인 및 예술가이였다。 로모노소브는 자기의 창조물로써 수십개부문의 과학과 기술을 풍부히 하였으며 그의 위대한 문화적 공헌은 수세기에 걸쳐 로씨야인민의 무진장의 그리고 다면적인 천부(天賦)의 재능을 증명하여주는것으로 되었다。

로모노소브의 뒤를 따라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일련의 로씨야의 명사(名士)들이 과학력사상에 나타났다。

十八세기말엽과 十九세기초엽의 로씨야의 대물리학자 브·브·뻬뜨로브는 자기의 로작으로써 현재 전기공학의 가장 중요한 방향의 첫기초를 구축하였다。 후에 소위 월타(一七四五—一八二七년)의 이태리 물리학자—역자)의 전호라고 칭한 전호(電弧)의 발견은 그에게 속한다。 뻬뜨로브는 조명과 금속의 용접 및 용해에 전기를 적용할수 있다는것을 증시하였으며 또한 방광(放光)현상(랭광—冷光)을 연구한 첫번 학자이였다。

十九세기三○년대와 四○년대에 있어 로씨야물리학자 에·흐·렌츠의 연구에 의하여 전자기(電磁氣)의 중요한 법칙을 확립하였다。 쥬울과는 관계없이 그는 류체(流体)의 열률(熱率)에 대한 기본법칙을 발견하였다。 결국 렌츠는 유명한 로씨

야물리학 및 기술자 브·스·야꼬비와 함께 전자력기계론의 기초를 축성하였다。 브·스·야꼬비는 그외에도 전기도금(電氣鍍金)을 발견하였다。

十九세기말엽과 二○세기초엽의 탁월한 물리학자 뻬·느·레베제브는 처음으로 광압(光壓)을 실험으로써 증명하였다。 이것으로써 레베제브는 마크스벨의 광전자기론(光電磁氣論)을 실험으로써 론증하였다。 저명한 로씨야 물리학자 아·그·스똘레또브는 광전기(光電氣)현상의 분야에 있어서 일련의 기본법칙들을 발견하였다。 모쓰크바대학의 다른 교수 느·아·우모브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것은 에네르기운동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연구들이다。

위대한 로씨야물리학자 아·스·뽀뽀브는 모든 시대의 과학의 가장 위대한 성과중의 하나인 라디오발명의 영광을 차지하고있다。

지각(地殼)변동、지진에 관한 새로운 과학 즉 자연지진학을 창설한 것은 한림원학사 브·브·골리찐이였다。 브·브·골리찐의 연구를 위시한 로씨야 지진학은 전세계에서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나。

혁명전 로씨야천문학의 력사상에서 프·아·브레지힌—혜성(彗星)천문학의 창시자이며 로씨야의 대천문학자의 한사람—의 이름은 빛나고있다。

로씨야의 수학은 세계과학계에서 현저한 지위를 차지한다。 유명한 로씨야수학자들가운데서 므·브·오스토로그라드쓰끼를 들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는 영국인 그린、스톡스 및 하밀톤과는 관계없이 수학、물리학 및 기계학에대하여 귀중한 기여로되는 여러발견들을 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의 한사람은 천재인 느·이·로바체브쓰끼이다。 병행선(並行線)에 대한 유클리드의 정리(定理)—직선(直線)밖에 있는 일점(一点)을 통하여 이직선에 병행하는 일선(一線)만을 그을수 있다는 정리—를 증명하려는 二천년간의 기도는 이 정리가 대체로 증명될수 없는것이라는 리유에 의하여 성공못하였다는것을 로바체브쓰끼는 처음으로 증시하였다。 로바체브쓰끼는 최초의 비(非)유클리드 기하학(幾何學)을 확립하였다。 다시말하면 그는 병행선에 관한 정리를 거부하고서 「굴절(屈折)」공간(空間) 기하학을 확립하였다。 이것은 수학에 있어서 혁명적인 전변을 의미한 발견이였다。 그는 十九세기와 二十세기에 있어서의 수학과 물리학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방도를 대부분 결정하였다。 로바체브쓰끼의 기하학은 아인슈테인의 상대성원리(相對性原理)에게 수학적기초를 주었다。 금일에 있어서만이 과학은 실제공간기하학이 유클리드의 공간과 다르다는것을

중시할수 있었던 것이다。

로씨야의 다른 천재적인 수학가 쁘・르・체브이쉐브의 로작들은 극히 다양하다。그는 각국학자들의 수세기에 걸친 기도가 수포로 돌아간후 처음으로 산술(算術)의 가장 곤난한 문제 다시말하면 소수(素數)즉 불피제수(不被除數)가 종속하는 합법칙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이 학자의 뛰어난 공적은 자연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수학문제들에 대한 부단한 주의(注意)이다。체브이쉐브의 제자들과 계승자들은(우리는 그중에서 수학가 아・아・말교브 기계학자 아・므・랴쁘노브 및 기타들과같은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볼수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력하고 명예있는 과학학파들의 하나를 구성하였다。가장 위대한 수학적공헌 특히 회전체(回轉体)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의 공헌은 세계에서 최초의 녀성수학가 스・브・교왈레브쓰까야에 속한다。

기계학부문에 있어서는 기관과 기계론에 대한 쁘・르・체브이쉐브의 탁월한 공적을 우선 지적할 필요가있다。특히 큰 의의를 가진것은 역시 이・아・위스네그라드쓰끼에 의한 반사운동(反射運動)의 과학적기초의 창설이다。

항공(航空)에 있어서의 로씨야의 과학기술사상의 역활은 아주 큰 바가있다。항공의 원조(元祖)는 다시말하면 현대 기체력과 항공기론의 창시자는 주지하는바와같이 로씨야학자 느・에・주꼬브쓰끼이었다。

가장 현대적이고 또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부문 즉 반응공학(反應工學)에 대하여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것은 크・에・치올꼬브쓰끼이며 또 가변질량체(可變質量体)의 력학을 강구한 느・아・메첼쓰끼이다。

화학(化學)부문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위대한 드・이・멘젤례예브와 만나게된다。그는 자기의 화학원소주기률(化學元素周期率)를 확립함으로써 자연과학의 기본법칙중의 하나를 발견하였다。화학이 그 발전의 전체시기를 통하여 축적한 방대한 실재자료를 총화한 결과에 천재적인 로씨야화학자는 자기의 원소주기률에서 자연속에 지배하는 합법칙성을 가장 일반적으로 표시하는것의 하나를 주었다。二十세기에 있어서의 물리학과 화학의 그후의 모든 발전은 내핵력(内核力)에 대한 리용도 포함하여 멘젤례예브법칙의 심각한 과학적 의의를 가일층 구명하는것과 관련되어 있는것이다。

다른 위대한 로씨야화학자 아・므・브뜰레로브는 현대유기화학의 창시자이다。브뜰레로브에 의하여 창설된 화학구성론 즉 유기체의 분자내에서의 제(諸)원자의 내적배렬(配列)과 련결의 합법칙성을

구명한 화학구성론은 화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지로되어있다。유기화학의 제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활을 놀고있는것은 다름 로씨야연구자 느・느・지닌이다。

세계화학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현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은 느・느・베케또브이다。즉 고압(高壓)화학부문의 개척자이며 현대 알미늄 열량단위(熱量單位)의 창시자이며 과학으로서의 물리화학의 연구부문에 있어서 로모노소브사업의 영광스러운 계승자이다。 베케또브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즉 오스트왈드이전에 하리꼬브대학에서 물리화학강좌를 개강하였다。석유화학에 대한 첫 연구자의 한사람은 즉 석유를 구성하는 탄화수소까스(炭化水素瓦斯)의 구성、구조및 성질을 연구한 사람은 저명한 화학자 브・브・말꼬브니꼬브이었다。

로씨야학자 드・아・라치노브는 압력을 가하여 또는 압력없이 물을 전기분해(電氣分解)함으로써 전기분해수소(水素)를 발생시키는데 대한 특허권(特許權)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획득한 사람이다。므・이・꼬노왈로브는 파라휜(석유의 탄화수소까스의 일형―一型―)과 초산류(硝酸類)즉 초화(硝化)하는 혼합물과의 호상작용의 반응(反應)을 처음으로 연구하였다。이에있어 그는 강력한 폭발물―니트로파라휜을 발견하였다。이밖에도 니트로파라휜은 레코드판(板)과같은 조형물(造形物)을 용해할수있는 원료이다。

다른 로씨야학자 므・그・꾸체로브는 금속을 용접 또는 절단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아세찌린까스로부터 극히 중요하고 오늘날 기술부문에서 보급된 화학물―초산(醋酸)제조용으로 필요한 초산알데히드를 처음으로 제조하였다。

금속학 즉 현대야금학의 기초로 되어있는 특수과학의 발생은 위대한 로씨야학자 드・크・체르노브와 관련되어있다。로씨야사람들의 연구는 역시 알미늄、동(銅)금 등등의 야금에 대하여 창시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지질―광물학의 발전에 있어서 로씨야학자들의 로작들은 현저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로씨야지질학의 원조(元祖)인 아・쁘・까르뻰쓰끼、지질학자 프・느・첼느이쇼브、위대한 결정학자(結晶學者)에・스・표도로브 등은 지구와 광물에 관한 과학의 가장 탁월한 창조자에 속한다。

진화론적(進化論的)고생물학(古生物學)이란 새부문(이부문의 자료들은 지질학이나 생명과학(生命科學)에 대하여 중요하다)을 창설한것은 브・오・교왈레브쓰끼이다。

세계과학에 있어서 다수 로씨야생물학자들의 공적과 의의는 위대하다。아・오・교왈레브쓰끼와 이

이•메츠니끄브는 진화론적 비교태생학(배아—胚芽—의 발전에 관한 학설)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자기의 연구와 결론으로써 그들은 동물계의 일치에 관한 관념을 종국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다윈의 학설에 대하여 새로운 론증을 주었다。 또한 메츠니끄브적 백혈구작용론(—白血球作用論—유기체의 보호요소에 관한 학설)은 탁월한 과학적 성과이었다。

위대한 로씨야 생물학자 끄•아•찌미라제브는—진화론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의 한사람— 성공적으로 다윈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의 로작들은 광력적분성(光力的分成)과정(태양광선의 작용하에서 식물은 공중의 탄산을 흡수한다)의 기본특징을 구명하였다。 이것으로써 자연과학일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해결되었다。 •

저명한 생물학자이며 혁신자는 이•므•세체노브이었다。 신경계통에 대한 그의 연구、두뇌의 반사운동에 관한 그의 학설은 앞으로의 생물학의 발전을 예견하였으며 또 그것은 이•브•빠블로브에 의하여 훌륭히 계속되었다。 빠블로브의 활동은 대부분 쏘베트시대에 전개된 것이었다。

로과성(濾過性)병독농(病毒膿)을 발견한 드•이•이와노브쓰끼、유명한 세균학자(細菌學者) 스•느•비노그라드쓰끼、브•르•오멜란쓰끼 및 기타의 이름은 생물학년대기에 기록되어있다。

파학적토양학(土壤學)의 창시자 브•브•도꾸차예브의 호작 또는 위대한 十월혁명후에 그 대부분이 실현된 위대한 학자 이•브•미츄린파 브•떼•윌얌쓰의 로작들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론술될 것이다。

의학사에서 로씨야사람들은 영예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로씨야의 의사이며 학자이며 또 우선 현대 의학창시자의 한사람인 스•떼•보뜨낀、천재적인 외과의이며 군사외과의학 창시자인 느•이•삐로꼬브、신경병리학자이며 정신병의사인 브•므•배호떼레브 및 기타 다수 학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로작없이는 현대의학을 생각할수없을 만한 그러한 중요한 성과들이 달성되었다。

로씨야프로레타리아트가 력사적 무대에 진출하기 전 시기의 세계관과 사회정치사상에 대한 문제에 언급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벨린쓰끼、체르니쉡쓰끼、도브로류보브의 위대한 이름을 자랑스럽게 들수있다。 이 영광스러운 로씨야의 혁명가이며 민주주의자들의 철학적 사회—정치적 및 사회학적 전해들은 서방(西方)에서 맑쓰전 사회사상이 준 모든것을 훨씬 초월하며 또 맑쓰전 철학과 사회학리론의 발전에 있어서 높은 계단을 표시하고 있는것이다。 그들의 저작들은 로씨야문학、예술 및 파학의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로

씨야에서 사회과학의 가장 유명한 한대표는 로씨야에서의 맑쓰주의의 개척자의 한사람인 그•브•쁠레하노브 이었다。

로씨야는 레닌주의 즉 로씨야 및 세계의 문화의 최고성과의 조국으로 되었다。 사회생활법칙에 관한 맑쓰주의과학은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발전되었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제고되었다。 세계혁명운동의 중심지는 十九세기말부터 로씨야로 이전하였다。 또한 로씨야는 자본주의적 노예상태로부터 해방하는길을 근로인류에게 지시하여주는 혁명적 과학의 중심지로 되었다。

× × ×

위대한 十월사회주의혁명은 로씨야 력사상에 새로운 한페지를 열어놓았다。 과학은 쏘련에서 한없이 발전할 가능성을 받았다。 쏘베트시기를 과학 및 기술발전의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라고 확언할수있을 만큼 쏘베트정권시기에는 새로운 리론들이 제기되었으며 수많은 훌륭한 실험들이 실현되었으며 과학—기술상의 큰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실제생활과 인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발명들이 성공하였다。

쏘베트정권의 첫해부터 레닌과 쓰딸린 및 당은 과학발전에 큰 주의를 돌렸다。 一九一八년四월에 브•이•레닌은 「과학—기술사업계획개요」를 작성하였다。 이 계획은 해방된 인민의 리익을 위하는 과학적 연구의 넓은 전망의 목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 계획은 로씨야 공업의 합리적배치、공업운수 및 농촌경리의 전기화、전기 에네르기용으로 품질이 낮은 연료의 리용、수력과 풍력의 리용、원료와 에네르기의 종합적리용등등에 관한 문제들의 연구를 예견하고 있다。

그후 최초에는 로씨야전기화국가위원회(고엘로)의 계획에서、다음에는 쓰딸린적五개년계획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과학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사상의 최신의 성과들을 리용하는것이었다。

혁명의 첫해부터 시작된것은 과학의 조직적 강화、과학의 물질적토대의 대규모적인 장성등이었다。 一九一八년에 광학(光學)및 렌트겐 국가연구소가 설치되었다。 얼마안가서 레닌그라드 물리—기술연구소、르•야•깔뽀브명칭 물리—화학연구소、라지예브연구소、모쓰크바 물리학연구소、중앙 기체액체력학(氣体液体力學)연구소、전동맹 열공학(熱工學)연구소、응용광물학연구소、비료연구소 및 기타 많은 연구소들이 발생하였다。 이 모든 연구소들은 차차 좋은 설비를 갖추게 되어 부단히 과학시설들을 확장시키며 고도로 준비된 전문가들을 다수 가지게 되었다。

현재 쏘련에는 쏘련과학한림원이 존재하여 수많은 과학연구소, 지부, 실험소 및 박물관, 기상대(氣象台) 분실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수의 과학협회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수의 주(州) 및 민족공화국에 지부와 실험장들을 가지고있다. 十개의 동맹공화국에서 과학한림원이 수립되었다. 그중에는 우크라이나, 백로시야 및 그루지야, 과학한림원과 같은 큰 과학협회들도 들어있다. 종합적한림원외에 각분과한림원 즉 농촌경리과학한림원, 의학한림원등등이 사업하고있다. 대학과 고등학교들의 과학연구소들도 큰 과학사업을 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성, 처(處) 및 대기업소들은 수백개의 연구소, 수천의 실험소 및 실습지들을 가지고있다. 이 수많은 기관들에서는 성과있는 과학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큰 리론적 및 실제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 쏘베트국가는 과학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자금을 지출하고 있다.

쏘련에서 과학 및 기술부문의 활동가들은 전인민적 존경을 받고있다. 가장 우수한 활동가들은 전인민적 및 국가적 최고의 인정과 쓰딸린상과 사회주의로동의 영웅이란 칭호를 받게된다.

혁명전 로씨야에서 수효적으로 극히 적은 층을 대표하던 과학과 기술자들은 오늘날 과학과 기술일꾼들의 일대(一大) 부대를 형성하여 공산주의를 위한 위대한 전투속에서 인민의 첫대렬에 서서 진군하고있다. 현재 쏘련에서는 박사와 교수는 一만명이상이나되며 학사와 조교수는 약 三만명이나된다. 十월혁명전의 자격있는 학자의 수는 천명을 넘지 못하였다.

이것과함께 쏘베트시대는 수十만명의 실제일꾼, 쓰따하노브운동로동자, 생산의 혁신자, 선진꼴호즈회원들의 과학및 기술상의 창발성을 발휘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또한 쏘베트과학과 기술의 인민성이 나타나고있는 것이다.

쏘베트과학이라는것은 새 사회제도의 과학이며 그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질적으로 독특한 특징과 특성으로 특징된다.

쏘베트과학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가지 특성은 과학 및 기술상의 대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연구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수많은 전문가들로된 그리고 가장 권위있는 과학 및 기술일꾼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대과학자 집단의 공동적 노력에 의하여 해결된다. 국가의 전기화 우랄—꾸즈네츠 꼼비나트 및 기타 산업종합공장의 건설, 대볼가강과 기타 지역의 수력의 리용, 발동기용 연료 자원의 확대와 그 질의 제고, 석란의 지하까스화, 토지개량, 모쓰크바재건, 지하철도건설, 과학 기술 및 인민경제의 기타 수많은 과업들과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바로

집단적 로력에 의하여 해결되었던 것이다.

과학의 계획화의 가능성자체가 리론적론쟁의 대상으로 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현재 쏘련에서는 과학적연구의 합리적인 계획화와 과학 및 기술간부들의 계획적준비에 의하여 과학상의 총문제의 넓이와 다양성은 과학의 위대한 목적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었다. 국가의 경제적재건 및 기술적재무장의 거대한 계획들을 단기간에 실시할것이라든지 또는 새로운사회주의문화를 창건할데 대한 과업이라든지 모두가 사회주의건설의 리론과 실천의 가장 긴밀한 련결을 쏘베트 과학간부들로부터 요구하였다. 리론과 실천의 련결, 과학상연구의 제성과와 결론들을 가장 급속히 실현시키려는 지향등은 쏘베트과학의 한가지 뛰어나는 특성이다.

쏘련에서는 처음으로 과학과 인민의 통일에 대한 인류의 공상이 실현되었다. 레닌은 사회주의혁명후의 첫시기에 말하기를 『이전에는 온 인류의 지식, 온 인류의 천재가 기술과 문화의 모든 재부(財富)를 일부사람들에 주기위해서만이 그것을 창조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것 즉 교육과 발전을 박탈당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모든 훌륭한 기술, 문화의 모든 성과들은 전인민적 재산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레닌전집 제二二권 二二五페지) 쏘련에서는 과학의 모든 달성과 과학—기술적창조의 모든 성과들이 인민대중의 물질 및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리용되고있다. 쏘베트과학은 진정으로 민주주의적 과학이다. 쓰딸린동지가 가르치는바와같이 선진과학은 『인민으로부터 떨어져있지않으며 인민과 고립하여있지않으며 인민에 복무하려한다』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진하여 열심히 인민에 봉사한다』 쏘베트과학일꾼들은 조국과 인민앞에서 가지는 자기의 고상한 임무를 항상 자각하여가지고 사업하고있는 것이다.

쏘베트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학의 당성이다. 선진쏘베트과학은 볼쉐위끼당의 지도밑에서 레닌—쓰딸린의 투철한 리상을 위하여 투쟁한다.

쏘베트학자들은 자기의 활동으로 사회주의적 제관계의 강화, 공산주의에로의 우리사회의 운동을 촉진시킬것을 지향하고있다. 쏘베트학자들은 자기의 과학상의 활동에 대하여 확실한 지도가 맑쓰—레닌적세계관에 있다고 본다. 가장 선진적이며 오로지 과학적인 세계관 즉 레닌과 쓰딸린의 로작들에서 발전된 변증법적유물론의 원칙들을 의식적으로 적용하는것은 자연발전의 합법칙성을 발견함에 있어서 또는 그것을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 리용함에있어서 가지는 거대한 우월성을 우리과학상에 보장하였으며 또 보장하고있다.

사회과학은 브·이·레닌과 이·브·쓰딸린이 준

가장 위대한 발견들로 풍부히되였다。레닌과 쓰딸린의 로작들은 맑쓰와 엥겔쓰의 리론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이 로작들은 쓰베트인민과 온세계의 진보적력량의 실제의 혁명활동의 길을 선진리론의 탐조등(探照燈)으로 비추어준다。

레닌과 쓰딸린의 사상과 과학적창조물은 쓰배트 사회과학에 대하여 고무적 상징이었으며 또 오늘도 그러하다。쓰베트사회과학의 임무는 력사상에서 보지못한 사회주의건설경험을 일반화하는것이며 력사적 과거를 새로 옳게 평가하는것이며 현대자연과학의 성과들을 리론적으로 해명하는것이며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과 련결된 과학 및 문화상의 가장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참가하는것등이다。

× × ×

쓰딸린동지가 一九四六년二월九일의 자기의 연설에서 제기한과업 즉「우리나라밖에서 달성한 과학의 성과들을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쫓아갈뿐만 아니라 뒤떨어뜨릴것」이라는 과업의 해결이 본질적으로 용이한 리유는 현재에 벌써 쓰베트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다수의 과학적 발견에 있어서 론쟁할 여지없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수학의 일련의 부문에 있어서 쓰베트적 연구는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이렇듯 세계의 대 수학자의 한사람인 쓰베트한림학사 이·므·비노그라도브는 각국의 수학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취급하여온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서 해석기하학적(解析幾何學的)숫자론(數字論)의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사업을 완수하였다。한림학사 비노그라도브는 자기의 로작들로서 해석기하학적숫자론 즉 정수(整數)와 관련된 각종문제들을 현대의 수학적분석의 위력있는 방법들에의하여 해결하여주는 가장중요한 수학부문을 더욱앞으로 추진시키었다。수리론분야에 있어 쓰베트 및 외국학자들의 최신의 모든 연구는 한림학사 비노그라도브의 제로작에 의거하고있는것이다。

기하학상의 제방법으로 소수(素數)의 제합법칙성을 연구하는 부문에있어 큰 성과를 달성한것은 자기의 기하학상의 제방법을 결정(結晶)의 제형태에대한 설명에 적용한 쓰련과학한림원 통신원 브·느·젤로네이이다。쓰련과학한림원 통신원 아·드·알레크산드로브는 고대수학과학의 하나인 기하학의 기본명제들을 발전시키고 볼기물체(突起物体)의 특성에 관련되는 일련의 발견들을 하였다。한림학사 아·느·골모고로브、쓰련과학한림원 통신원 아·야·힌친 및 한림학사 스·느·베르슈쩨인들의 로작은 현대공산론(現代公算論)—수학의 중요한 일부분—에있어서 독창적인 방향을 수립하였다。

로폴로기(도형—圖形—의 질적특성을 연구하는 기

하학의 한부문)에 있어서도 쓰련의 수학은 첫째자리를 차지하고있다。쁘·스·알레크산드로브 및 르·스·뽄트랴긴 교수들의 노력에 의하여 기하학의 이 특수부문의 기초로 되어있는 방법들이 수립되였다。함수(函數)의 분석과 리론을 연구하는 즉 다종다양한 변수(變數)들이 기타의 량(量)레하면 시간 및 그의 근사(近似)표시에 의존하여 변하는것을 연구하는 수학부문에 큰공헌을 한것은 한림학사 스·로·쏘볼레브 및 브·이·쓰미르노브이었다。수학적분석은 여기에있어 온도、음성 전자파(電磁波)등의 전파(傳播)에대한 물리학적 및 공학적제문제를 수리물리학의 미분방정식(微分方程式)에 의하여 기술되는 비교적 적은 기본적합법칙성에 귀착시키는것을 허용한다。

기술에대하여 그만큼 큰 의의를 가지는 공학의 발전에 있어서의 로 야 및 쓰베트과학사상의 역활은 일반이 주지하는바이다。우리는 이미 느·에·주꼬브쓰끼에 대하여 말하였다。기체력학(氣体力學)의 창시자인 이 위대한 학자의 로작들은 혁명후 특히 광범하게 발전을 보았다。

음성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를 가진 비행기、로케트 및 탄환의 운동법칙을 확정하는 고속도기체력학에 관련되는 한림학사 스·아·차쁠로이긴의 로작들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이 유명한 학자는 튼튼한 비행기에대하여 또는 비행기로 량의 의 가장 유리한 형태에대한 리론에 관하여 확정할수없는 운동에대한 리론등에 대하여 가치있는 자업을 수행하였다。세계과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까스(瓦斯)력학분야에서의 한림학사 스·아·흐리스찌아노비츠의 로작들이다。쓰베트학자들은 액체력학 즉 자연과 기계속에서의 액채의 운동법칙에관한 과학、파(波)에대한리론、로과(濾過)에대한 리론등에 중요한공헌을 하였다。

물질의 탄성(彈性)、변형성(變形性)및 저항성(抵抗性)에대한 리론은 쓰베트시대에 뛰어나는 성과들로써 풍부히되었다。이 리론을 대표하고있는것은 한림학사 느·이·무스헬리슈빌리、한림학사 브·그·갈레르킨、쓰련과학한림원 통신원 아·아·일류신 및 기타들이다。쓰련에서는 다공성지질(多孔性地質)속에서의 액체(석유)의 운동법칙을 연구하는 새로운 과학인 석유력학이 수립되고있다。새로운 기계들의 설계자의 실제사업에대하여 극히 큰 관심을 가지는 기계 및 기관에대한 리론과 자동기계학은 꾸준히 연구되고있으며 쓰베트기계제작자들은 기관의 정확성과 공고성에대한 문제들을 정공리에 연구하고있다。(한림학사 느·그·브루에비츠、예·아·츠다꼬브 및 이·이·알또불레브쓰끼)

이와같이 쓰베트기계학의 범위는 극히 광범하다。

더우기 기계학의 가장 중요한 다수의 방향에있어 우리나라는 탁월한 성과들을 달성하였으며 또 세계과학에서 현저한 지위에 진출하였다。

자연과학이 가장 급속히 발전하고있는부분의 하나는 물리학이다。 물리학에 의하여 연구되는 문제들은 큰 리론적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또 각종과학에 대하여 큰 관심을 표시하며 현대 기술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쏘베트학자들은 물리학의 많은 부분에있어 훌륭한 사업들을 적지않게 수행하였다。 그들은 유명한 실험들을 실현하였으며 중요한 발견들을하고 세계과학에 중요한 공헌을한 리론들을 수립하였다。

물리학은 물론 二十세기의 전체 자연과학과 기술의 가장 큰 한개의 문제는 원자핵(原子核)과 원자내부에네르기의 방출(放出)에대한 문제이다。 영국과・미국의 반동도배들은 원자핵의 연구에 있어서의 성과를 단지 안그로싹쏘학자들만에 의하여 달성된것처럼、그리고 쏘베트학자들도 포함한 기타 민족들의 학자의 역활을 묵살하려고 시도하고있다。이러한 허위적 고안들은 핵(核)물리학의 발전이 자기의 지도원칙으로서 드・이・멘젤레예브의 주기법칙(周期法則)을 가지고있다는것에 의하여 이미 명백히 되어있는것이다。

쏘베트과학은 핵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연구하는데 대하여 가장 큰 공헌을 한것이다。이러한 문제의 하나는 원자핵의 구성에관한 문제이었다。一九三〇—一九三二에있어서 물리학에서는 원자핵의 프로톤 전자적 모형(模形)이 통용되고있었다。이 모형에 의하면 핵은 두형의 미립(微粒) 즉 음전량을 가진 전자와 양전량을 가진 프로톤으로부터 성립된것으로 생각되었다。이 관념은 축적되여있던 과학적 자료와 모순에 빠지게되었다。네이트론 즉 각종반응시에 핵으로부터 발사(發射)하는 전량(電量)없는 미립의 발견은 아직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지않았다。

一九三一—一九三三년에 쏘베트학자 드・드・이와넨코 및 예・느・하폰교수들에 의하여 원자핵의 현대모형은 작성되었다。이 모형에 의하면 모든 원자핵은 프로톤과 네이트론만으로 성립되어있다。원자핵구조에관하여 그후 헤이젠벨그가 발전시킨 새로운 관념은 급속히 세계과학에서 광범한 그리고 종국적인 시인을 받았다。

핵의 모형이 작성된후 핵내의 프로톤과 네이트론을 제지하고있는 력량에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물리학앞에 발생하였다。핵력(核力)에대한 문제는 현대의 전체물리학에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라고 하등의 과장없이 말할수있다。쏘베트동맹에서는 쏘련과학한림원통신원 이・예・땀、드・드・

이와넨꼬교수 또한 아・아・쏘끌로브교수들에 의하여 툭수한 두개의 핵력에대한 리론이 제기되었다。 문제는 어떠한 제三의 미립을 매개로하여 프로톤과 네이트론사이에 핵력을 발생시키는 가능성에 있었다。 이 제三매개물은 그후 연구되어 메존이란 이름을 가지게되었다。 이 형태의 미립은 소위 세계공간으로부터 지구위에 내려오는 우주선(宇宙線)속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최근에 메존은 비상한 고속도를 가지고 비행하는 원자핵들이 격렬하게 충동할때에 발견되었다。이와같이 쏘베트학자들의 연구는 가장 중요한 연구들의 시초로 되었으며 그결과에 인력(引力)과 전자력(電磁力)과 같지않은 핵력의 많은 본질적인 면들이 설명되었다。

핵문제와 관련하여 지적하여야될것은 우라늄은 그의 네이트론에 의하여 폭파될때에 분렬한다는리론이다。 이 리론은 쏘련과학한림원 통신원 야・이・프렌켈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그후 보르에 의하여 발전된 이 반응의 리론은 핵분해(核分解)의 자체발전행정을 설명하는것이다。

우주선과 원자핵분해행정을 연구하는 독창적이고 유익한 방법은 쏘베트학자 한림학사 드・브・쓰꼬벨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그는 우주선 및 원자의 구성물로 되어있는 전자 프로톤 및 기타 미립의 속도를 강력한 자장(磁場)속에 설치된 윌손실(室)에서 측량하였다。자장은 각종속도와 전량(電量)을 가진 미립을 각방면으로 물리치며 이 미립들의 질량과 에네르기를 결정할수있게하였다。 이것들의 흔적은 파괴된 전자의 파편위에있는 미립의 행로(行路)에따라 참전(沈澱)한 적액(滴液)에 의하여 실험기속에서 알수있다。쏘끌벨찐의 방법은 외국에서 널리 리용되어 그후 새로운 미립들 즉 상기한 메존과 또 대체로 전자와 비슷하나 양전량을 가진 포지트론을 발견할 가능성을 주었다。

일련의 미국학자들은 핵의 자체분렬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종사하였다。그러나 쏘베트물리학자 그・느・플로르 및 크・아・뻬트르자크들만이 우라늄의 원자핵이 똑같은 두부분으로 자체분렬하는것을 론쟁할 여지가없이 증명하기에 성공하였던것이다。

우주선분야에 있어서 큰 역활을 논것은 우주선운동의 강도(强度)와 기압(氣壓)의 영향에대한 또・브・무이쏘브쓰끼교수의 연구이었다。현재 더욱더 큰 의의를 차지하고있는것은 특별한 다층(多層)사진판(寫眞版)속에서 직접 우주선과 각종미립체를 기록하는방법이다。 이 방법은 르・브・무이쏘브쓰끼와 아・뻬・즈다노브에 의하여 창정된것이다。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아・뻬・즈다노브는 례하면 은(銀)의

핵을 프로톤과 네이트론으로 완전히 분렬하는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던것이다。 그후 우주선물리학은 파미트와 알메니야의 알라게즈산(山)에서 쏘베트학자들이 다년간 탐험하여 달성한 제발견의 결과로 현저히 발전하게되었다。 한림학사 아·이·알리하노브와 쏘련과학한림원통신원 아·야·알리하난을 수반으로하는 알메니야탐험대의 사업은 결랑에 있어서 프로톤과 전자의 중간에 있으며 또 프로톤과 네이트론보다 더 무거운 메존형태의 새로운 미립을 완전히 수집하는 근본적인 발견들을 하고서 一九四七년에 끝났다。 이 새로운 미립을 쏘베트학자들은 바리트론이라고 칭하였다。

쏘베트동맹에서 성공리에 발전하고 있는것은 특별한 용구(用具)인 촉진기(促進器)와 관련된 현대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용구속에서 임의의 전량을 가진 미립들은 련합된 전장 및 자장(磁場)의 작용을 늘 받으면서 고속도로 추방된다。 치클로트론을 위시하여 각종형태의 촉진기는 원자핵을 연구함에 있어서나 원자에네르기를 처음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활을 놀았던것이다。

쏘베트학자 야·쁘·떼를레츠끼교수는 전자촉진물인 베타트론에 대한 리론을 처음으로 내놓고 그것을 체계화하였다。 쏘련과학한림원 통신원 브·이·베크쓸레르는 신흐로트론 즉 치클로트론 혹은 베타트론의 일종의 변태이며 전장 혹은 자장의 잉여주파(剩餘周波)의 리용으로 특정되는 극히 효과적인 촉진물에 대한 리론을 처음으로 강구하였다。

쏘베트물리학자들은 베타트론의 작업상승한도(上昇限度)를 처음으로 규정하고 촉진물속에서 전자에 의하여 방출되는 그리고 간혹 관찰자에게 보이기까지하는 특별한 방사(放射)에 대한 리론을 작성하였다。「빛을 내는」 전자의 이 새로운 효력은 一九四三년에 발견되어 전자에서 직접나오는 광선은 처음으로 보이게되었다。

이러한 모든것들은 핵 및 우주선물리학의 제문제에 대한 리론연구나 실험연구가 쏘베트과학의 참가하에서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또 진행되고 있는가하는것과 여기에 있어 론쟁할 여지가없는 우월성은 일련의 문제에 있어서、 쏘베트과학에 속하고 있다는것을 완전한 근거를 가지고 단언할수 있게하여 주는것이다。

유명한 쏘베트물리학자이며 한림학사인 드·쓰·로제스트벤스끼는 변칙분산(變則分散)(원자광선의 특수한 분산)과 원자가 방출하는 분광선(分光線) 리론에 관계되는 고전적 연구를 완수하였다。 드·쓰·로제스트벤쓰끼의 제자인 한림학사 브·아·포크는 임의의 원자의 분광적、 자석적(磁石的) 및 기타의 특성들을 계산할수 있게하여 주는 용이한 방법을 창설하고 있다。 결정(結晶) 실험물리학에 관한

그리고· 최근에는 반량도체(半良導体)—그 전도률(傳導率)이 금속보다 적으며 온도(溫度)에 의존하는 특별한 종류의 물체—에 관한 한림학사 아·프·요프페와 그 학파의 로작들은 유명하게 되었다。 금속 자석합금(磁石合金)、 반량도체、초(超)량도체(극히 낮은 온도하에서 령(零)의 저항을 가지는 금속)액체등에 관한 다수의 중요한 연구들은 쏘련과학한림원 통신원들인 야·이·프렌케로、아·이·살니끄브、브·드·구즈네츠등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백로씨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과학한림원 정회원 느·스·아꿀로브는 자화(磁化)시에 있어서의 결정의 전기적、열학적、기계학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법칙을 확정하였다。 이 모든 연구사업들은 고체물리학 쏘베트학파를 세계에서 첫째가는 한자리를 차지하게 하였다。

쏘베트학자 르·이·만젤슈탐과 그·스·란드스벨이 결정(結晶)속에서의 광선의 특별히 련합된 분산현상을 확정한것은(액체속에서 그것을 발견한 인도물리학자 라만과 동시에) 중요한 발견이었다。이 학자들이 발견한것과같이 물체의 분자속에서의 특별한 진동의 결과로 분산된 광선의 스페크트르는 락하(落下)하는 광선의 스페크트르와는 다른것이다。 이 발견은 광 분산과 또는 물체의 분자구조의 제부를 리해하는데 대하여 새로운 대도를 취하게 하여 주었으며 또한 실지 응용에 있어서 큰 의의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계과학에서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은 방광(放光)과 또한 광방사의 소량설(素量說)분야에 있어서의 연구들이다。 이것을 완수한것은 유명한 쏘베트물리학자이며 쏘련과학한림원 의장인 스·이·바빌로브이다。 방광부문에 있어서의 스·이·바빌로브의 연구는 한개의 리론적 토대를 이루고있으며 이로대위에서 현재 광학(光學)의 중요분야 즉 랭광(冷光)、까스광선등(瓦斯光線燈)을 적용하는 분야가 발전하고 있는것이다。 자기의 제자 쁘·아·체렌끄브와 함께 스·이·바빌로브는 광의 속도를 초월하는 속도를 가지고 물체속에서 운동하는 전자에 의하여 발생하는、보이는 발광(發光)의 새로운 전대미문의 광학적 현상을 발견하여 이로써 현대 공학상에서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 가장 관심을 끄는 현상에 대한 리론은 또한 쏘베트물리학자 이·에·땀므 및 이·므·프란크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진동(振動)에 관한 학설과같은 최신물리학과 공학의 가장 중요한 부문에 있어서 쏘베트학자들은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선 지적할것은 기계학、라디오기술등에 있어서의 소위「무선(無線) 전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의 제성과인것이다。 이 성과들은 한림학사들인 로·이·만젤슈탐、느·드·빠빨레크시、

느・므・크르일로브、아・아・안드로노브、쏘련과학한림원통신원 느・느・보골류보브 및 기타학자들이었다。

쏘베트물리학은 지구상에서의 라디오전파(電波)의 전과(傳播)법칙을 발견하였으며 라디오전파를 리용하여 거리(距離)를 측량하는 방법을 수립하였다。

쏘베트적 발견들은 절대령(絶對零)에 가까운 온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설명하게 되었다。이것은 초량도체(超良導体)와 련결된 현상들에 관한것이다。이것을 연구하고 있는것은 초량도체의 중간상태를 확정한 쏘련과학한림원 통신원 아・이・샬니꼬브이다。

해상물리학에 대하여 독특한 연구를 한것은 쏘베트학자이며 한림학사인 브・브・슐레이킨이다。

이상에 렬거한 쏘베트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이상의 모든것은 쏘베트물리학의 높은 수준에 관하여、쏘베트물리학이 서구라파 및 아메리카의 물리과학과 성공리에 경쟁할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쏘베트학자들이 가장 짧은 기간내에 외국의 학자들을 현대물리학의 개별적 부문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적 중요부문에 있어서도 뒤떨어뜨릴수 있다는것에 관하여 잔신있게 말하여 주는것이다。

천문학의 일련의 부문에 있어서의 쏘베트학자들의 우선권에 관하여 또 기술하기로하자。까스성운체(瓦斯星雲体)은하(銀河)의 구조와 운동에 대한 연구、변화하는 별들에 관한 브・브・꾸카르낀、뻬・뻬・파리나고교수들 및 한림학사 그・아・샤인의 로작들 성계(星界)에 관한 쏘련과학한림원 통신원 브・아・암바르추만의 로작들、혜성(彗星)에 관한 쏘련과학한림원 통신원 스・브・오를로브의 로작들 이 모든것과 기타 연구들은 현대천문학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한림학사 브・그・페센코브 및 오・유・스미드는 지구와 유성의 발생에 대한 곤난한 문제들에 관련되는 새로운 우주 발생론적 가설을 작성하였다。

쏘베트화학(化學)은 세계과학에 많은것을 주었다。쏘베트화학은 쏘베트동맹이 특히 현저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과학부문에 속하고 있다는것은 물론이다。

물리화학부문에 있어서「꼬노발로브의 곡선(曲線)」은 유명하다。용액(溶液)론의 가장 중요한 일련의 법칙들은「꼬노발로브의 제법칙」이란 이름으로써 유명하다。기본적 연구들은 한림학사 드・뻬・꼬노발로브에 의하여 이미 쏘베트시대에 완수되었던것이다。

용액증기(蒸氣)의 탄성(彈性)에 대한 드・뻬・꼬노발로브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용매(溶媒)의 증류기(蒸溜器)를 현재 계산하고 있으며 가장 복잡한 정류기(精溜器)의 계산이 실시되고 있다。이것없이는 현대화학기술과 특히 중유기합성물(重有機合成物)공업의 발전은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벌써 혁명전에 느・아・실로브 교수에 의하여 자체촉진의 련쇄반응(連鎖反應)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이 부문에 있어서는 쏘베트시대에 중요한 성과들이 한림학사 느・느・세묘노브에 의하여 달성되었다。연소(燃燒)와 폭발의 현상에 대한 그의 연구는 내연기관(內燃機關)내에서 발생하는 행정을 리해하는데 대하여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데 대해서 큰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림학사 느・스・꾸르나꼬브와 그의 제자들은 쏘베트시대에 새로운 화학부문을 창설하였다。즉 현대화학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만한 발견들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물리화학적 분석을 창설하였다。물리학적 및 기하학적 방법으로써 물체와 그 전환을 연구할 가능성을 주면서 꾸르나꼬브의 물리화학적 분석은 큰 리론적 총화의 기초로되었으며 자연현상을 인식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험실사업 발전에 유익한 영향을 주었으며 수많은 새로운 합금(合金)의 제조、염(鹽)부원의 리용 및 우리조국의 세계적인 카리움 산지의 개발등에 대한 긴급한 실제문제들을 성공리에 해결할수있게하여 주었다。

한림학사 브・그・홀로핀이 지도하는 쏘베트무선화학(無線化學)과의 연구는 방사능(放射能)을 가진 현상부문에 있어 현대과학이 달성한 가장 중요한 성과에 속하는것이다。

유기화학부문에 대한 로씨야과학의 연구들은 쏘베트시대에 있어 빛나게 계속되고 있다。

유명한 세계화학자들중의 한사람인 한림학사 아・예・파보르쓰끼의 연구는 포화(飽和)되지않는 유기화합물(有機化合物)에 대한 화학의 기초로 되어있다。주지하는바와같이 포화되지않는 화합물들은 아주 높은 화학적 작용을 가지고 있는것이다。이 포화되지않는 화합물들은 일련의 유기합성물의 생산에 대한 최초의 물질로 되어있는것이다。한림학사 아・예・파보르쓰끼는 이 화합물들의 동분이성화(同分異性化)즉 분자내부에서 원자 및 원자군(原子群)이 이전하며 이 결과에 이 화합물은 그 구성을 변경하지않고서 자기의 특성을 변경하는 합법칙성을 연구하였다。이와함께 아・예・파보르쓰끼는 또 분자중복(分子重復)즉 포화되지않는 유기화합물들의 동성분자(同性分子)들로부터 긴 련쇄물을 형성하는 리론을 연구하였다。이 결과에 달성된 소위 고등분자화합물(高等分子化合物)—합성고무、인조견등—은 주지하는바와같이 공학에 있어서 큰역할을 놀고 있는것이다。

유기화학부문에 있어 다른 세계적 권위자인 한림학자 느·드·젤린쓰끼는 쏘베트시대에 가수용화(加水溶化) 또는 수소화합용화(水素化合熔化) 즉 복잡한 유기화합물의 분자에 수소를 가입하거나 혹은 그 분자로부터 수소를 배출시키는 화학적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서 광범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특별한 물질 즉 화학적 반응경과를 촉진시키는 접촉제(接觸劑)의 원조로써 실현되는것이다。 용화(溶化)에 대한 연구는 현대화학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며 인민경제와 국방에 대하여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것이다。 한림학사 젤린쓰끼의 상기한 연구들은 석유의 화학적 가공과 정제(精製)에 있어서 특별히 큰 역할을 놀고있다。 한림학사 젤린쓰끼의 연구의 구상(構想)은 극히 다양다종하다。 특히 란백(卵白) 화학에 대한 그의 로작들은 기술되어야 할것이다。

중요한 금속유기화합물을 과학적으로 리해함에 있어서 새로운 일보를 달성한 탁월한 그리고 심각한 연구들은 한림학사 아·느·네스메야노브에 속한다。 한림학사 아·느·네스메야노브의 로작들의 의의는 만약 금속유기화합물이 현대공학상에서 더욱 큰 의의를 획득하고 있는 특수한 화합물부문이라는것을 회상하면 명백하게될것이다。 이 화합물들은 유기물이나 무기물에 들어가는 원자들을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여기에 관련되는것은 연(鉛)—유기화합물 즉 례하면 오크탄가(價)가 높은 연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화(溶化) 부가물(附加物)인 안티떼토나토르인것이다。 한림학사 네스메야노브와 그의 제자들은 이러한 금속유기화합물의 일련의 전연 새로운 부문을 발견하여, 연구하였다。

용화과정을 연구하는 부문에 있어 느·드·젤린쓰끼의 성과들과 더부러 세계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것은 한림학사 아·아·말란진의 로작들이다。 그는 아주 독창적인 유기용화론을 창설하였다。 이 리론은 큰 공학적 의의를 가지는 일련의 화학적 변질을 실시함에 있어 접촉제를 선택하는데 광범히 리용되고 있다。

쏘베트수학과 물리—화학의 성과들의 일반특장은 이 과학들이 기술 및 실천과 가장 긴밀히 련결되어 있었다는것이다。

× × ×

쏘베트동맹에서는 물리화학의 발전과 더부러 지구표면과 지각(地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또는 유기계 생명 및 의식의 제문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리학, 지질학, 토양학(土壤學), 생물학등에 있어서 또는 농촌경리과학 및 의학에 있어서 쏘련은 현재 세계과학에 있어 선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쏘련에서의 지리학적 연구의 규모와 성격에 관해서는 북극에서의 쏘베트학자들의 연구가 가장 명백히 말하여 주는것이다。 북극에 대한 연구는 광범히 또는 계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북극지방에는 수많은 잘 조직된 과학탐험대들이 파견된다。 「사드꼬」 및 「씨비랴꼬브」 호들의 항해는 모든사람이 기억하고 있는바이다。 一九三七—一九三八년에 쏘베르 탐험가들은 「북극」이란 유명한 북극관측소를 부동하는 빙상(氷上)에 설치하기에 성공하였다。 그후 북극에 깊이 침입한것은 쇄빙선(碎氷船) 「사도브」 호이었다。

이상의 사업들의 결과로 극히 많은 과학적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극(極) 중앙지대의 수많은 수학적(水學的), 수(水) 생물학적, 지질물리학적, 기상학적 및 기타의 특성들이 설명되었다。 북빙양해안에 뻗친 구역들의 지질에 관한것이 명백히 되었다。 북극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쏘베트동맹의 북방지대를 광범히 리용할데 대한 필수적 전제를 조성하였다。

인민경제를 재전하는 전체 사업에 대하여 또는 쏘련을 농업국가로부터 공업국가로 전변시키는 문제들을 해결함에 대해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것은 쏘베트지질학의 제반성과이었다。 쏘베트지질학은 세계지질학에 있어서 지도적 지위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지질학적 탐험활동은 쏘베트시대에 있어 이전 二백년간에 이 부문에서 달성된 모든것을 훨씬 초월, 하게되었다。 쏘베트지질학자들은 새로운 방대한 지하자원들을 발견하여 조국의 리익이 되게하였다。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될것은 히빈지방의 린회석층(燐灰石層)에 관한것, 제二 바꾸의 방대한 석유자원에 관한것, 사라또브의 자연까스에 관한것, 철광지대로 쏘베트공업을 보장할데 관한것, 례하면 안가르 및 까렐리지방에서의 철의 발견에 관한것, 유색금속, 귀금속, 희유(稀有) 금속등의 새로운 지대에 관한것, 카리움층, 까라—따우의 린회암(燐灰岩) 및 기타 가장 가치있는 매장물에 관한것등이다。

지질학에 대하여 큰 영향을 준것은 세계자연과학의 고전학자인 한림학사 아·뻬·까르삔쓰끼의 연구이다。 아·뻬·까르삔쓰끼의 과학사상은 수많은 쏘베트학자들의 연구를 고무하고 있다。

현대자연과학의 대가중의 한사람은 한림학사 브·이·베르나드쓰끼이었다。 그는 유명한 쏘베트학자인 한림학사 아·에·페르스만과 더부러 지질화학 즉 지질학의 새로운 가장 중요한 부문을 창설함에 세계적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것이다。 쏘베트학자들 다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노르웨이인 브·므·홀

드스미트가 지질화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지각내의 화학원소들의 력사, 결합 및 운동을 연구하면서 지질화학은 유용광물들이 지구내부에서 흐터지는 합법칙성에 관한 결론을 짓게하여 주는 것이다。

한림학사 브•이•베르나드쓰끼는 한개의 중요한 과학부문인 생물화학의 창시자이었다。 이 과학은 지상에서의 생물의 력사와 관련하여 유성들의 화학원소들의 력사를 연구하는것이다。

암석학(岩石學)—광층(鑛層)에 관한 과학—의 부문에 있어 세계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것은 쏘베트한림학사 프•유•레빈손—레씬그의 연구이다。 한림학사 드•스•벨란킨은 이 과학에서 새로운 방향 즉 소위 공학적 암석학을 창설하고 있다。한림학사 아•느•자바리츠끼는 지질광물학의 중요한 새로운 부문 즉 광층의 화학적 면을 연구하며 또 지각의 구성을 연구하는 사업에 있어 광범한 전망을 열어주는 암석화학(岩石化學)을 발전시키고 있다。쏘련과학한림원 통신원 드•스•꼬르진쓰끼는 광층의 대변화 즉 소위 암석의 변성작용(變成作用)의 물리화학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쏘련에서는 또한 지각의 외피(外皮)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침전층(沈澱層)에 대한 암석학에 관해서 대연구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려하면 이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현저한 역할을 논것은 르•브•뿌스또발로브교수의 연구들이다。그는 침전층의 구성과 지역적 배치가 엄연한 합법칙성에 종속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광층의 발생과 전파(傳播)에 대해서 미국의 엠몬 및 기타의 리론을 대부분에 걸쳐 론박하는 전연 새로운 리론을 작성한것은 한림학사 스•스•스미르노브이었으며 이 리론을 현재발전시키고 있는것은 쏘련과학한림원 통신원 유•아•빌리빈이다。 적유지질학 즉 많은 점에 있어 쏘베트학자들의 혜택을 입은 지질의 새로운 부문에 관한 한림학사 이•므•구브낀의 독창적 연구들은 세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므•구브낀은 니토(泥土)화산(火山)과 또는 그와 적유합유성(含有性)과의 련결에 대한 리론을 작성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유기계에 관한 선진적 쏘베트과학은 물론 그의 과학의 모든 부문들의 특성은 인민의 곤난에 대한 쏘베트과학의 무한한 배려이며 공산주의를 위한 전인민적 투쟁에 적극 참가하려는 그의 지향이다。이것은 생물학이 농촌경리과학 및 의학과 또는 이것들을 통하여 실생활상의 제요구와 긴밀히 련결되어 있다는 것에서 표현되고 있다。선진적 쏘베트학자들—생물학자, 토양학자, 농학자, 동물학자,

의사들은 자연계의 주인이 되며 그것을 해방된 자유스러운 인간의 리익을 위하여, 통제함을 배우기 위하여 유기계 또는 생명의 합법칙성을 연구하고 있는것이다。그들은 풍부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달성함에 있어서 쏘련을 백방으로 도우려고 애쓰고 있다。그들은 병과 또는 일찍 늙는것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연구하고 있다。

「생명 없는」광층에 관한 과학을 생명 있는 자연에 관한 과학들과 련결시키는 독특한 부문은 생명 무유기계(無有機界)의 호상작용의 산물을 표시하는 특별한 자연물체인 토양에 관한 학설이다。과학으로서의 토양학이 로씨야학자 브•브•도꾸차예브의, 연구에 의하여 처음으로 확립되었다는것은 위에서 이미 지적한바이다。 도꾸차예브야말로「토양」이란 개념자체를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토양을 분류하였으며 지구표면에, 각종형태의 토양이 분포된 지대의 성질을 교시하고 다섯가지의 가장 중요한 자연—력사적 토양지대를 확정하였던것이다。

쏘베트시대에 있어 토양학은 유명한 쏘베트학자이며 한림학사인 브•르•윌얌쓰의 로작들에 의하여 발전하였다。토양의 진화, 토양형성의 계단, 토양의 생명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제요인의 큰 역활등에 관하여 중요한 총화와 결론을 짓고서 브•르•윌얌쓰는 유일한 토양형성과정에 관한 학설을 발전시켰으며 또 토양의 수확성을 부단히 높일 목적으로 토양의 생명을 의식적으로 조정하며 또 그 방향을 규정하는 방법들을 작성하였다。

윌얌쓰에 의하여 창설된 목초재배 농작법과 또 그가 내세운 농학적 대책들은 높고 확고한 수확고를 달성하기 위한 목축업의 발전과 그 생산력을 제고시키며 쏘련에서 농촌경리생산물을 풍부히 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끌호즈농민을 무장시키었다。목초재배농작법에 관한 학설은 쏘베트과학의 가장 위대한 성과이며 이것은 똑같은 방향에서 외국학자들이 수행한 모든 시도들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특히 생물학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우선 생물학을 새로운 높은계단으로 제고시킨 위대한 쏘베트 생물학자 이•브•미추린의 로작들에 머물지 않으면 아니된다。미추린은 미리 예정된길로 유기물의 계형태의 진화를 지도하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유기체의 형성에 있어서의 외계의 거대한 역활을 설명함으로써 미추린은 식물 특히 주위환경에 대하여 용이하게 순응하는 식물을 만들수 있게 하여주는 방법(례하면 원방(遠方)에서의 잡종화(雜種化)방법, 접목(接木)방법)을 확립하였으며 또 그는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자연의 본성을 일정한 목적에로 변경시킬수 있는 방법들

을 연구하여 생명의 가장 복잡한 현상인 유전성을 의식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가능성에 득달하였다. 이 모든것은 미추린과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쏘련의 농촌경리를 위하여 식물의 가치있는 종류를 계획적으로 만들어낼수 있게하여주었다.

사회주의적 농촌경리의 발전을 위한 불쉐위끼당의 승리적 투쟁과 결부되어 있는것은 미추린학설의 가장 빛나는 계승자인 한림학사 뜨·드·리쎈꼬의 성과들이다. 이 탁월한 쏘베트학자에 의하여 미추린적 실험유전학의 제원칙은 체계화되었으며 발전되였다.

실천응용에 대하여 비상히 중요한 농학적 방법―야로위자치야―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뜨·드·리센꼬는 그후 자기의 유명한 식물발전의 계단설을 창설하였다. 이 리론은 식물이 자기의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계단을 통과하며 또 그 매개 단계의 통과에 대하여 외계의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를 가르쳐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지식은 뜨·드·리센꼬로하여금 재배의 방법으로 식물의 본성을 개조하는 일반적 조건들을 발견케 하여주었다. 뜨·드·리센꼬는, 식물유기체가 어떠한 발전계단을 통과할시에 그 식물유기체에 외계의 조건들이 작용함으로써 또는 적당한 재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유전에 의하여 전달되는 특성과 본성을 뜻대로 식물에 부여할수 있다는것을, 다시말하면 생물유기체의 유전성을 일정한 목적대로 변경할수 있다는것을 자신있게 보여주었다. 유기계를 의식적으로 지배하는 방법들에 관한 미추린의 학설을 발전시키고서 뜨·드·리센꼬는 그것과 도꾸차예브―윌얌스의 학설을 완전무결한 농생물학적(農生物學的)개념속에 통일시키었다. 이 농생물학적개념은 현대 리론생물학전체에 대하여 큰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또 농촌경리에 있어서 그리고 콜호즈와 쏩호즈들이 높은 수확고의 곡물 감자 목화 및 기타 가장 중요한 특수작물을 득달하는 사업에 있어서 북방지대에 다수의 특수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놀고 있는것이다.

미추린적 과학은 번식용축산에 있어서도 큰 실제 응용적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례하면 유명한 쏘베트우량종설립학자인 한림학사 므·프·이와노브는 동물번식법의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 권위자이다.

유기체형태의 발전에 있어서 외계의 역할을 강조하는, 또는 유기체의 생명의 유전적 변화와 제조건사이의 합법칙적 련결을 발견하는 미추린―리센꼬학설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제원칙에 기초하고 있는것이다. 이 학설은 우연의 지배로부터 생물학을 해방시키고 생물계의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인식하는 옳은 길위에 과학을 세웠다. 그리하

여 바로 이러한 리유로써 미추린학설에서는 선진적인 과학적 리론과 실천과의 통일원칙이 그다한 형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이와같이 현대생물학의 근본문제들에 있어서―진화론과 실험유전학의 제문제에 있어서―선진적 쏘베트과학은 웨이스만, 멘델 및 모르간의 반동적 관념론적 실생활로부터 유리된 사상들로 여명을 유지하여가는 외국과학에 대하여 결정적인 우월성을 득달하였다. 그리고 또 생물학의 발전에 있어서 쟁론할 여지가 없는 우선권은 미추린적 유물론적 생물학에 속하고 있는것이다.

세계생리학의 발전에 있어서의 첫째지위는 물론 쏘베트과학에 속하는것이다. 이것은 우선 쏘베트시대에 가장 광범한 발전을 보게된 천재적 생리학자 이·쁘·빠블로브와 그 학파들의 연구들을 말하는것이다. 조건반사(條件反射)에 관한 이·쁘·빠블로브의 학설은 과학의 기본문제들을 설정하고 고등신경활동의 제문제를 유물론적으로 해결하였다. 빠블로브의 유명한 발견들은 현대자연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일대 전변을 일으키고 전체 세계과학의 자랑으로 되었다. 빠블로브는 갈리레이 시대부터 부단히 발전하던 자연과학이 해결 못하고 있던 뇌(腦)의 활동법칙을 발견할뿐만 아니라 인류의 리익을 위하여 이 법칙들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고시(敎示)하였다. 빠블로브의 학설과 빠블로브학파의 로작들은 현대생물학 및 심리학 전체에 있어 새로운 단계를 표시하는것이다. 이·쁘·빠블로브의 연구는 그의 제자와 계승자들에 의하여 훌륭히 계속되고 있다.

세계생리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대표하고 있는것은 한림학사 느·예·베덴쓰끼 그의 제자인 한림학사 아·아·우흐똠쓰끼 이다. 느·예·베덴쓰끼는 신경자극의 각종형태를 연구하여 신경제지(制止)론을 창설하였다. 신경계통활동의 기본법칙의 하나―신경세포중추(神經細胞中樞)의 활동에 있어서의 기본원칙―는 한림학사 아·아·우흐똠쓰끼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생리학의 여모든 문제들과 또는 이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쏘베트과학은 반박될수 없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유기적 행정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쏘베트생물화학이 해결하고 있다. 생물화학은 물론하고 전체자연과학의 중심문제중의 하나는 란백(卵白)의 분자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의 구조와 또는 활동법칙을 설명함은 동시에 절제로 생명을 가진 물질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쏘베트과학은 란백의 구조가 대체로 쏘련학자들―한림학사 느·드·젤린쓰

끼 및 느·이·하브럼로브 교수의 유명한 연구에 의하여 해명되었다는것을 자랑할수 있는것이다。이 학자들은 대실험적 자료에 의하여 확증된 독창적인 란백분자구조론을 창설하였던것이다。

한림학사 아·느·바흐미그의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연구들로써 세계과학을 풍부히하였다。한림학사 바흐의 학과에 의하여 생물체들의 호흡과 산화(酸化) 과정의 합법칙성과 또한 이 과정에서의 발효균(醱酵菌)의 역할이 확정되었다。

효소(酵素) 학과 발효과정에 대하여 유명한 연구를 완수하것은 한림학사 아·이·오빠린, 쏘련과학한림원 통신원 아·르·꾸르사노브, 브·아·엔겔하르트, 브·이·즈바르쓰끼교수이다。발효과정에 대한 쏘베트로작들은 빵제조 과채업(果菜業), 양조, 담배제조등과같은 인민경제의 중요부문도 포함한 인민경제에 대하여 큰 의의를 차지하게 되었다。

제한된 지면으로서는 생물학의 기타 모든 부문에 대한 수많은 로작들에 관해서 말할수없다。이 로작들은 다수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쏘베트조국에게 우월성을 주었으며 또 세계과학에 대하여 우선 식물학, 동물학, 조직학(생물)동물형태학, 식물생리학, 미생물학, 고생물학등의 부문에있어 큰 영향을 주었다。

이미 지적된바와같이 쏘베트생물학은 인민보건의 제문제와 간밀히 련결되어 있는것이다。쏘베트의학의 높은 수준은 일반이 아는바이며 그리하여 세계과학의 자랑으로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발견들에 있어서의 쏘베트의학의 우월성에 관해서 상기(想起)하려면 느·느·아니츠끄브, 아·아·보고몰레츠, 느·느·부르덴끄, 스·스·유진, 아·브·비스네브쓰끼, 브·쁘·쓰휠라또브 및 기타 다수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과학가들의 이름들을 렬거하는것만으로서도 족하다。

× × ×

우리는 약간의 가장 중요한 과학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의 쏘련학자들의 제반성과를 특징지었다, 세계문화에 대한 혁명전로씨야과학의 공헌은 비상히 광범하며, 유명하며, 중요하며ㅡ또한 쏘베트인민의 자랑의 대상으로 되어있다。로씨야에서의 위대한 十월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또는 부패하여가는 자본주의의 사회제도에 대한 쏘련의 사회주의적 사회제도의 우월성에 의하여 가능하게된 문화와 과학의 세계사적 승리는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로씨야과학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전통은 쏘베트시대에 훌륭히 계속되었으며 또 수많이 중대하여졌다。바로 쏘베트시대에 쏘베트조국, 쏘베트문화는 세계문명과 세계진보의 성색으로 되었다。벨린쓰끼

의 애국적인 공상은 실현되었다。즉 쏘련은 오늘날 인류의 정신적 발전의 선두에 서서 가고있다。레닌—쓰딸린의 당은 혁명적 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위에서 쏘베트조국, 문화, 과학 및 기술의 제반 달성위에서 쏘베트적 애국심의 정신으로 쏘련인민을 교양한다。

쏘베트문화와 과학의 가장 위대한 세계적 공헌에 대한 자각은 쏘베트과학의 영광을 위하여 쏘베트사회주의조국의 위력과 독립의 공고를 위하여 가일층의 영웅적 사업에로 쏘련학자들을 동원한다。

과학적 발견의 부문에 있어서의 쏘베트적 우선권의 옹호는 당이 쏘베트학자들앞에 제기한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임무의 하나이다。

최근 미국에서 반미행동조사위원회 의창인 악명높은 토,마스는 자기의 졸도들과함께 횡포한 운동을 일으키어 쏘베트동맹은 마치 미국의 발견을 가지고 자국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듯이 증명하려고 몹시 애쓰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과렴치한 날조와 흉악한, 반쏘선전의 일례인 이 운동도 쏘베트의 발명과 발견들의 조직적인 절취에 관하여 또는 쏘베트의 과학 및 기술상의 제성과들이 미국에서 광범히 그리고 파렴치하게 리용되고 있는것에 관하여 말하여주는 실제사실들을 진보적 세계여론으로부터 감추지는 못한다。 실례를 들기로하자。

一九三一년으로부터 一九四〇년에 이르는 시기에 쏘베트학자 브·브·블라쓰브교수는 공장전물, 항공기창고(앙가르), 기중기(起重機), 조선대(造船台), 비행기 및 기선의 동체(胴体) 등등의 건설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얇은 외피(外皮)와 축(軸)에 대한 효과적인 계산방법을 주는 리론을 강구하였다。블라쓰브교수의 로작은 一九三五년부터 쏘련에서 발표되어 쏘베트의 참고서들과 교과서들에 들어가게되었다。그러나 바로 一九四二년에 미국잡지「응용기계학」九월호에는 미국학자 이·후절의 론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며 一九四四년에는 미국잡지「항공과학」에 미국인 르·베스낀교수의 론문이 게재되어 있었다。이 학자들은 브·브·블라쓰브교수의 제반연구와 그의 술어 및 공식을 어느곳에서든지 이 가장 중요한 연구의 원작자의 이름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서 비량심적으로 리용하였다。여기에있어 기타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문제는 상기한 미국학자들의「교수적 부주의」에 있는것이 아니고 그들이 증오하는 쏘베트과학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있는것이다。

최근 과리에서 물리학자 루이·드·브로일의「원자핵리론」이란 물리 책과 그의 론문집「물리학과 미(微)물리학」이란것이 나왔다。

이 로작들에서 드·브로일은 원자핵의 모형에

많은 주의를 돌리어 백방으로 모형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어느곳에서나 이 모형의 각성에 있어서의 우선권이 쏘베트학자에 속하고 있다는것을 하나도 들지않았다。이점에 있어서의 쏘베트우선권은 헤이젠벨그、보르、란드、모트 및 기타들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루차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브로일은 완강하게도 헤이젠벨그만을 들었다。이와같은 것은 쏘베트학자가 작성한 두개의 핵력의 리론에 관해서도 말할수 있다。이 리론을 드·브로일은 헤이젠벨그와 또 페르미에게 귀착시키였다。지적할 필요가 있는것은 이 점에 있어서도 헤이젠벨그자신이 쏘베트학자들의 우선권을 강조하였다는것이다。어느때 쏘베트학자들이 원자핵 구조에 관한 그들의 사상의 중대성을 시인하는 극히 아첨적인 그리고 아주 기뻐하는것처럼하는 편지를 드·브로일자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것은 흥미있는 일이다。그러나 기간은 변하여 부르죠아과학가들의 습성은 더욱 저락하고 있다。루이·드·브로일은 팟쇼강점과 비시정부시기에 파리과학한림원의 비서로 되였다。그는 팟시스트시에 기분이 좋았다。쏘베트군대는 팟시즘을 분쇄하고 불란서인민의 해방을 방조하였다。불란서공산당은 반동을 반대하는 불란서로동자들의 투쟁을 령도하고 있다。례절(禮節)을 망각하고 최후발악적으로 반동학자들은 쏘베트과학을 비방하기에 모든것을 다하려고 하고있다。그러하여 이것은 상기한 드·브로일의 서적은 물론 쏘베트과학의 제반성과를 조직적으로 묵살하고있는 서구라파 및 미국에서 발간되는 과학출판물、과학통속물 및 공식출판물(즉 원자에네르기에 대한 로작들에 관한 스미트의 보고와 같은것들)도 포괄할 기타 다수의 서적들에서 표현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쏘베트과학의 우선권에 대한 옹호의 큰 의의를 강조하여 주는것이다。쏘련의 과학상의 우선권을 확립하며 증명하는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현재 쏘베트애국심의 교양사업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또 사회주의 세계와 자본주의세계사이에서 진행되는 투쟁과 가장 긴밀히 련결되어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쓰딸린동지는 과학부문에서 가까운 장래에 외국의 성과들을 초월하도록 하는것을 쏘베트학자들에게 호소하였다。과학의 새로운 강력한 개화는 쏘련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한개의 조건이다。쏘베트시대에 쏘베트과학이 축적한 력량、위에서 간단히 기술한바와같은 과학적 창조의 훌륭한 제반성과、쏘련에서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제조건등은 쓰딸린동지의 계획이 영광을 가지고 수행되리라는것의 담보인것이다。

쏘베트과학은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자로 되도록 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것과같은 일련의 대문제들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리론 및 응용지식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첫째가는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수있다。

볼쉐위끼당과 위대한 수령 쓰딸린동지의 지도하에서 쏘베트과학활동가들의 강력한 집단의 의식적、계획적 및 목적적 노력에 의하여 이 가능성은 가장 짧은 시일내에 실현되리라는것은 의심할수 없는것이다。

부패하는 자본주의의 제조건하에서는 과학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가혹한 무기인것이다。대발견과 발명들은 첫째로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리용된다。전쟁에 봉사하는것으로부터 멀리떨어져있는 일련의 과학부문들은 정지상태에 놓여있는것이다。과학에서는 반동적 경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자본주의과학은 독점의 충실한 종복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반인민적、반인도주의적 역활을놀고 있다。

쏘베트과학은 쏘련에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또는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활을 놀았다。쏘베트과학은 현재 인민의 복리를 증가시키며 공산주의의 길로 향하여 가는 위대한 쏘련의 위력과 국방력을 높이는 제과업을 해결하는데 복무하고 있다。쏘베트과학앞에는 위대한 과업 즉 로동자 농민의 문화—기술수준을 기사—기술로동일군들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키는데 있어 쏘련인민을 방조하는 과업이 서있다。

과학의 새로운 성과들과 또는 이미 달성한 성과들의 광범한 리용을 기초로 하고서야만이 공산주의사회건설에 필요한 그러한 거대한 생산력의 발전、로동생산성의 거대한 제고、풍부한 물질적 행복등이 달성될수 있는것이다。이러한 도상에서 쏘베트과학 앞에는 가장 넓고넓은 전망이、자연의 비밀을 밝히는 무진장의 가능성이 근로자들의 요구를 백방으로 만족시켜줄 목적으로 자연의 힘을 소유하는 무진장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것이다。

(「볼쉐위크」一九四八년 제二二호에서)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연구자료 (一六)

레닌의 저서 「국가와 혁명」에 대하여

김 철 우

레닌의 저서 「국가와 혁명」은 레닌의 리론적 사상적 창작들중에서 가장 탁월한 로작의 하나이다.

레닌의 다른 고전적 저서와 함께 이 저서는 맑쓰주의의 총보고(總寶庫)와 그 혁명적 무기고에 가장 귀중한 공헌으로 되어있다. 이 저서에는 국가에 대한 맑쓰주의 학설이 심각한 과학적 기초 위에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더 한층 발전되어 있다.

레닌의 저서 「국가와 혁명」은 一九一七년 八월부터 九월사이에 저술되였다. 당시에 레닌은 께렌쓰끼정부의 추적을 받아 지하에 있지않으면 안되었다.

레닌이 최초에 계획한 이저서의 골자에 의하면

레닌은 이 저서에 맑쓰—엥겔쓰의 국가에 대한 학설에 관한 리론적 분석뿐만 아니라 一九〇五년과 一九一七년 로씨야혁명의 경험을 그의 제七장에 기술하려고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장(章)은 드디어 서술되지 못하였다. 당시 레닌은 一九一七년 十월 뻬쩨르그라드에서 무장폭동의 준비에 그의 모든 정력을 바치었던 까닭이다. 一九一七년 十一월三十일 저서의 출판에 제하여 레닌은 이 저서의 뒷말에 다음과같이 썼다. 「나는 一九〇五년과 一九一七년의 로씨야혁명의 경험에 관하여서 다음 제七장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정치적 위기, 一九一七년 十월혁명의 전야(前夜)의 「지장」(支障)으로 인하여 쓰지못하였다. 이러한 「지장」은 얼마든지 좋은것이다. 그리하여 이책의 제二편(一九〇五년과 一九一七년 로씨야혁명의 경험)은 오랫동안 연기하지않으면 안되었다. 혁명에 관하여 쓰는 것보다 「혁명의 경험」을 겪고나가는것이 더욱 유쾌하고 유리한것이다」라고 레닌이 썼다.

국가에관한 문제와 국가와 사회혁명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현재 리론적으로나 실천적 정치적으로 중대성을 가진다고 레닌은 그의 저서의 첫 페지에 강조하였다.

× × ×

레닌의 「국가와 혁명—국가에 관한 맑쓰의 학설과 혁명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과업」은 제一차 세계대전과 혁명적 앙양기에 저술되었다.

제一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첨예하게 로골화하였으며 근로대중의 생활형편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무지한 압박을 받게하였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은 당시에 근로대중의 군사적 로역의 감옥으로 되어있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제국주의전쟁의 참혹한 살륙과 근로대중의 참을수 없는 고통은, 전쟁과 제국주의에 대한 그들의 증오를 북돋아주었다.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준비되고 있는것이 확실」하였다. 이러한 조건아래서 국가 및 국가와 혁명과의 관계에 대한 의의와 역할에 대한 문제를 구명하는것은 특별한 정치적 지혜를 획득하는것을 말하는것이었다.

로씨야에 있어서 一九一七년 八월—九월의 시기는 二중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혁명의 평화적 시가가 끝나고 총검이 일장에 오른 시기였다. 일체의 정권이 반혁명적 림시정부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쏘베트는 림시정부의 부속물로 되었다. 쏘베트를 자기들 손에 장악하였던 멘쉐위끼와 에쓰•엘들은 공공연하게 결정적으로 반혁명의 방조자로 되어버렸다. 혁명은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였다. 볼쉐위끼당은 그 전술을 변경하게 되었다. 一九一七년 七월교훈이 있은후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국가정권을 자기손에 장악하여야된다. 이밖에는 혁명적 승리가 있을수없다」고 레닌이 말하였다. 혁명의 결정적 앙양기는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앞에 국가주권을 장악할 당면임무를 제기하였다—이리하여 국가에 대한 혁명적 리론은 실천에 통일되게되었다. 볼쉐위끼당앞에는 국가와 및 국가와 혁명의 관계에대한 명석한 과학적 리론으로써 대중을 무장시키고 기회주의자들, 반혁명자들의 국가리론에 대한 온갖 곡해, 기만, 말살을 폭로하며 그것과 투쟁하여야할 임무가 제기되었다. 레닌은 이미 四월론강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에서 사회주의혁명으로 넘어갈 과업을 내세웠으며 쏘베트적 국가형태에 대하여 명백하게 지시하였다. 쏘베트가 아직 멘쉐위끼 에쓰•엘들에게 장악되였을때 「일체의 정권을 쏘베트로」라는 구호를 철회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서 쏘베트정권을 위한 투쟁을 포기

한것은 물론 아니었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쏘베트가 이 혁명에서 출현할수 있으며 반드시 출현할것이다。 그러나 부르죠아와의 혁명적 투쟁을 진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반대로 그와 타협하는 기관인 지금과 같은 그러한 쏘베트는 아니다。 우리는 쏘베트형(型)대로 전체국가를 창건할것이다。 그렇게 될것이다。 이것은 일반적 쏘베트에 대한 문제인것이 아니라 현하의 반혁명과 투쟁하며 현재의 쏘베트의 변절과 투쟁하는 문제이다」라고 당시에 썼다。 볼쉐위끼당은 과학적 기초에 립각하여 사회주의혁명 준비에 대한 레닌의 표어를 로동자, 농민, 병사들 광범한 대중에게 선전하면서 레닌적 사상을 백전백승의 물질적 조직적 력량으로 만들었다。

모든 혁명에 대한 기본적 문제는 국가주권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부르죠아국가에 대한 결정적 공격에로 광범한 혁명적 대중, 특히 우선 프로레타리아트를 준비하는 사업에서 국가 및 국가와 혁명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착취자들의 국가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과업과 혁명에서 력사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창설할 필요성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사상의 선전이 중요한 의의를 가졌으며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긴급한 과업으로되었다。 서구라파에서의 까우츠끼 도배들, 기회주의자들과 로써야에서 그의 친우들이 부르죠아지에 추종하여 이 학설에서 혁명적 정신을 썩여버리고 악변하며 맑쓰주의의 기본적 중요한 학설인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학설을 잊어버리든지 제거하여 버리는 까닭에 더욱 그러하였다。

당시 국가에 대한 문제에서 맑쓰주의의 기회주의적 의곡은 광범하게 전파되었었다。

이러한 사정은 레닌으로 하여금「우리들의 과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에 대한 맑쓰의 진정한 학설을 회복시키는데 있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레닌은 국가에 대한 맑쓰주의적 리론의 온갖 의곡과 망각과 말살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였다。

레닌은 국가와 프로레타리아혁명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학설을 회복하였을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건아래서 적절하게 이 학설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투쟁의 모든 기본문제를 리론적으로 규정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특질 그 방법에 대하여 론증하였으며, 여기에 대한(즉 국가기관 창설에 대한)로동계급의 과업을 규정하였으며, 국가조락의 경제적 기초를 구명하였으며, 공산주의사회발전의 두 양태의 기본특징과 그때의 국가문제를 해명하였다.

레닌은 비상한 솜씨로써 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의 저서는 맑쓰주의저작의 고귀한 금자탑에 다만

특별한 과학적 리론적 문헌으로써 뿐만 아니라 맑쓰주의에서 퇴각하는 온갖 또는 모든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사상적 비타협성 볼쉐위끼대렬의 당성에 철저히 관철된 전투적 혁명적 평론의 모범으로써 들어가는 것이다。

레닌의 저서「국가와 혁명」은 국가에 대한 가장 우수한 과학적 맑쓰주의적 로작인 동시에 十월혁명전야의 구체적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국가주권을 위한 구체적 투쟁의 강령이며 자기의 력량에 합치되는 행동에 대한 전투적 지침이다。 이 저서에서 프로레타리아국가론은 과학적 결론의 최고봉에 제고되었으며 경탄할만큼 깊고 명료하게 표현된 무진장의 사상적 부(富)가 레닌의 천재로써 공개되었다。

× × ×

레닌은 국가의 본질을 설명하는것으로부터 그의 저술을 지작하였다。 국가를 사회질서의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학자』정치가 시정배(市井輩)적 속물적 교수 평론가들의 출현을 반박하면서 레닌은 맑쓰주의의 사상에 근거하여 국가의 력사적 역할과 의의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하였다。 레닌은『국가는 계급대립의 불상용적 모순의 산물이며 그의 표현이다』라고 판정하였다。 그는 맑쓰주의 학설에 대한 곡해가 심한 정세하에서 맑쓰학설의 본질을 부활하는것을 첫째 임무라고 인정하면서 국가에 대한 엥겔쓰의 요약된 분석을 인용하였다。 엥겔쓰는 그의 저명한 저서「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에서「국가는 외부로부터 사회에 부과된 권력은 결코아니다。 헤겔의 주장과 같이「도덕적 리상의 실재」도 아니요,「리성의 형태와 실재」도 아니다。 국가는 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의 사회의 산물이다。 그리고 또 국가는 그 사회자체로는 해결할수 없는 모순에 빠진것, 융화하기 어려운 대립으로 분렬된것, 그 자체에는 그 대립을 면할 힘이 없다는것을 고백하는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 대립 즉 경제적 리해가 상반하는 그 계급들이, 그쓸데 없는 싸움에서 다른계급과 그 사회 자체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기에는 사회의 위에 선것 같은 어떠한 권력이 계급충돌의 힘을 조절하여 그 충돌을「질서」의 울타리안에 두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사회에서 기원하였으나 자기자체를 사회의 위에 세우며 점점 사회로부터 떨어져나가는 이 권력이 즉 국가이다」(레닌「국가와 혁명」모쓰크바판一五—一六페지참조—다음부터 페지수만 기록함)

계급이 없었던 원시사회에서는 국가가 없었다。 국가는 사회의 계급적 분렬과 관련하여 출현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계급의 존재만

이 국가 발생의 필연성을 설명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리해관계의 대립성과 비융화성이 그것을 설명한다。사회가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계급으로 분렬되었으며 이 계급들간의 리해가 상반되는 조건이 계급지배기관으로서의 국가의 발생을 설명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맑쓰주의를 의곡하는 한가지 조류인 소부르죠아적 부르죠아적 견해인—국가는 다만 계급대립과 계급투쟁이 있는곳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할수없이 인정하면서도 국가는 계급의 조정기관이라는 것으로 맑쓰주의를 수정하려는 견해와 레닌은 투쟁하였다。 레닌은 맑쓰에 의거하여 국가는 계급지배의 기관이며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기관이다。 그 목적은 계급충돌을 완화함으로써 이 압박을 합법화하고 영구화하는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부르죠아정객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질서는 계급들을 조화시킨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며, 그것은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이 아니며, 계급충돌을 완화한다는 것은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압박계급이 압박자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한 결정적 수단과 방법을 취하는 것을 부인하며 계급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계급조화가 아닌 계급지배기관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문제는 프로레타리아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그의 근본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시기의 조건하에서 특히 당시 一九一七년 十월혁명전야에 있어서 특별한 리론적 정치적 실제적 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당시 에쓰·엘 멘쉐위끼 도배들이「국가에 의한 계급조정」을 소리치고 나선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국가에 대한 이 태도가 로씨야에 있어서 볼쉐위끼가 항상 주장하는 바와같이 에쓰·엘 멘쉐위끼도배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며 허위적 언사로써 로동자 농민을 기만하여 주권을 자기들에게 틀어쥐려고 하였던것이다。

국가에 대한 맑쓰주의 학설의 의곡에 대한 또 한가지 조류는 카우츠키의 교활한「리론」이다。 카우츠키는「리론적」으로는 국가가 계급지배의 기관이며 계급대립은 화해할 수없는 것이라는것을 부정하는것은 아니다。 또한 그는 로동계급이 자기의 리익을 전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치적 지배를 획득하여야 할것을 부인하지 않았다。그러나 그가「잊어버리고」말살한것은 폭력혁명이 없이는 착취자들의 국가정권을 파괴함이 없이는 로동계급의 완전한 해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기구에 대한 문제로부터 주권에 대한 문제를 분리하였던것이다。 레닌은 카우츠키의 이「리론적」방법은 맑쓰주의와 공통되지 않는것이며 사실상으

로 부르죠아지의 주권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리론」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배계급은 모든 집단에 자기의 의사를 강제한다。그들은 군대, 경찰, 관리 모든 관료기관, 군사적 권력기관같은—감옥, 재판기관, 정찰기관등을 가진 거대한 여러가지 강제적 국가기구의 방조로써 압박받는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한다。 국가 내부의 계급적· 대립이 첨예화하면 할수록 부르죠아 국가들의 정복욕과 그들간의 군사경쟁이 증대될수록 국가 권력기관은 확장된다。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는 이 경향이 특별한 성격을 가진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시기에는「국가기관의 미증유의 강화, 관료적 군사적 기관의 전대미문의 장성, 그와 동시에 군주국가에서나 가장 자유로운 공화국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프로레타리아에 대한 압박이 증대하는것을 보인다」라고 썼다。 레닌의 말의 심각한 정당성을 증명하는 명료한 례를 볼수 있다。—이것은 미국에 있어서의 관료제도의 량적장성에 대한 재료이다。

미국에 있어서 관리(官吏)들 수량은 一九一〇년에 비하면 一九二〇년에는 벌써 관료기관의 성원은 一七一%로、一九三〇년에는 一九九%로 장성되었으며、이와 동시에 경찰기관의 성원은 二배이상으로 증가되었다。 제二차세계대전기간에 미국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성원은 一백五十만명으로 증대하여 현저히 더 증가된것을 보이였다。

레닌은 국가형태에 대한 문제와 국가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하였다。 국가형태는 아주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은 하나이다。 즉 한계급의 다른계급에 한 독재정권이다。 부르죠아국가는 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군주국가, 귀족공화국, 민주적 공화국등이다) 온갖 경우에서 부르죠아 계급이 지배하며 모두 고용로동계급과 근로대중에 대한 독재를 실현하는것이다。

레닌은 로씨야의 에쓰·엘들과 멘쉐위끼들과 그의 서구라파 친우들—사회배외주의자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치명적 비평을 주었다。 그들은 부르죠아 민주제도에 대한 온갖 찬사와 허위적 사상을 인민에게 타일르며 마치 부르죠아 민주국가의 보통선거법이 근로계급의 대다수의 의사를 감당하는 진정한 방법이며 근로계급의 생활을 안전케하는 방도이라고 설명한다。 이들 개혁적 기회주의자들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레닌은「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죠아공화국에서도 민중의 운명은 고용노예라는것을 망각하여서는 안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三五페지 참조)

민주공화국에서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갑

접적으로 가진다。 그러나 그 대신 더 확실하게 가진다。

현대의 실제적 현실은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착취적 본질을 특징지은 레닌의 론증이 확증적으로 가장 정당하다는 무수한 새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압박자적 특질은 자기의 「민주주의적」 생활형편을 자랑하고있는 미국을 위시한 부르죠아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든 정책에서 우리의 시대에 결정적으로 폭로되였다。

로동조합과 기타 로동계급의 민주주의적 단체들을 반대하여 미국 국회에서 채택한 반동적 징벌법령들(타프트·하—틀리법 기타)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또한 미국에 있어서 수천만 흑인들이 받는 인종차별 대우와 영국자치령—남아푸리카련방—에서 수백만 인도인들이 받는 차별대우는 다 알려진 것이다。 부르죠아 민주주의국가의 우익분자들이 만들어내는 반동적 반민주적 국내정책은 국제적 무대에 있어서 반동적 정책을 가져온다。 례를 들면 인도네시아、희랍、중국의 민족해방운동과 혁명적 민주주의 운동에 반대하여 무력을 공급하는 행위는 이것을 명백히 말하는 것이다。 자기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려는 인민을 원자란 폭격으로 위혁하는 원자외교에서 이 반동정책의 확즉은 명백히 표시되였다。

레닌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것이 얼마나 정당한가—위선적이며、허위적이며、불구적이며、성탁되었으며、위조한 민주주의、다만 소수의 부자、소수의 착취자를 위한 민주주의이며 빈자(貧者)를 위하여서는 제한되고 례외적으로 되며 제외되는 민주주의、빈자는 정치로부터 제외되고 밀어내어 버리어있고 주민의 대다수는 사회정치생활에서 밀어내어던져지고 있는 민주주의이다。

× × ×

레닌은 부르죠아 국가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맑쓰주의적 분석에 의하여 간명하고 적절한 결론을 하였다。 즉 국가의 존재는 압박받는 계급의 해방은 폭력적 혁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불상용적 계급적 모순에 의한것이다。「오직 혁명만이 부르죠아국가를 「폐절」 할수있는것이다。」(三四폐지)。 부르죠아지에 의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압박、한줌밖에 안되는 부자들에 의한 수천만 근로대중의 압박을 위하여 자기의 특별한 력량을 표시하는 부르죠아국가를 대신하여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한 부르죠아지의 압박을 위하여 자기의 특별한 력량을 표시하는 프로레타리아 국가에 도달한다。(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

레닌은 「맑쓰가 국가에 대한 문제와 사회주의 혁

명에 대한 문제에 적용한 계급투쟁의 학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통치권、그의 독재、즉 아무와도 나누지않는 또 대중의 무장한 힘에 직접 의거하고있는 주권을 필연적으로 시인하는데로 반드시 이르게한다」(四五폐지)고 썼다。 맑쓰의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로레타리아트』라는 정의를 레닌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공식에로 규정하였다。

레닌은 그의 저서 제二판에 제二장의 제三절(一八五二년에 있어서 맑쓰에 의한 문제의 설정)을 보충하였다。

여기에서 레닌은 맑쓰가 계급투쟁 및 독재와 관련하여 표시한 중요한 서한(一八五二년 三월 五일 웨이드마이어에게 보낸)의 문구를 뽑아내어 간명하게 론증하였다。『나에게 대하여 말한다면 현대 사회에 계급들의 존재를 발견한 공로라든지 그 계급들의 상호간의 투쟁을 발견한 공로라든지 다 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 부르죠아 력사가들이 보다 훨씬 이전에 이 계급투쟁의 력사적 발전을 진술하였고 또 부르죠아 경제학자들이 계급들의 경제적 해부를 진술하였다。 내가 발견하였다는 것은 첫째로 계급들의 존재는 오직 생산발전에 특유한 일정한 력사적 상태와 련결된다는것、둘째로 계급적 투쟁은 반드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로 이르게 한다는것、셋째로 이 독재는 그 자체가 오직 모든 계급들의 반멸에와 계급 없는 사회에로 향하는 과정을 구성한다는것을 증시한데 있다。』……(五七폐지 참조) 여기에서 맑쓰 학설이 부르죠아지의 선진적 학설로부터 구분되는 주요한 근본적 차이점과 국가에 대한 그의 학설이 놀랄만큼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레닌은 「누구든지 다만 계급투쟁만 시인한다면 그는 아직 맑쓰주의자가 아니요、부르죠아적 사상과 부르죠아 정책의 범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자로 밖에 될수없다。 맑쓰주의를 계급투쟁에 대한 학설에만 국한함은 맑쓰주의를 삭감하는 것이요、악변하는것이며、그것을 부르죠아에게 용인되도록 귀결시킴을 의미하는것이다。 오직 계급투쟁의 승인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승인에까지 보급시키는 자만이 맑쓰주의자인것이다。」(五八폐지)라고 론단하였다。 레닌은 부르죠아국가 형태가 다종 다양이나 그의 본질은 결국 부르죠아의 독재가 된다고 말하면서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넘어감에 있어서는 물론 정치적 형태들이 대단히 풍부하고 여러가지로 되지 않을수 없으나 그러나 이에 있어서 그의 본질은 필연코 하나이니 즉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인것이다」(六〇폐지 참조)라고 국가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히였다。

× × ×

그러면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죠아지의 국가기관

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것인가?

一八四八년혁명전야에 발간된 「공산당 선언」에서 맑쓰와 엥겔쓰는 맑하기를 혁명을 수행한 프로레타리아트는 반드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계급으로 된다。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부르죠아 국가기관과 프로레타리아국가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一八四八년—一八五一년 혁명의、경험을 연구한 기초위에서 一八五二년에 맑쓰는 그의 저서 「루이 보나빠르트의 부류메르 十八일」에서 간단하고 정확하고 질제적이며 명료한 결론을 하였다—이전까지의 모든 혁명은 낡은 국가기관을、개선하였다。그러나 프로레타리아혁명의 과업은 이 기관을 분쇄하고 파괴하고 폐절하는데 있다。레닌은 이 결론을 국가에 대한 맑쓰주의 학설에서 중요한 기본적 학설로 간주하였다。

부르죠아지의 관료적—군사적 국가 기관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을 압박하며、진압하며、착취한다고 지적하면서 레닌은 「이 기관을 분쇄하는것、파괴하는것은「인민」의 그의 다수 로동자및 다수 농민의 실제적 리익이요、또 빈농민들과 로동자들과의 자유적 동맹이「전제적(前提的) 조건」이다。이러한 동맹이 없이는 민주제도는 공고치 못할것이며 또 사회주의적 변혁은 불가능할것이다」(六七폐지 참조)라고 말하였다。

맑쓰가 一八五二년에 진술한 부르죠아 국가 파괴의 필요성에 대한 교시를 강조하면서 레닌은 국가에 대한 자기의 학설의 발전에서 거대한 일보를 전진하였다。

그러면 이 파괴한 기관에 대신하여 어떠한 새로운 프로레타리아국가의 구체적 형태가 있을것인가?

이 문제에대하여 「맑쓰는 아 미래의 정치적 형태를 발명하려고는 하지않았다」「맑쓰는 공상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지배계급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기구(機構)가 어떠한 구체적 형태를 가지게될것인가? 어떻게 그 기구가 가장 완전하고 또 철저한 「민주주의의 성과」와 결합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대중운동의 경험에서 그 해답을 기대하였다」(六八—六九폐지 참조)이 첫 경험은 파리콤문이였다。맑쓰는 콤문의 경험과 그의 국가창설을 리론적으로 총화하고 콤문이 부르죠아국가기구를 파괴하고 그를 새국가형태로서 교대하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첫경험이였다는 것을 가르치였다。또한 맑쓰는 파리콤문의 결점과 오유、특히 부르죠아지에 대한 폭력을 불충분하고도 불철저하게 적용하였다는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파리콤문형(型)의 정치적기구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가장 합목적적 형태이라는데 대한 맑쓰의 결론은 맑쓰의 저작에서 더 발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공화국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위한 고유한 형태」라고 「에르푸르트강령 초안 비판(一八九一년)」에의한 엥겔쓰의 교시는 모든 맑쓰주의자들의 지침으로 되어있었던것이다。그들은 一九一七년 二월 로씨야 제二차혁명전까지 의회제공화국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정치적형태라고 계속하여 보고있었던것이다。모든 나라의 기회주의자들은 의회제 공화국에 계속하여 매어달리고 있었다。오직 레닌을 위시한 진정한 맑쓰주의자들만이 국가에 대한 맑쓰주의 리론의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더한층 전진하였으며 그 리론에 새로운 회귀하고 풍부하며 귀중한 기여를 가져왔다。

파리콤문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창설하는 첫 력사적 경험이었다。레닌은 一九〇五년혁명에서 탄생하였고、一九一七년 二월혁명과 함께 로씨야에 부활된 쏘베트는 파리콤문의 한층 발전된것으로 된다고 중시하였다。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프로레타리아독재의 국가가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에서 반드시 존재하며 창조될수 있는 그의 구체적 정치형태이라는 것을 맑하는것이다。

이리하여 一九〇五년 혁명의 경험과 특히 一九一七년 혁명의 첫단계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레닌은 자본주의로 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전환기에 있어서의 사회의 정치적 기구의 새로운 더 결정적인 형태—쏘베트 주권—를 제시하였다。「의회제 공화국이 아니라—로동자 대표 쏘베트가 의회제 공화국으로 복귀하는것은 一보퇴각이다—아래로부터 위에까지 전국적으로 로동자 농업로동자 및 농민의 대표 쏘베트공화국이다」라고 레닌은 그의 유명한 四월테제에 썼다。

그러면 쏘베트란 무엇인가? 레닌은 一九一七년 九월에 다음과같이 썼다。

「쏘베트는 새형태의 국가기관이다。그것은 첫째로 로동자와 농민들에게 무력을 준다。그 무력은 낡은 상비군처럼 인민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장 긴밀하게 련결된것이요、군사적 방면에 있어서 말한다면 그 무력은 종전것보다 비할수 없이 더욱 강력한것이요、그 무력은 혁명적 방면에서 말한다면 다른 무엇으로든지 바꾸어낼수 없는것이다。

둘째로 이 기관은 인민대다수와 밀접하고 분리할수 없으며 용이하게 점열할수 있고 용이하게바꿀수있는 낡은 국가기관들과 비슷한 점도없는 기관이다。

셋째로 이 기관은 관료주의적 형식주의가없이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그 성원이 선거되고 또한 개선

됨으로 말미암아 종전의 기관들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적인것이다。

넷째로 이 기관을 온갖 종류의 직업들과 튼튼한 련계가 보장되었으며 그럼으로써 관료제도가 없이 여러가지 가장 심각한 개혁을 용이하게 실행할수있다。

다섯째로 이 기관은 전위대의 조직형태이다。 즉 피압박계급들인 로동자 농민들의 가장 의식이 있고 정력적인 선진부분의 조직형태이다。 그러므로 그는 피압박계급의 전위대가 지금까지 완전히 정치적 생활과 력사의 밖에 처하여 있던 계급들인 전체 광대한 군중들을 그를 통하여 훈련하며、교양하며、추동하여 이끌고 나갈수있는 그러한 기관이 될수있는것이다。

여섯째로 이 기관은 의회제도의 장점과 직접으로 바로 민주제도의 장점을 련결할수있다。 다시말하면 선거를 받은 인민들의 대표자를 결쳐서 립법권과 행정권을 결합할수있는 가능성을 주는것이다」(레닌의 론문「볼쉐위끼는 국가주권을 유지할수있는가」一九一七년十월)

이것은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부르죠아의회제도에 비하여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일보전진인것이다。 이것은 전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레닌의 발명이었다。 쏘베트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트혁명가들이 탐구하고 있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형태이며 거기에서 레닌은 최고형태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보았던것이다。즉 쏘베트국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근로자를 위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인것이다。레닌의 천재적 관찰력은 프로레타리아 독재형태로서의 쏘베트를 그가 아직 승리하기전에 발견한데서 비상한 위력을 가지고 표시된다。 레닌은 쏘베트형(型)의 국가조직은 로동계급이 착취자들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여 전체근로자들을 결속시키며 공산주의승리를 달성하는 정치적 형태로된다는것을 리론적으로 증명하였다。 그것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맑쓰주의학설을 일층 앞으로 전진시켰다。

레닌의「국가와 혁명」에서 발전시킨 또한가지것은 로동계급의 지도하에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으로써의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학설이다。맑쓰주의 기본명제중에 하나로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하에 로동자 농민의 동맹사상은 레닌이 일찌기 一八九四년에 제기하였고 그후「국가와 혁명」을 비롯한 여러가지 저서에서 발전시켰다。

레닌은「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완전히 그를 집어치우는데 있어서 모든 근로자들과 피착취자들을 련합할수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계급인、끝까지 혁명적계급인 프로레타리아만이 그 진압을 령도하고 그것을 실제생활에서 수행해낼수가있다。」(四三페지) 고 가르쳤다。

레닌는「국가와 혁명」에서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해서와 사회주의적 경제를「정돈」하는 사업에 있어서 거대한 주민 즉 농민 소부르죠아 반(半)프로레타리아트를 지도하기위해서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국가주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 × ×

「국가 조락의 경제적 기초」 라고 제목한 제五장(「국가와 혁명」)에서 레닌은 비범한 명료성과 깊은 과학적 예견으로써 공산주의 사회와 그 발전의 특이한 단계에 대하여 말하였다。「고타강령비판」(一八七五년)에서 맑쓰는 공산주의 사회의 최저형태와 최고형태간의 차이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레닌은 이 리론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완전한 정제(整齊)된 리론으로서 전개시키면서 맑쓰의 분석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켰다。 맑쓰와 레닌·이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공산주의사회의 첫 혹은 최저단계는 자본주의태내에서 나왔을 뿐이므로 낡은 사회관계의 온갖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서는—레닌은 말한다—「생산수단은 벌써 각개인의 사유재산으로부터 해탈되었다。 생산수단은 전체、사회에 소속되었다」(一五三페지) 여기에서 비로소 사람과 사람사이의 주요한 또 기본적 불평등이 소멸된다—즉 계급적 불평등、착취、사회적 압박등이 소멸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성원 전체가 생산수단과 생산도구에 대한 동일한 관계를 가지며 그것이 사회적 소유로되어 자기의 능력에 의하여 로동하는 공정한 권리와 자기의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받는 권리를 가지는 공정(公正)과 평등이 지배한다。 여기서는「로동하지 않는자는 먹지말라」「각자에게는 그의 로동에 의하여」라는 원칙에 의하여 출발한다。 그러나 완전한 평등은 공산주의의 첫단계에는 있을수 없다。 완전한 평등은 다만 새사회의 최고계단인 공산주의에서만 존재할것이며 거기서는 벌써 자기의 고유한 기초가 발전되었으며 경제적 성장의 가장 높은 달성을 완수하고 있다。 미래에 대하여 자기의 천재적 혜안(慧眼)으로써 응시하면서、레닌은 말하기를 인류는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하여「각자는 그의 능력에 의하여 각자에게는 그의 수요에 따라서」라는 원칙에 기초할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더 앞으로 나간다고 하였다。

레닌은 거짓말쟁이 부르죠아지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썩어빠지고 찌꺼기가 된 증거를 례증하면서 치명적으로 론박하였다。「사실에 있어서 오직 사회주의로부터만 주민의 대다수의 참가、그 다음에는 전체주민의 참가로써 사회적 및 개인적 생활의 각부문에서 신속하고 진정하고 참으로 대중적인 진보적 운동이 시작되는것」(一六六페지) 이

다。쏘베트 사회주의의 현실은 이 레닌의 예언을 완전히 증시한다。

사회주의로 부터 공산주의로의 사회발전의 구체적 행정에 대한 문제는「국가와 혁명」이란 저서에서 레닌에 의하여 다만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제기되었다。

「어떠한 양태로써—레닌은 썼나—어떠한 실제적 방법을 거쳐서 인류가 이 최고목적에 도달할까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며 또 알수도 없는것이다」(一六五페지) 레닌이 자기의 저서「국가와 혁명」을 저술할때에는 혁명운동의 실제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또 그 해답은 줄수없었던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쓰딸린의 로작에서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수 있다。거기에는 새로운 력사적 경험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 분석을 기초지었다。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은 사회주의의 사회 건설을 완성하는 과정과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에 관한 정체된 리론을 창조하게하였다。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하여서는—쓰딸린은 가르친다—대량적으로 소비할 풍부하고 충족한 물품을 확보하는 사회적 생산력의 수주에 도달할것을 필요로하며 로동의 문화—기술적 수준이 기사—기술적 일군들의 로력수준에 제고된것을 필요로하며 경제평역에서나 인간의 의식에서 자본주의적 관습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적 의식의 수준에 제고되어야한다。

국가 사멸의 경제적 기초에 대한 문제의 심각한 일반적 리론을 완성하면서 레닌은 사회주의에 있어서는「생산수단에 대한 공유재산을 수호하면서 로동의 평등과 생산물 분배의 평등을 수호하여야 할 국가는 아직도 그만큼 필요한것이다」(一五八페지) 라고 말하였다。이 단계에 있어서 국가의 과업은—로동에 대한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계를 강화하며 로동의 분량과 소비의 분량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며「자본주의적 버릇」과 온갖 개인소유적 사상의 잔재를 해탈한 새로운 인간을 교양하며 태만분자、생원님、협잡군등「자본주의 인습의 보균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진행하는것이다。

국가의 사멸은 예측하는바 그 과정이 오랠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공산주의의 최고단계의 발전속도에 의존한다고 레닌은 강조하였다。국가는 오직「사람들이 폭력이없이、강제가없이、복종이 없이、국가라고 칭하는 특별한 기관이 없이 여러세기를 통하여 잘알려졌고 몇천년동안 모든 훈계에서 반복된 공동생활의 초보적 규칙을 준수하는

에 점차로 습관되게 된」(一四八페지) 그때에라야만 조락하기 시작한다。

공산주의의 조건에서의 국가의 조락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레닌은「조락의 시기에 대한 또는 그것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않은 문제로 남겨두면서 국가의 필연적 조락에 대하여서만 말할수있다。왜 그런고 하니 그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자료가 없는 까닭이다」(一六〇페지) 라고 보류하였다。이 문제를 해결할 자료는 력사적 환경에 의하여 十월혁명후 쏘베트국가 발전의 경험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으로써 쓰딸린에 의하여 천재적으로 일반화되었다。

엥겔쓰에 의하여 서술된 공산주의조건하에서의 국가조락의 공식을 해명하면서 쓰딸린은 제十八차당대회에서 이 고전적 공식은 만일 고찰하기 편리하기위하여 나라와 국가를 국제적 환경에서 미리 고립시켜놓고 다만 나라의 내부적 발전의 견지에서만·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사회주의가 세계각국에서 승리되었거나 혹은 대다수국가에서 승리된 조건에서만 옳은것이라고 교시하였다。그러나 만약 단독적으로 한나라에서만 사회주의가 승리하였으며 또한 국제적 환경에서 아무리하여도 분리되기 불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엥겔쓰의 공식이 적용되지않는다。쓰딸린은 말하였다—「그리하여 여기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운명에 대한 엥겔쓰의 일반적 공식을 사회주의가 단독적으로 한나라에서 승리된 개별적 구체적 경우에 응용치 말아야 할것이다。이 나라는 그 주위에 자본주의 포위가 있으며、이 나라는 외부의 군사적 침공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이 나라는 이렇기 때문에 국제적 환경으로부터 격리될수 없으며、이 나라는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적 전취의 보호를 위한 가능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잘 훈련된 군대와 잘 조직된 정벌기관과 튼튼한 정찰부를 반드시 자기관할하에 가지고 있어야될것이니 즉 충분히 강력한 자기의 국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것이다」(로동당출판사판「레닌주의의 제문제」제三권四八一—四八二페지) 그러면 이러한 조건하에서 국가조락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쓰딸린은 대답하였다—만약 자본주의포위가 청산되지 않고 만약 외부의 군사적 침공의 위험이 퇴치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공산주의 조건하에서도 존속할것이다。그러나 만약 자본주의적 포위가 청산되며 만약 그것이 사회주의적 포위로 교대된다면 물론 국가는 존속하지않고 조락될것이다。

국가에 대한 리론의 문제에 있어서 레닌이 미완성한것을 쓰딸린이 완성하였다。

「쓰딸린은 쏘베트사회주의국가가 자본주의적 포위의 조건하에서 二十년 이상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경험에 근거하여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완전무결하고 종결된 학설을 창작했다。 쓰딸린은 사회주의국가의 발전계단들과 환경의 변경과 관련된 그 국가직능의 변경을 세밀히 분해하였고 쏘베트국가건설의 모든경험을 종합하면서 만일 자본주의적 포위가 계속 존재하게되는 경우에는 공산주의 조건하에서도 국가를 보존하여야할 필요성에 대한 결론에 이르렀다」 (「쓰딸린략전」一七八—一七九페지)

공산주의 시대의 국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의 쓰딸린의 리론적 론단으로부터 사회주의국가에 관한 쏘베트인민앞에 제기되는 실천적 과업은 완전히 명백해졌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최후승리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의 전행정에서 사회주의국가를 부단적으로 공고화하는 과업이다。 이것은 쓰딸린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발전의 변증법적 과정의 리론적 총화에서 흘러나온것이다。 쓰딸린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레닌의 기본명제를 더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국가의 필연적 조락은 국가주권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그를 최대한도로 강화시키는 방법으로써 진행된다고 가르쳤다。 사회주의 국가를 강화하는것은 공산주의 사회건설사업에 있어서의 력사적 파업을 수행하기 위해서와 또한 외부의 제국주의 국가측으로부터의 침공에서 사회주의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사회주의국가가 외적에 대한 전세계사적 승리를 획득한 一九四一년—一九四五년의 위대한 조국전쟁은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맑쓰—레닌주의학설에 있어서 귀중한 쓰딸린의 기여(寄與)가 쏘베트조국의 생활과 력사적 운명에 있어서 얼마나 거대하고 진실로 구세주적인 역활을 하였다는것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이 풍부한 창조적 기여는 사회주의 국가의 위력한 군사적 방벽이 되는 쏘베트무장력을 백방으로 공고화하며 쏘베트조국의 정치적 경제적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불쉐위끼당과 쏘베트인민의 모든 활동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학리는 그 위력한 원천을 쓰딸린의 저서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더 구체적으로 받았다。

× × ×

三十여년전에 성취한 위대한 十월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레닌의 「국가와 혁명」은 거대한 역활을 하였던것이다。 당시에 레닌은 「국가에 대한 문제는 현대에 있어서 리론적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실천적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있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十월혁명전야에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자본의 기반에서의 자기의 해방을 위

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것을 대중에게 설명해주는 문제로서 가장 절박한 의의」를 국가에 대한 문제는 가지고 있었다。 그후에 세계에서는 많은 근본적 변화가 생겼으며 많은것이 아직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모두 국가와 그의 역활과 긴밀하게 련결되어 있다。 부르죠아국가들은 인류에게 무한한 고통을 주었으며 근본적으로 부패하였고 몰락할 운명을 가진 그의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데 중요한 역활을 하였으며 하고있다。

제二차세계대전의 결과로써 자본주의 세계의 일반적 위기는 첨예화되었고 그들의 력량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 력량은 거대하게 장성되었다。 제국주의 반동의 공격은 현재 세계의 근로자들과 모든 민주주의 력량의 강력하고도 조직적인 반항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정치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는 종전보다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지고 이 투쟁의 중심점으로되었다。 누구의 손에 국가주권이 있어야하며 어떻게 그것이 조직되어야 하는가 하는 국가주권에 대한 문제는 압도적 다수의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더욱 첨예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떠한 힘으로도 변경시키지 못할것이다。 우익사회주의자들과 기타 모든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은 소위 「조직된 자본주의」「초제국주의」「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전환」「민주주의」등의 「리론」을 되풀이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레닌—쓰딸린에 의하여 리론적으로 론박되었고 실생활과 특히 최근 三十여년간의 경험으로써 배격되었다。 그들의 「리론」의 반동적 반혁명적 반인민적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위선적, 기만적 구호밑에서 부르죠아주권과 그의 국가기관의 필연적 붕괴를 구하여 내려는 시도에 불과한것이다。 여기에서 국가에 대한 문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대중의 혁명적 관계를 대중이 옳게 인식하는것은 첫째가는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현재 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진행되는 정치생활에서 레닌과 쓰딸린의 국가와 혁명에 대한 리론의 정당성이 더욱 증명된다。 특히 그것은 동, 동남구라파의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의 창설과 발전에 관련된다。 이 국가들은 제二차 대전기간에서와 전후기간에 조성된 특수한 조건하에 발생하였다。 이 조건의 특수성이란 그 사회의 경제적 본질과 그의 정치적 형태방면으로부터 인민민주주의국가 자체의 특수성이 규정되는것이다。 그러나 쏘베트동맹의 세계사적 경험이 인민적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형태 창설에서와 이 새로운 국가형태의 그후의 성과적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역활을 한것은 물론이다。 물론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국가형태는 쏘베트공화

국과 구별된다。이 사실은 레닌의「국가와 혁명」에서 지적한바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전환은 그것이 실행되는데 있어서 다양한 정치적 형태를 가지지 않을수없다는 명제에 비추어보면 명료한것이다。

세계에서 인류는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향하는길에서 국가에 대한 맑쓰―레닌주의 학설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신하며 이 학설이 인류를 모든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것을 확신한다。그러므로 레닌의 저서「국가와 혁명」은 현대에 있어서 거대한 동원적 조직적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다。

레닌의 천재적 저서「국가와 혁명」과 함께 국가와 혁명에 대한 쓰딸린의 로작들은 맑쓰―레닌주의의 견고한 리론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맑쓰―레닌주의당들이 자본주의를 전복하며 인류를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위대한 길에 승리적으로 인도하는데서 정확한 지침이 되는것이다。

당 생 활 보 도

당세포핵심―열성자들과의 사업경험

당세포핵심―열성자 양성사업에 있어서 우선 그들을 선발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기되였다。그러나 리원군당단체는 초기에 있어서 이 사업에대한 구체적 연구가 없이 그 선발사업을 세포에 일임하였기때문에 당세포핵심―열성자 양성사업이 당중앙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우리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 이후 리원군당단체는 이러한 결함들을 신속히 시정하기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우선 군당간부들의 직접적 지도밑에 당원들의 정치리론수준과 사업에 대한 열성등을 심각히 검토한 기초위에서 세포핵심―열성자를 선발하는 사업에 깊은 고려를 돌리였던것이다。

이러한 사업행정에서 몇가지 결점들이 발견되었다。그 실례로서 어면세포에서는 당세포핵심―열성자당원은 세포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하는 특별한 조직인것처럼 인식하였으며 또 일부세포에서는 그들을 당세포에서 중추적 역할을 노는 당단체의 골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과소평가함으로써 그들에게 사무적인 사업만 분공하여 준다든가 지어는 련락원으로 간주하는등 그릇된 현상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점들을 시급히 시정하기 위하여 군당상무위원회는 당세포핵심―열성자들의 사업정형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당열성자들과의 사업에서 그릇된 경향을 시정하기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세워 군당위원장의 직접지도밑에 이 사업을 추진시킨결과 사업에서 많은 개변들을 가져온데서 몇가지 실례를 들면 다음과같다。

첫째 군당부가 직접지도한결과 당사업이 비교적 락후한 리원면 어떤 농촌 세포핵심―열성자 당원들은 당원들의 그릇된 행동과 지도기관들의 침묵의 회적 회의진행을 묵과하며 사업분공을 계획적으로 하여주지않는 즉 자기역할을 다하지못하는 세포위원회의 사업작풍에 대하여 열렬히 비판 하였으며 전체당원들이 토론과 당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다。그리하여 오늘 이세포는 당원들이 세포총회에 참석하는 비률이 六〇%정도로부터 九〇%정도까지 높아졌으며 세포회의의 정치사상적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둘째 당세포핵심―열성자들이 당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함에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서면 어면세포는 一九四八년 상반기까지만 하여도 세포학습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특히 세포간부들이 당정치교양사업에대한 자정조차 부족하였다。그러나 당세포핵심―열성자들을 군당부에서 직접지도한결과 그들의 역할은 점차 제고되어갔다。이에따라 세포에서 학습을 게을리하는 경향들에대한 비판과 자기비판이 열렬히 전개되는 한편 세포핵심―열성자들 자신이 열성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전체당원들의 학습열을 고도로 제고시켰다。

셋째로 국영라흥제철소와 리원광산에 있어서 전체종업원들의 고귀한 애국적 열성속에서 솟아나온 고도로되는 생산의욕을 제때에 포착하여 이를 계획적으로 조직동원 함으르써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 예정숫자의 초과완수들 협조보장하는 투쟁에서 당단체는 커다란 역활을 하였다。 국영라흥제철소의 주강계는 이 공장계획 실행의 중심이었는데 주강계의 부분적인 당원들이 사업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당세포쟁활을 태공함으로써 一九四八년도 二·四분기까지는 기계고장과 사고로 인하여 사업에서 적지않은 지장을 주었다。 그러나 당세포의 강화와 동시에 세포에서 중추적역활을 노는 세포핵심—열성자들의 역활을 높임에 주의를 돌리었으며 그를 계획적으로 지도하고 당내에서 비판과 자아비판을 일층강화하여 타후한 사상적경향및 무책임한 경향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한 결과 八·一五 三주년 기념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경축증산경쟁운동에서는 열성당원인 김재원동무는 개인책임량 四一三%까지 제고시킨 사실을 비롯하여 전체당원들이 계획량을 초과완수하였으며 리원광산에 있어서도 채광계세포의 열성핵심 당원인 윤도성동두는 계획에대한 二〇三%의 성과를 거두었다。 당열성자들의 중심적역활은 一九四八년도인민경제계획을 라흥제철소는 一九四·五%、리원광산은 一八五%로써 각각 승리적으로 초과 완수하였다。 二월에는 계획의 一二六·七%를 달성하여 매월평균 一〇二·三%의 높은 성과를 내고있다。

이상 몇가지 실례에서 보는 바와같이 당세포핵심—열성자들의 역활을 높임으로써 적지않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군당단체는 열성당원들의 역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도간부들은 직접 그들의 사업을 지도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성과가 있다하여 리원군당관하의 열성당원들의 역활이 당중앙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는것은 결코아니다。 아직도 군당관하의 열성당원들의 사업에는 시급히 퇴치하여야할 결함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첫째 일부 세포들에서는 아직도 당세포핵심—열성자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세심히 연구하여 그의 능력에따라 실질적인 세포사업을 분공하여 주지못함으로써 그들이 자기 역활을 충분이 놀지못하는 현상들을 볼수있다。

둘째 모범적인 당세포핵심—열성자당원들의 활동정형과 그가 수행한 사업상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며 이를 본받아 자기사업을 개선시키는 사업이 극히 미약하게。진행되고 있다。

셋째 당사업 집행과정에서 재로 장성하는 열성당원들을 양성보충하는 사업이 정상화 되지못함으로써 그들이 공작장 이동이되는 경우에는 그를 보충못하고 있는 관계로 세포사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지 못하고있다。

오늘 우리 리원군당 지도일군들은 이와같은 결함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세포사업을 당중앙이 요구하는 높은 정치적 수준에 까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포열성당원을 선두로한 세포지도사업을 더욱 가강히 할것이다。

(리원군당위원장 김 상 해)

국제보도

찌또도배는 북대서양 조약의 숨은 옹호자이다

홍아리 근로자당 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
레바이·이오세프

미제국주의자들의 지도밑에 만들어진 북대서양군사쁠럭과 전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평화운동—바로 이것이 현 국제정세의 가장 뚜렷한 두 특징이다。 로동계급의 반역자인 유고슬라비야의 민족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온갖 수단을 다하여 북대서양조약에 대한 자기들의 렵장의 규정을 지연시키려고 애쓰고있다 할찌라도 이것을 부정할수 없는것이다。 그들은 일방으로는 유고슬라비야 로동계급과 전인민앞에서 찌또와 그의 도배가 반제국주의자들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듯이 가장하며 또 타방으로는 경제적 정치적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감정을 장하지않도록 하는것을 필요로 하고있다。 유고슬라비야의 출판물은 이 지렌마를 다음과같이 해결하였다。 즉 유고슬라비야의 출판물은 광범한 국제여론과 다른나라의 공산당측으로부터의 직접적 비난의 압력밑에 최근에야 겨우 북대서양조약을 제국주의적 조약이라고 가볍게 입으로는 부르짖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로 인민민주주의국가와 평화전선의 지도자인 쏘련을 반대하는 비방운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다시말하면 찌또와 그의 도배들은 전쟁준비를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위임한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는 한편 자기인민들앞에서 자기들이 이러한 범죄적현장(現場)에 없었다는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유고슬라비야의 뜨로쯔끼적 모험주의자들은 분업에 의거하여 제국주의 전쟁방화자들과 함께 북대서양조약의 사장적변명에 참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베빈과 블룸과같은 우익사회주의적 앞잡이와 미꼬라이치끄와 나드·뻬렌쯔와 같은 부농앞잡이와 미드센티 및 베·가스뻬리와 같은 카롤력크승려앞잡이와 드·골과 같은 팟쇼앞잡이들을 가지고있으나 또한 공산주의의 옷을입고 출연하고있는 앞잡이들도 필요한것이다。 그들은 찌또또배를 그러한 앞잡이로서 획득하였던것이다。

워싱톤의 평론가 호—그·골르는 一九四九년一월六일에 언명하기를『그 수반에 정통적 공산주의자들이 서있고 서부와의 더욱더 긴밀한 경제관계를 확립하고있는 유고슬라비야의 실례는 국제적 중요성을 띨수있다』—라고 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찌또와 그의 모배들『정통적 공산주의』에대한 정신적 거중이라고 자칭하고있다。 왜냐하면 이는 오직 찌또가 더욱더 제국주의자들의 주요충인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유고슬라비야의 반역자들의 무기고로부터 빌어내온 사장적 론증들은 쏘련과 인민민주주의들/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데마선전에 있어 더욱 커다란 역할을 차지하고있다. 침략적 북대서양쁠럭의 창건자들은 특히 쏘련을 침략자로서 허구선전하고 자기자신을 약자의 방위자처럼 분식하려고 애쓰고있다. 찌또와 그의 도배들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그들을 열성적으로 도와주고있다. 다름아닌 유고슬라비야부외상 베브레르는 오지리의 평화조약 심의시에 미국의 립장을 단호히 반대하는체하면서 자본주의적 출판물 대표들에게 보도국의 유고슬라비야들 반대하는 공격은 강화될것이라는것을 언명하였었다. 찌또도배는 매일같이 자기들의 출판물을 통하여 쏘련을 반대하는 이러한 선동적 비방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자는 공산당과 그외 국제적관계에 관하여 일찌기 반콤민페른조약의 발의자인 파시스트들이 말하였고 또 현재 북대서양쁠럭의 고무자들이 말하고있는것과 꼭같이 말하고있다.

보도국의 공격에관한 찌또도배의 선동은 모든 제국주의 진영에 유용한 것이다. 이렇듯 유고슬라비야의 반역자들은 쏘련과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침략적 의도에 관한 거짓말을 전파하면서 북대서양조약에 서명한 제국주의자들을 도와주었다. 베브레르의 언명은 그의 개인적 우연한 발언이 아니다. 이는 유고슬라비야반역도배의 계획적이고 미리 생각한 정치적 로선인것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세르비야공산당대회에서의 찌또의 연설에도 증명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쏘련으로부터 『침략위협』을 허구선전하면서 세계재패에대한 자기들의 지향으로부터 인민들의 주의를 돌려버리도록 애쓰고있는것이다. 찌또는 자기의 거짓말로써 제국주의자들을 조급히 도와주고있다. 즉 그는 거짓말하기를—공산당과 그의 도배간의 충돌의 원인은 마치 인민민주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평등권에 의거하여 설정하지않고있는 쏘련의 탓이라고 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마—샬안과 북대서양조약에 의하여 전세계를 침략하려고 애쓰고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동맹국을 예속국으로 전화시키고 그들의 국가적 독립을 박탈하고있다. 찌또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며 유고슬라비야를 위협하는것은 마—샬주의자들 측으로부터의 식민지화 위험이 아니라 쏘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측으로부터의 식민지화위험이라는것을 허구선전하면서 그들을 조급히 방조하고있다.

물론 세르비야공산당대회에 있어서의 찌또의 비렬한 비방은 『정통적공산주의자들』이 제국주의적 악랄한 데마선전을 도와주는데 봉사하였을 뿐만아니라 유고슬라비야를 더욱더 월스트리트의 식민지와 예속국으로 전화시키고있는 유고슬라비야공산당지도자들의 반역정책으로부터 유고슬라비야의 근로자들의 주의를 돌려 버리도록 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찌또출판물들은 유고슬라비야인민들로 하여금 긴밀한 경제협조정책, 통상조약의 정책 및 외국자본가들에게 대한 손해보상정책이 쏘련파 인민민주주의국가가 자본주의국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제정책과 판이하지않다는것을 설복하려고 발악적인 시도를 하고있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거짓말쟁이들은 말하기를—홍아리나 또는 파란이 영국과 또는 미국과 통상을 할수있다면 따라서 유고슬라비야도 할수있는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인민들을 이렇게 속이는 직업적 사기한들은 례컨대 영국—유고슬라비야통상조약이 영국—홍아리통

상관계가 중단되었을때에 체결되었다는데 대하여서는 말하지않고있다. 그들은 영국이 미국의 명령에 의하여 인민민주주의국가에 대한 자기들의 통상관계에 있어서의 금지품의 명부를 확대하고있으나 유고슬라비야에 한하여서는 수출금지가 무효이라는것에 관하여서는 침묵을 지키고있다. 그런고로 여기에 있어서는 유고슬라비야나 인민민주주의국가를 위하여 동일한 일반적 정상적 통상관계에 관하여 운운하고 있는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찌또도배를 정치적으로 지지하고있다. 그런고로 그들은 경제적으로 자기의 침략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과 매매를 빈번히 하고있다. 미국이 공작기계도 전략상품이라고 선언하고 쏘련과 인민민주주의국가에게 이를 판매하는것을 금지하고있을때 유고슬라비야가 미국에 대하여 증대하는 수량의 동, 연, 아연, 크로—므 및 기타의 전략원료들을 제공하고있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통상관계라고 할수있겠는가?

제국주의국가들과의 자기들의 정상적 경제관계에 관한 유고슬라비야반역자들의 위선파 허언은 헛일이다. 찌또에대해서 그의 동맹국들자신이 폭로시키고있다. 례컨대 잡지 『리뉴—스·위—크리』는 쓰기를—찌또와 그의 도배는 당분간 미국으로부터 기계 및 기타의 상품들을 받고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무기와 비행기를 받을것이다—라고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찌또와 그의 도배를 자기들의 잠세적동맹국으로 인정하고있다. 바로 이런고로 제국주의자들이 제기한 찌또도배의 과업은 결코 쏘련과 인민민주주의국가에 대한 악랄한 데마선전을 도와주는데에만 제한되어있지않는것이다. 그들의 과업은 대단히 란포하고 물질적인 과업이다. 그 과업은 당분간 동남구라파의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을 불안케하고 어느정도 이를 구속하고 이들국가 첫째로 불가리야, 홍아리 및 알바니야를 위협하는데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자기나라의 내정에 대한 제국주의적 간섭의 장시적 시도를 격퇴하고 있는것이다. 이들국가는 자기들의 민주주의질서의 옹호를 위하고 국내에서의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의 음모와 반동적인 파괴행동을 반대하는데 모든 주의를 집중시켜야한다. 이러한 때에 찌또도배는 장시적선동과 국경사건과 때타주의적 데마선전으로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을 불안케하고 이들나라의 경각성과 힘을 돌려버리려고 시도하고있다. 례컨대 미드센티의 판결공판으로서 홍아리를 반대하는 야만적인 악랄한 데마가 벌어지고있었을때 유고슬라비야의 정부와 출판물은 즉시 구실을 ■고 이 제국주의적인 합창에 참가하였던것이다.

그렇다면 희랍민주주의정부가 재조직을 하고있을때 마침 국제자본주의 출판물들이 찌또도배와 희랍 왕당파시스트들과의 접근을 보도하였던것은 우연한 일이였을까? 홍아리의 판결은 다음파같이 말하고있다. 『불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라고 찌또도배와 짤다리스간의 공개적인 접근이 있는가 없는가—바로 불가리야와 알바니야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찌또도배의 부단한 악랄한 데마선전이 사실에있어 그들의 협조를 증명하고있다.

유고슬라비야 찌또도배의 민족주의는 어떠한 추상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며 또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대한 민족적 국한성의 단순한 패렬이 아니라 옛때 (大)세르비야배타주의의 전통의 계속이며 그의 리용인것이다. 불가리야와 홍아리

에 대한 악랄한 데마선전은 마치 숙적(宿敵)에 대한것과 같이 수행되고있다。이러한 악랄한 데마선전은 지금에 있어 사회주의적 가면으로 거의 엄폐하고있다。보에보진에 있어서의 옛날의 반홍아리 배타주의를 선동하기 위하여 세투비야공화국의 수상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고있고 홍아리인민민주주의가 마치 배타주의와 령토적요구를 가지고 있는듯이 비난하고있다。찌또도배는 불가리야를 반대하는 마게도니야문제에서도 그러한 립장을 취하고있다。

영국보수당신문『오브저—버—』지는 최근 다음과같이 썼다。『찌또는 보도국과 관계를 끊었을때부터 이때까지 인기가 좋지못하였던 세르비야에서 커다란동정을 받고있다』—라고 찌또는 사실 세르비야배타주의자들의 동정을 얻었다。호르와찌야、츠르노고리야(몬테네그로)、마게도니야 또는 홍아리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있는 보에보진에서의 란코비츠도당들의 특별한 테로는 우연한것이 아니다。바로 이『오브저—버—』지가 바치크 및 마나트의 홍아리주민들 사이에서의 찌또 및 란코비츠도배의 행동은 테로적성격을 띠웠다고 증명하였다。『오브저—버—』지가 말하고있는바와같이 물론 이 배타주의정책이 현재에 있어 찌또로 하여금 자기의 옛날의 적들을 자기쪽에 끌어넣게하는것이다。즉 그가 이전에 배타주의를 가지고있었던 계층과 계급에 의거하게하는것이다。

홍아리의 라디오방송관리국은 유고슬라비야로부터 수천통의 편지를 받고있다。이 편지에는 란코비츠도당이 체트니크와 우스타쉬(바르칸반도의 팟쇼단체의 단원들)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유고슬라비야의 국가보위국이 체트니크와 우스타쉬들을 채용하고 있다는것에 대한 불평이 씌어있다。『十五명이 서명을 한』편지에는『유고슬라비야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이 아니라 히틀러식 민족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라고 씌어있다。오시에크로부터의 로동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소위 직업소개소장에는 열렬한 우스타쉬 사라포가 임명되였는데 그는 뢰물에따라 여러가지 직업을 주는것이다。』노비·사드로부터는 다음과같이 쓰고있다。『독일의 극단한 팟쇼단체 에스·에스의 단원이였던 카르로가 현재에 있어서는 국가보위국의 부국장이다』편지에는 범죄적인 찌또—란코비츠의 근위대들이 근로자들을 회쟁으로하여 부유하게 살고있다는데대한 격분이 일관하고있다。례컨대 자그레브로부터의 편지에는 다음과같이 씌어있다。—『장교는 빈궁한 로동자들이 —년간에도 받지못할만한 신탄과 식량을 매월 받고있다。찌또와 그의 친위병들이 너너한 생활을 하고있으나 로동자들은 한리트로의 우유에 대하여—四백디나르、한 키로의 맥분에 대하여—一백五十디나르、한개의 비누에 대하여—六백디나르를 지불하지않으면 아니된다。』노비·사드로부터의 편지에서 젊은 로동자들은 다음과같이 쓰고있다—『유고슬라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것은 사회주의에 통하는것이 아니라 뢰물국가에 통하고있는것이다』자그레브로부터의 편지에는 다음과같이 씌어있다—『그들은 근로자들을 집에서 내쫓고 자기사람들을 이사시키고있다』편지의 재소식에는 현재 찌또도배가 공산당원들을 박해하는것만을 비난하는것이 아니라 찌또도배의 반인민적 반로동자적 행동을 설명하고 빈민에게 대한 그의 무관심을 폭로하고 대중과 그의 국가기관의 무관계를 비난하고 찌또도배가 근로자들을 반대하여 돌아섰다는것을 말하고

있다는데있다。바리니야로부터의 서한에는 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우리들을 련속적인 돌격작업에 파견하고있다。우리들은 굶주리고있다。내가 어데서도 이에 관하여 감히 말한다면 나를 반란자라고 말한다。그러나 위(胃)가 격동하고 나와 나의 자식이 누더기를 입은탓으로 수치스러울때에 어째서 우리들은 반란하지 않겠는가』

끝으로 나는 매수당한 유고슬라비야의 테로적 배타주의적 국가기관이 빈농을 희생으로하고 부농과 협작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서한을 인용하겠다。

오시에크로부터의 서한에는 다음과같이 쓰고있다。『우리들에게서는 때를 들면 부농을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온갖 특전을 부여하는 일이 발생하고있다。빈농에게는 여러가지 곤난의 원인을 지어주고있다。부농들은 二개월간의 삼림봉사작업에 갈 필요가 없으나 빈농은 가야된다。만일 빈농이 가지않으면 三만디나르의 벌금을 받는다。현재 바로 이와같이 인민정권이 령세농(零細農)에게 대하고있다』

이렇듯 유고슬라비야의 반역자들인 찌또도배가 국제프로레타리아사회주의전선에의 반역행위를 유고슬라비야근로자들의 일상적리익에 대한 경멸적인 귀족적태도와 결부시키고있고 이렇듯 제국주의자들의 동맹자는 자기인민들에 대한 착취자와 압박자로 또한 착취계급의 부양자와 동맹자로 되고있는것이다。

쓰딸린과 쏘련과 평화전선에 충실한 유고슬라비야의 공산당원들은 찌또도배와 투쟁하면서 비단 국제주의의 사상의 옹호자로 될뿐만아니라 자본주의의 재흥을 준비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충복도당인 매수된 찌또도배의 테로독재를 반대하는 유고슬라비야의 보통사람 즉 로동자 및 근로농민들의 일상적 옹호자로 되고있다。

비평과 서적해제

「조선근대사연구」(저작자 리청원・조선력사편찬회발간)

김 승 화

(一)

민주조선완전자주독립을 위한 투쟁과 력사과학상의 투쟁의 결합을 위한 과학전선(科學戰線)에서의 투쟁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력사과학의 비판은 과거를 정당히 비판하여 그것으로써 현재를 인도하며 미래를 판정한다。

남북의 상이한 정세하에 남조선에서의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리승만、김성수등 반인민적 반동매국노들의 배족적음모는 오늘 사상전선에서의 투쟁을 더 첨예화시키고 있다。

과거 일제통치시기에 일본침략가들은 조선력사를 의곡하여 「고대조선에서 일본족이 지배하던 국가(日本府라고)가 있었음으로 일본과 조선의 합병은 력사의 귀결이다」(일본해군대학교수 미지나쇼에이—三品彰英)라고 하였으며 「조선고대국가 고구려、신라、백제는 일본지배하에 있었다」(경성대학 오다쇼고—小田省吾、나가와 히로시—那河博…일제의 모든 교과서에도)고 까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배족적 소위 민족력사가들 즉 최남선(崔南善)등은 조일동조론(朝日同祖論)을 선전하여 일제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를 합리화시켰던것이다。

배족적으로 력사를 의곡한 최남선은 비단 일제의 주구로서만 아니라 오늘 미제의 주구로서 엄숙한 해방사(解放史)까지 의곡하고있다。 그가 일제의 침략도구로 출판한 「조선력사」의 뒤에 다시 미제의 침략의 사상적 도구로되는 「독립운동의 경과」라는 것을 첨부하였다。

거기에는 무엇이 씌어있는가?

첫째로 三・一운동당시 민족주의자들로 형성되었으며 그후 반동집단으로 화한 소위 「상해림시정부」는 마치 조선민족을 대표하였으며 조선민족의 리익을 옹호한듯이 분장하였다。

둘째로 조선해방에대하여 미、영、중、세나라만이 주장하였고 또 그들만이 조선을 해방시켰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력사의 의곡은 날로 심하여지고있다。 즉 그들은 례하면 미국 넬손등은 력사발전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선의 과거력사를 정당히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가 과거에 돌아가리라는 것으로 관정한다。 이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그들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조선이 옛식민지와 같은 처지에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지으려는 것이다。

넬손은 자기의 저서에서 조선의 일본식민지화가 조선인민의 자원(自願)이였다고 서술하였다。 이것은 그가 오늘 남조선을 식민지화하는것이 조선인민의 자원인것처럼 만들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서술하는것이 필요할것이다。—(이는 실지에 오늘 리승만의 매국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그는 미국이 력사적으로 조선을 방조하였다는 것을 론증하며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오늘 식민지화정책을 감행하면서 「원조」, 간판을 걸고있는것을 력사적으로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미제의 지배하에있는 남조선 력사교육의 기본으로 되고있다。

오늘 반동과의 투쟁이 우리의 기본적 투쟁임무로 되고있는 환경에서 조선의 과학적 력사가들은 이러한 반동사조(史潮)와 격렬하게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발전이 미약한 우리의 조건에 있어서 진보적인 방향에 섰다할찌라도 완전한 과학적분석이 못되는것들이 많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력사적사실을 정확히 분석하며 비판하는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 투쟁의 승리는 과학상에서 낡은 민족주의적、비과학적견해를 일소하고 맑쓰—레닌주의적 과학적 력사관에 의거한 조선인민사의 연구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며 특히 일제의 강압으로 자기의 인민사를 조금도 알수없었던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과학적조선인민사를 서술하여 인민의 력사를 광범한 인민이 모두 인식하게하는데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력사는 고사(故事)소설과 신화(神話)를 황조(謊造)한것이 아니며 소수인의 흥취적음악(興趣的音樂)이 아니라 그는 인류가 그 생활의 장기간 투쟁중에서 사회경제형태가 발생하며 발전하며 다시 변경되는 계속적 제과정인것을 안

다。려사는 결코 인간 감정의—진、선、미(眞、善美)—의 진화과정의 유아한 목가(幽雅한 牧歌)인것이 아니라 인류생활의、투쟁 및 그 혁명적 실천이며 사회발전을 추진시키는 일관한 전면적 기술(記述)인 것이다。그러므로 려사는 그자신 평화적 진화의 자연발생적 운동에 종속되는것이 아니라 인류생활투쟁속에서 발생하며 발전하는것이다。그리하여 려사과학은 인류생활투쟁의 실천과 그 발전을 설명하는것을 임무로하는 현실적 및 실증적 혁명과학이다。려사는 결코 추상적개념 혹은 형식적범주의 산물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그는 인류사회발전의 모든 법칙과 구체적 현실인것이다。

우리는 인류사회발전의 법칙을 알아야하며 추상적개념과 범주에서 려사를 탐구하는것이 그릇됨을 알아야한다。

맑쓰가『지나온 과거의 사회려사는 모두 계급투쟁의 려사이다』라고 말한바와같이 려사에는 계급성이 있다。그러므로 과거의 려사학자들이 서술한 또는 비판한 려사는 모두 자기계급적립장에 서있었던것이다。고로 려사학은 필연적으로 그 사회에 포함된 각집단의 계급적 제한성을 가진 과학이다。

려사과학은 그 선행시대(先行時代)의 제사실의 분석과 비판이 중요한것이며 동시에 그에 반영된 현사회에 존재하는 적대적 제종(諸種)경향과 그 의식형태를 분석 비판하는것이 중요하다。그러므로 그 일체 려사적사실을 분석 혹은 비판함에 있어서 그는 반드시 직접 일정한 계급적립장에 의거하며、부동(不同)한 상반적 인식이 나오게된다。여기에서 려사과학문제 또는 려사방법론문제에 관한 치렬한 투쟁이 제기된다。이 투쟁은 필연적이며 반드시 당면한 투쟁에 반영되며 모두 단연코 그 려사가 자신들의 계급성을 투쟁중에서 철저하게 폭로하게된다。

려사과학 혹은 려사방법의 투쟁은 다만 려사가대(對)려사적 발전의 인식과 그에 반영된 의식형태의 투쟁뿐만 아니라 그에 반영된 적대적 사회제집단과 현실생활의 기본적 방향의 투쟁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개의 철학문제이며 리론적문제이며 또 한개의 현실적 정치문제이다。

이 투쟁은 정치상투쟁에 비하여 더 심각하다。거기에 그의 심오한 곳에 음장(陰藏)되어있는 암실리적(暗室裡的)일종의 적대적음영(陰影)이 있으며 그 배후에는 모든 일정의 집단 혹은 일정의 계급이 있게된다。그러므로 새려사과학은—비법적유물론의 거화(炬火)로써 그러한 은폐된 려사과학령역내의 제대립적경향을 조명(照明)하여 내어야하며 거기에 있는 일정한 계급적립장에서 근로대중과 대립되는 그 음영(陰影)을 소멸해 버

리며 그리하여 려사법칙을 파악하고 자기소유의 계급성、전투성、실천성、련관성에 도달하여 려사과학을 소위 현학적(衒學的)인간들의 수중에서 탈회하며 대중 및 일체 피압박인류의 혁명투쟁의 지도원리로 하여야한다。

이와같이 려사과학은 계급성을 가진 과학이다。그러므로 가장 진보적계급을 제외하고는 어떤 계급이든지 려사에 진정한 과학적 인식을 줄수없다。물론 봉건주의려사가 또는 자본주의려사가들이 인류사회발전과정의 려사적리해에 대하여 모두 그 자기자신의 예속된 계급적 의식의 한계내에 국한되며 따라서 그들의 려사는 다만 지배계급 혹은 민족의 승리의 기술이고 피압박계급 혹은 민족고통(苦痛)은 그 일면도 표현치 않는다。

려사과학의 임무는 어떤 민족 또는 계급의 승리의 송가(頌歌)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승리 민족 또는 계급의 려사적 경우를 반드시 지적하여야하며 그와함께 사회 각민족과 각계급간의 생활충돌의 근본적 기초적 원인을 폭로하며 현재의 피압박민족 및 계급에 일개의 가장 심각한 려사적교훈을 주어야하며 그들이 가진 과거려사의 실패의 원인에 적용하여 그 해방투쟁의 경험으로 취하여야한다。

려사연구는、어떤 선조를 선양(宣揚)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려사발전법칙을 구명하며 그로써 장래발전을 제시하기 위한것이다。려사를 설명하기위한 려사연구가 아니라 이와 반대로 려사변혁을 위한 려사연구이래야 한다。

맑쓰—엥겔쓰는 모르간의 저서「고대사회」의 연구에 노력하였다。그들은 인며안의 씨족사회、희랍로마의 노예소유자사회、게르만인의 봉건주의를 연구하였는바 그 목적은 현존한 각종 부동(不同)한 정도의 계급사회형식연구에 있었고 과거 몇천년내지 몇만년의 원시인류 이해와 사회발전법칙을 연구하는데있다。그들의 연구의 결과에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던바 사유제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계급사회는 영구불변의 체제가 아니라는것이고 그 이전에 무계급적 원시공동체사회의 장구한 려사가、존재하며 경과하였다는 것이다。

계급사회는 인류려사발전의 총행정중에 존재하며 려사발전의『일환(一環)』혹은 일개『단편(斷片)』에 불과하다。그리하여 그는 려사의 발전에 따라 소멸되는것이라는것을 밝히었다。

맑쓰—엥겔쓰는 사유재산 및 계급과 국가의 기원의 필연성과 그가 인민을 억압하는 무기라는 것을 강조하였다。그들은 려사적법칙을 심각히 인식하였고 창조적 새철리적 사회제도의 려사적사명을 견결히、보지하였다。

그리고 엥겔쓰는 독일농민정쟁의 연구에 노력하여 독일농민혁명의 과거를 설명할뿐만 아니라 로동계급의 동맹자로서 연구하였다。—농민문제의 의의—이외에 맑쓰—엥겔쓰가 저술한 「공산당선언」、불란서혁명이후 「불란서에서의 계급투쟁」、그리고 맑쓰의 「자본론」、레닌의 「로씨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발전」、「자본주의의 최고계단으로서의 제국주의」、쓰딸린의 「레닌주의의 제문제」、「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들은 력사발전의 각단계에서 발현되는 혁명투쟁의 법칙성이 아닌것은 하나도 없다。특히 쓰딸린은 맑쓰—엥겔쓰—레닌의 과학적 창작들을 총화하여 간명히 서술한 맑쓰—레닌주의의 백과사전인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를 저작하였다。이로써 쏘베트인민과 전세계프로레타리아트는 혁명적으로、전투직으로 교양되고있다。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은 각 력사계단에서 인류력사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으며 사회발전법칙을 제시하였으며 그는 다만 과거의 력사를 설명할뿐만 아니라 실제상 현재의 피압박인류의 투쟁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이상에서 력사과학의 일반적임무에 대하여 약간 지적하였다。

이제 우리조선력사과학의 당면한 임무는 무엇인가? 그는 우리조선의 구체적 또는 특수적 환경에서 일반적 력사과학임무에 근거하여 조선력사과학을 발전시키는데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해방된 조선인민에게 자기의 력사를 과학적으로 인식시켜야하며 (그러기위하여서는 과학적 인민적 력사교정을 저작하여야한다) 그로써 지나온 력사행정에서 일제나 기타 침략주의적 또 그릇된 반동적 민족주의적 잔재를 력사과학상에서 숙청하여야한다。이 투쟁은 력사과학을 오직 맑쓰—레닌주의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의 진보적 력사가들은 적지않은 노력을 하고있다。

× × ×

이에 나는 우리가 가지고있는 성과의 하나인 리청원동지의 「조선근대사연구」에 대하여 론급하려한다。

「우리는 선행자들의 성과위에서만 진일보(進一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그러므로 독자제씨(여기서는 나도 그 한사람이다—필자)의 본서에 대한 기탄없는 비판을 기대하며 이와같은 광범한 대중토론에 의하여서만 조선력사의 과학적건설의 거대한 전진과 발전이 약속될것이다」라는 리청원동지의 말씀과 같이 나는

첫째로 조선력사과학의 당면임무의 실천을 강조하며 조선력사가는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말하려한다。그리고 적지않은 력사서술들이 출판되어 적지않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단편적인 론문에 국한하였고 이미 얻은 성과를 종합하는 비판적 연구는 하나도 없었다。이는 조선력사가들이 적지않은 노력은 하였으나 보다 높은 발전은 가져오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하는 것이다。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내각결의로 「근대사」를 편찬할것을 결정하였다。지금 그의 결정을 받들어 력사가들은 그의 실행에 노력하고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당면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나온 성과를 총화할 필요를 가진다。

둘째로 비록 성과는 적지않으나 리청원동지의 저서에서 그릇되었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지적하며 조선력사과학의 발전에、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하는 바이다。

(二)

이 저서는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조선민주건설에서 특수적으로는 조선력사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저작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왔다。즉 一九四七년二월七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에 동년三월내로 근대사를 저작할것을 결정하였던것이다。저자는 당시 그 책임의 수위에서 이 저작을 내어놓았던것이다。

이 저서의 성과는 적지않았다。

첫째로 조선에 있어서 근대사를 과학적 방법으로 서술하려는 로작의 하나이다。해방전에 있어서 유심론적 반동사가들은 더말할 필요가없고 진보적 내외사가들중에서 국한된 부분에、대하여 비교적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그러나 전인민사 특히 근대사에 대하여서는 과학적으로 서술된것이 전무하다。

해방후 혁명투사들의 해외에서 혁명운동을 위한 자료연구의 일부가 출판되었으나 그것도 단편적 론문이고 한시대의 력사 근대사가 유물사관적 견지에서 서술된것은 이가 처음이었다。

둘째로 이 저서를 통하여 조선인민앞에 구미(歐米)침략가들과의 경쟁에서 일제의 독점침략에 의한 조선망국과 일제의 야만적 식민지 통치정책을 폭로하였다。이상의 사실에 해당하는 사료(史料)를 풍부히 취급하였고 일제의 살인적 지배를 반대하여 일어나는 반일독립투쟁을 서술하여 지나온 력사행정에서 적(敵)이 누구이며 누가 그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는가를 보이어주었다。

셋째로 해방후 조선인민의 민주교육에 있어서 특

히·국어、력사교육을 중심적으로 강화할것이 요구되는 시기에 이 저서는 력사교육의 참고서로 도움을 주었다。력사교육의 강화를 요구하나 교재가 전무한 조건에서 교원들은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비과학적 서적들을 리용하거나 또는 전연 교수못하는 형편이 닥쳤다면 이 저서가 나온 이후는 그러한 난관을 타개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을 주었다。

넷째로 특히 조선망국에·대하여 과거 반동사가들은「조선은 지리상 량대국의 사이에 있어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던가「조선민족은 력사적으로 약하며 타민족의 지배하에、(그들은 원조라고한다) 있었고 타민족의 지배하에서만·생존할수있다」등등 지리적원인、민족의 렬등 등으로 설명하였다면 이 저서는 一—二장에서 조선망국이 조선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서 규정된것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있다고하여 이 저서가 자외기 사명을 다 수행하였다 함은 아니다。그뿐만 아니라 이 저서는 부분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점이 적지 않다。물론 이것이 교과서로서가 아니라 연구적 저작이라 할찌라도 현조선력사과학이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것이며 그는 취급한 범위내에서의 력사는 변증법적유물론과 사적유물론적으로 정돈되어야 할것이다。그리고 그는 다만 사실의 기술에 그칠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투쟁적으로서 서술할것이며 현실의 제과업과 관련시키며 력사의 장래발전에 대한 전망의 해석및 지적에로 귀결시켜야 할것이다。그리고 취급하는 자료들은 원만히 검열되어야 하며 서술은 정확하게 해명되고 리해하기 쉽게 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에 이 저서에서는 이상의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이제 이 저서가 가지고있는 부분적 오유들과 방법상의 결함들로 된다고 인정하는것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칙적 리론방면에 있어서

첫째 저자는 이 저서의 저술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견해에 서있었다는것을 지적할수있다。저자는 이 저서의 권두에「본서는 전체서술에 있어서 우리들이 생활하여온 근대사를 민족적 관점으로 파악하며……」(동서三페지) 라고 력사의 기본서술방향을 과학적 맑쓰—레닌주의적 관점에 설것이 아니라「민족적 관점」에 서겠다고 하였다。

과학적 력사서술이「민족적 관점」으로서 서술될어서 옳겠는가 하는 문제는 더 론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비록 실지는 그 저술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처

리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결론적 표현은 가장 엄중한 오유로 인정하지 아니할수없다。

저자가 자기저서의 다른곳에서「과학적 리해」라고 언급하였으나 그와「민족적 관점」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민족적 관점」이란 대체 어떠한 의도의 표현인지 알수없다。만일 이것을 무의식적 술어상의 오유만으로 보기로하자。그러나 이러한 오유는 그곳에 한하지 않았다。저자는 곳곳에서 일본 또는 일제를「倭奴」라고 표현하였다。물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민족의 불구대천의 적이며 한없이 증오하여야할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정당하게 일본 또는 일본제국주의자라고 불려야 할것이다。「倭奴」라는 말의 기원은 일본을 멸시하는 옛날 중국 및 조선봉건주의자 또는、민족주의자들의 말이며 사상의 표현이다。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자기민족을 우월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표시하는것은 민족주의의 본질이다。이에 관련하여 현재 조선의 어떤력사가들은 력사적 천래(傳來)이라하여 一五九二년—一五九七년에 일본이 조선에 침입하였던 사실을「임진—정유 왜란(壬辰—丁酉倭亂)」이라고、一六三六년의 만족(滿族)침입을「병자호란(丙子胡亂)」이라고 그대로 부를것을 고집한다。이것도 저자의「倭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견해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하나 지적할것은 그러한「민족적 관점」에서 서술한 또한가지 사실이 있다。그는 三·一운동에 있어서 조선인민이 지도층의 굴복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대하여 피의 항쟁을 전개하는 투쟁상을 그가 조선사람이라고하여 매국노의 하나인 김윤식(金允植)을 인용하여 그가 일본내각총리대신에게 보낸 독립청원서로써 표현하였다。저서에는「원수 일제 관헌의 총검과 기마병의 발굽으로 행렬이 유린되고 피살자가 생겨도 다음 행렬은 영웅적으로 용감하게 태극기를 휘날리며 독립만세를 마음껏 외쳤다…」그리고 이 상황은 김윤식、리용직이 일본내각총리대신 原敬에게 보낸 독립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獨立之聲 一唱于街上 而萬衆同聲和之 旬日之內 全國波動 至於婦人孺子 亦皆拔腕爭奮前 倒後繼 不顧死生 此爲故焉：如決黃河之水 其所由者 慾復舊有之物 而得免奴隷之恥也」(동서二〇五페지)를 인용하였다。이것은 우선 매국노 김윤식을 계급적으로·분석하지 않았으며 다음으로 비록 그가 [illegible] 거기서 매국노가 여하히 조선인민의 투쟁상을 반영할것인가? [illegible] 정도 그 [illegible] 다렬하였다。그러나 그 문건은 [illegible] 서술할것이 아니라 如決黃河之水 [illegible] (美辭麗句)로 지은 옛날 과거시대 [illegible] (科擧試題作文)에 를

파하다。

이러한것을 인용치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당시의 투쟁상을 서술할수 있는것이다。

둘째로 저자는 천주교에 대하여 옳지못한 규정을 주었다고 인정한다。즉 저자는 자기의 저서에 「조선에 있어서 천주교는……반봉전적인 종교로서 서민(庶民)、중인(中人)、또 정권에서 제외되고 있던 실세(失勢)의 남인(南人)들과 결탁하여 뿌리를 박기 시작하였다」(동서 三三페지)고 하였다。

이것은 우선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하여 옳지못한 규정을 주었다。일반적으로 종교가 반봉전적이라는 것은 종교를 진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이것은 옳지못하다。본시 종교는 더말할것도 없이 유심론에 기초한것으로 인류사회발전을 추진시키는 물질적 력량으로 되는 진보적역활을 놀수없는 것이며 반동적인 것이다。종교는 인민을 마취시키는 아편과도 같다고 규정한 맑쓰의 말씀을 망각하였던것이다。일제의 통치하에서 또 오늘 남조선에 있어서 일부 천주교도들이 자기의 종교를 가장 애국적인것으로 표명하면서 친일매국적 반동을 감행하여 왔으며 지금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반격을 주는데 있어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특별히 요구되는 이순간에 이상과 같이 그릇된 서술은 오유의 하나이다。

셋째로 저자는 홍경래란을 마치 반봉전 반침략전쟁으로 보았다。즉 저서에 「인민들은 홍경래란 이래 갑오농민전쟁을 통하여 부패한 통치계급과 외래 침략세력에 대하여 혁명적으로 싸웠다。」(동서 一二八페지)고 서술하였다。이것은 정당한 규정이라고 할수없다。홍경래란은 주지하는바와같이 一八一一년에 일어난 농민폭동으로 봉건 리조통치계급의 압제를 반대한것은 사실이나 어떤 외국 침략세력과 투쟁한것은 아니었다。조선은 중세기에 있어서 일본과 청국의 침략을 받았으나 一九세기초에 있어서는 아직 폭풍전야이었다。그 폭동이 발생한 당시의 조선의 력사적 환경으로 보아 이것은 다만 한없이 압제하는 관료를 반대하며 농민들이 실세서북유생(失勢西北儒生)들과 결합되어 일어난 농민폭동이었다。

넷째로 초기 일제통치정책의 본질에 대하여 부당한 규정을 주었다。저자는 저서에「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반농노적 령세경작(零細耕作)은 일제충독부의 물질적 토대를 형성하였고 재생산된 중세기적 생산양식을 가진 소규모생산양식이 일제식민지 지배의 사회적 토대를 형성하였던것이다。」(동서 一六一페지)라고 서술하였다。이 론술(論述)에서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불철저하다。

(1) 령세경작이라 함은 그것이 농업의 한 형태를

말하는것이다。때문에 형태가 물질적 토대로 되는것이 아니라 그 시기의 경제적 체계가 물질적토대로 되는것이다。때문에 일제의 물질적 토대라면 직접 그들이 략탈한 토지와 그위에 수립한 식민지 착취경제기관이 물질적토대로써 구성된다。

(2) 저자가 소규모적 생산양식이 일제지배의 사회적토대로 된다는 설명은 도저히 리해할수없다。저자의 사회적 토대란 정치적 구조를 말하는지 경제적 구조를 말하는지 알수없다。만일 정치적 구조를 말한다하여도 소규모적 생산양식이 일제지배의 사회적토대를 형성한것은 아니다。

(3) 저자의 견해에서 누가 일제 통치의 주구로 되는가 하는 문제의 대답이 불철저한다。일제식민지통치의 주구로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일적지주 및 자본가들이라는 것을 설명하여야 될것이다。

다섯째 三•一운동에 대한 저술에 있어서 그릇된 규정을 주었다。그는 우선 三•一운동의 성격을 구명함에 있어서 운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규정하지않고 인민의 혁명적 앙양을 리용하여 독립을 획책한 소위 三十三인의「독립선언서」에서 구명하였다。三十三인들 소위「지도층」과「독립선언서」의 본질에 대하여는 딴곳에서 상술(詳述)하기도 하고 대체 우리가 三•一운동성격을「독립 선언서」에서 구명하여서는 과학적인 규정을 줄수없다는것은 이미 루진(論盡)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그리하여 저자는「이 주장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을 주장함은 물론이요 이와 동시에 반봉건을 주장함을 의미함이니 이상의 선언서속에 있는 사상은 왕조(王朝)대신에 민족과 민중을 주장하고 봉건군주제 대신에 민주공화제를 주장한 것이며「인류적 량심이니」「세계개조의 대 기운에 순응」운운의 문구만 보더라도 이 선언이 민주공화제를 주장하였다는것을 똑똑히 알수있다。」(동서 二一九페지)고 하였다。즉 마치 三十三인의「독립 선언서」에 민주공화제를 제시한듯이 보고있으나 우리는「독립선언서」에서 그러한것을 조금이라도 찾아 볼수없으며 왕조대신(王朝代身)에라고 하였으나 三十三인의 계승자인 김가진(金嘉鎭)등 대동단(大同團)이 왕족리강공(李堈公)을 유출(誘出)하여 상해림시정부에 가져가려던 시도는 새로운 형식의 왕조(王朝)를 재편하려고 한것이 명백하다。우리가 三•一운동의 성격을 구명하려면 조선의 력사적 환경、국내계급력량관계、력사발전행정에 기초하여 전체적으로 운동을 총화하고 규정하여야 할것이다。저자가 이렇게 三•一운동의 성격을「독립 선언서」에서 구명하려는 오유는 三•一 운동의 국제적 련관성을 서술하는데서도 범하고있다。저자는 자기의 저서에

一「이와같이 三·一운동은 그 당시의 세계혁명정세의 일부분으로써 즉 전세계적 규모에 있어서 전개된 민주주의운동의 일환으로써 전개되었던것이다. 이것은 독립선언서가 말하는 바와같이 「인류적 량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順應並進)하기 위하여 차를 제가함이니 시천(是天)의 명명(明命)이며 시대의 대세며」라고 한것은 三·一운동이 민주주의 혁명의 세계적 일환으로서 전개되었음을 말하고있다」(동서二三二페지)라고 하였다.

물론 三·一운동은 위대한 로씨야사회주의十월혁명의 불길을 이어 앙양된 세계혁명과 식민지해방운동 앙양의 영향에서 그의 일환으로서 전개된것은 말할것도없다. 그러나 저자는 이 세계적 련관성을 「독립선언서」에서 찾으려하였다. 이것은 문제를 옳게 세웠다고 볼수없으며 이것은 三·一운동의 국제적 련관성을 그릇된 견해로 취급하였다.

三十三인의 독립운동 이데올로기는 과학적인 세계관에 근거한것이 아니며 당시 국제정세를 명확히 인식못하고 식민지략탈자 미제를 큰 원조자로 삼았던것은 우리가 잘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그들의 「독립선언서」가 세계혁명의 사조(思潮)를 옳게 반영할수없으며 따라서 여기서 운동의 정당한 국제적 련관성을 찾아볼수없는것이다.

만일 「독립선언서」에서 국제적 련관성이 표명되었다면 그것은 「윌손의 평화十개원칙」의 양두구육(羊頭狗肉)식 표어가 「세계의 개조」「시대의 대세」라는 막연한 문구들로 반영된것에 불과한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독립선언서」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저자는 三·一운동의 성격을 즉 운동강령문제 국제적 련관성문제들을 「독립선언서」에서 구명한것은 「독립선언서」의 본질을 철저히 과학적으로 인식못한데서 나온 오유이며 력사서술방법의 공식주의적 방법에 포로된데 있는것이다.

그리고 三·一운동의 실패의 원인에 대한 서술도 완전히 구명되지 않았고 저서에(二三二—二四四) 지적한 조건에만 있다는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운동의 실패의 원인의 중요한 하나는 무장투쟁에로 전면적으로 전환되지못한데 있는것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선 무엇이 요구되었는가?

일찌기 쓰딸린은 「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위해서는 세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로 무장하고 둘째로 무장해야하며 셋째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여야한다」(쏘련공산당사 조선어판一四一페지)고 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미약하였고 일부에 있는 무장투쟁

이 전국적으로 전환되지 못한데 그 패배의 주요한 원인이 있는것을 저자는 지적하지 않았다.

또한 외적조건으로서 三·一운동의 국제적 고립성만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종주국이였던 일본의 프로레타리아 운동과의 관계를 지적하지않았다.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 식민지민족해방 투쟁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일부분이며 식민지혁명의 승리는 종주국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관련되어있는것이다. 三·一운동당시 일본 프로레타리아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대중적 정치적 진출을 할만한 정도로 조직적으로 발전못되고 매우 미약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섯째 저자는 조선민족해방투쟁의 단계를 정당치못하게 구분하였다.

저자는 자기의 저서에 「물론 우리들은 민족해방운동이 이 시기에 있어서도 특이한 제과정을 밟고있었다는것을 부정하는것은 아니다. 즉 一九二〇년으로부터 一九二五년에 이르려는 소위 사상운동기의 이름아래에 불리워지고 있는 로동자 농민운동이 민족해방운동의 전체적력량으로의 발전을 준비하는 시기와 一九二六년으로부터 一九二八년에 이르는 세칭방향전환기(世稱方向轉換期) 즉 운동이 고도화(高度化)하여 一九二九년이후의 혁명앙양에 이르는 그것이 비약하는 직전의 과도기 一九二九년으로부터 一九三一년에 거친 민족해방운동이 혁명으로 앙양하여 일제의 조선지배를 근저에 있어서 진동시킨 시기등으로 소구분할수있다」고 서술하였다. (동서三〇〇페지)

이것은 첫째 어떤 관점에서 시기를 구분하였는지 알수없으며 둘째로 어떤 력사계단의 시기구분에 대한 일반적원칙에서 리탈하였다. 저자는 민족해방투쟁의 력사계단을 구분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조선민족이 자본주의 침략을 받게되어 그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그시로부터 시작하여야 할것이며 해방투쟁을 一九二〇년을 력사적계단으로 출발하는 견해는 옳지못하다. 만일 一九二〇년후 민족해방투쟁을 여러시기로 소구분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상의 구분으로 밖에 못할것이며 혁명투쟁의 전략전술상으로는 그러한 구분은 할수없다고 인정한다. 이상에서 몇가지 리론상 문제에 대하여 론급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론할바 없다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금후의 조선력사과학의 성과로서 보충될것이다.

(2) 방법론상에 있어서

력사기술(記述)을 가장 과학적으로 하려면 유물변증법적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것은 더말

할 필요도 없는 공리인것이다。

특히 내외(부르죠아력사가 민족주의적 침략주의 력사가들에 의하여 의곡된 우리조선인민사를 정확히 서술하는데있어서 이 방법로상 투쟁은 더 날카롭게 전개되어야할것이다。민족주의적 침략자적 의곡은 물론 공식주의적 객관주의적 일체 부르죠아적 서술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여야할 임무가 해방후 조선의 진보적 력사가들의 력사서술의 방법상 투쟁임무의 하나로 제기되는것이다。

축숙이 가리웠던、조선인민의 생활을 정확히 전투적 창조적 노력으로 과학적으로 서술하며 의곡된 조선인민사를 바로잡고 모든 력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유물변증법적 방법에 의하여 과학적 결론을 주어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에게 지나온 력사행정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성、창조성을 보임으로써 현실투쟁과 관련시키며 앞날의 발전을 위한 투쟁과 승리의 신념을 높이어야할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저서는 적지않은 결함이 있다。이에있어서 그의 몇가지를 지적하기로한다。

첫째 력사기술방법에 였어서 저자는 공식적방법에 머물고있다。

저자는 조선인민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조선의 내부적 사회경제발전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하는 대신에 저자는「아세아적」또는「아세아적생산양식」이라는 술어만으로 사실에 대치하고 말았다。

저자는 一九세기말의 조선을 서술함에 있어서도「아세아적 봉건리조」라는 규정뿐이고 조선인민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못하였다。실질적 사실을 서술하고 그를 결론짓지않고 다만 한개의 술어만으로 공식적으로 기술하였다。이렇게 저자는 관념론적 공식주의적 방법론에 포로되고말았다。

저자의 이러한 결함은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학설을、인용하는데서도 볼수있다。어떤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려면 맑쓰—레닌주의학리와 그의 창조자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학설에 기초하여야 할것은 더 론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어느나라 어느학자를 막론하고 진정한 과학을 소유하기위하여 맑쓰—레닌주의학리에 기초하여 그의 학설을 직접 인용한다。

저자는 자기의 력사서술을 그러한 방면에서 서술하려고、노력하였다。그러나 저자의 그의 인용은 기계적이고 공식적이라 아니 할수없다。일반적 어면사실을 해명하고 그를 력사적으로 증명하며 과학적인 결론을 주기위하여 그의 지당한 인용을하는 대신에 저자의 한개의 일반적술어만 떼어 인용할뿐만아니라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설명어로 인용하였다。설명을 하기위한 인용은 큰의의가 없는것

이며 오히려 쉬운말도 설명하는것이 리해하기쉽고 명확할것이다。이것은 무의미할뿐아니라 이러한 기계적 뜯어맞추는 인용은 창조자들의 학설을 부정확하게 또 부당하게 취급하는 오유를 흔히 범하게되는 것이다。

둘째 과학이라면 반드시 계급성과 당성을 가져야한다。특히 력사과학에있어서 계급성과 당성에대한 문제의 기초는 이미 지적하였다。저자의 저서는 계급성과 당성이 미약할뿐만아니라 어떠한 부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망각하고 비계급적 객관주의적 서술에 떨어지고말았다。

특히 조선근대사는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락후한 봉건조선의 망국사이며 참담한 일제 식민지 생활사이며 또한 그가 조선인민이 식민지로부터 해방하려는 해방투쟁사로 특징짓는것이다。이러한 력사적 특수성은 계급투쟁의 특수성 즉 더높은 격화를 말하는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서에 그계급투쟁을 명확히 서술하지 못하였고 모든 사실에 대한 계급적 당적비판이 적용되지 못하였다。리조봉건정치하에서 조선인민이 얼마나 압제와 착취에 눌리웠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저자는 다만 봉건적 억압이라는 술어로만 그쳤다。저자는 봉건리조의 침체성을 설명하였고 그를 인구통계로 실증하며 고 하였다。그러나 그것은 다만 인구의 증감만 알수있는것이고 봉건사회의 계급구성의 근본토대인 토지소유관계는 다만 통치계급내부의 투쟁성만 지적하고 예속농민과 봉건통치계급의 대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못하였다。그뿐만아니라 저자는 이러한 규정까지 보였다。「이것은 근대적인 二대계급에로 구분되어 명확한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관계를 형성못한 봉건적인 신분제도이었다。」(十五폐지) 즉 저자는 리조봉건적 신분제도가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관계로 형성된것으로 보지않는다。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리조봉건사회에는 계급대립이나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관계가 형성되어있지못하였다는 것인가? 과연 그럴것인가? 이것이 그렇지않다는것을 더 론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결함들은「一八八二년 군인폭동」을 다만 군인의 불평에 기인한것으로 서술하였고 천주교(天主敎)를 반봉건종교로 규정하였으며 三・一운동의 투쟁상을 매국노 김윤식(金允植)의 독립청원서로 서술하였던데서도 볼수있다。

저자는 사실(史實)을 절충하는데 있어서 비계급적 무비판적으로 취급하였다。많은 절충은 연구상에 많은 도움을 주나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비계급적 객관주의적 서술에 전락하고만다。

그의 하나로써 저자는「一八九四년 농민전쟁」의

서술에 있어서 소위 「계림통사편 조선변란사 실기(鷄林通史編 朝鮮變亂史實記)」이라는 저서의 한 부분을 인용하였다。(八一페지) 거기에는 이러한것이 있다。「동학당은 주색에 빠지지않고 기연(嗜恒)하지도 않는 정률이 있어서 당원은 모두 이것을 잘지키므로 조금도 농민을 해함이 없다」는 것이였다。저자는 이것을 그대로 서술하였다。대체 이것은 동학당 정률이나 당원이기때문에 농민을 해하지않았다는것은 더말할것도 없이 그릇된것이다。그가 당원이기때문인것이 아니라 봉기한 농민이 자기들 농민의 리해를 침범할리 없는것이다。

그리고 또 저자는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정책의 분석과 조선인민의 처리를 서술함에 있어서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였다는것을 강조하였고 조선인민의 매호당 경지가 감소되였다는것을 통계상으로 실수하였으나 농촌에 있어서 계급관계의 기본인 토지소유관계는 명확히 부석치않았고 지주의 토지집중과 빈궁화하는 농민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서술치못하였다。그리고 저자는 이 시기에 농민들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역시 총액과 매호당 평균액만 표시하였고 어느계급으로부터의 착취인가에 대하여서는 말하지않았다。전체세금에서 지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것은 지적하였으나 그 지세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았다。이러한 불철저한 객관주의적 서술은 일제의 식민지 산업정책과 로동자의 처지에대한 서술에서도 볼수있다。

저자는 三·一운동에 있어서 그를 전후하여 로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한것을 지적하였다。그러나 그 시기에 있어서 로동자의 처지에 대하여 다만 식민지적 악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쳤다。저자는 조선로동계급의 어려운 처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로동계급의 투쟁을 말하지않았다。一九二二년 이래 조선로동계급은 일제의 살인적 착취를 반대하여 조직적으로 진출하였던것이다。이러한 투쟁의 력사를 묵과하고 다만 三·一운동의 서술에서 一九一五—一九一九년간의 쟁의자의 표시로 로동계급의 투쟁을 서술한다는것은 공식적인 라렬에 불과하다。그렇기때문에 저자의 서술은 반일투쟁과 계급투쟁이 결부되어있지않았다。조선의 로동계급은 그 발생의 자초에 있어서 이미 식민지적환경이었다는데서 그 성격이 특수성을 가지며 따라서 투쟁성과 그의 력사적 역할로 특수한 점이 있는것이다。

조선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저술에 있어서 이 력사적 특수성을 묵과하고서는 과학적인 결론을 가져올수없으며 정당한 서술이 될수없는것이다。또한 이러한 조선의 구체적 환경, 계급적 력량관계, 력사발전행정

을 옳게 구명(究明)하지않고 문제를 취급한다는것은 계급성과 당성을 망각한 사실로 되는것이다。

이러한 결함은 저자가 一九一九년어후의 조선민족해방투쟁의 서술에 있어서도 일관되어있다。민족해방투쟁의 중추(中樞)인 로동운동을 전제로한 어떤 진보적 정치적 결사나 로동운동단체의 발생을 로동계급의 발전과 관련없이 서술하였고 그의 계급적 기초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의 역할을 정당히 평가하지않고 다만 년대순으로 어느때 어떤단체가 조직되었다는 식으로、전체의 서술이 련결되지않고 단편적으로 서술되었다。이렇게 그 운동의 시초부터 객관주의적 서술방식으로부터의 출발은 전체의 서술이 완전히 과학적으로 될수없으며 또되지못하였던것이다。

셋째 과학이라면 정확하여야하는것이며 과학적방법으로부터의 서술은 정확한 또 적절한 자료를 정당히 평가하여 서술하여야될것이다。그러나 저서는 어점에 있어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로서는 우선 구미상선(歐米商船)의 조선에로의 래항을 一八三一년영국선 홍주고대도양(洪州古代島洋)에의 래선을 그시초라고 서술하였다。(동서 二一페지) 물론 一八七六년전 근대조선의 대외교섭은 명확치않다。대청(對淸)、대일(對日)간의 봉건적 교역외에도 一八○○년대 초기에 이미 표류선(漂流船)이라고하여 래선한것이 있어 꼭 언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저자가 一八三一년을 그 시초라고한것은 부정확하다。

一八一六년 七월十六일에 영국군함 아르제르드·리라호(號)가 충청도 마량진(馬梁鎭)에 래박(純宗實錄—十九卷十六年七月丙寅)하였던일이 있었던것이다。저자는 영국 침략정책을 一八三○년으로 계산한다면 력사적 자료에 의하여 조선에 대한 영국의 침략 정책은 一八一○년경으로부터、출발할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부분적 부정확성은 여러곳에서 볼수있다。그 하나로서는 즉 一八八二년—조미통상조약체결(朝米通商條約締結)에 있어서 조선과 청국(淸國)파의 특수관계(리조 통치계급의 대국—大國—의존성에 기초한 봉건적 우방관계)에 있어서 청국자체가 그것을 부인하였다고 서술하였다。(四八페지)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되어 있지않은 것이다。물론 당시 미국은 조선과의 통상조약체결에 있어서 앞으로 청국의 간섭을 털기위하여 이것을 부인시키려고 노력하였다。그리하여 조약문에서는 삭제하였으나 마건충(馬建忠)을 통해 조선국왕의 조회문(照會文)을 첨부하였던것이다。(日省錄太王壬午四·七)그뿐만 아니라 저자는 一八八二년四월二十一일 조영통상조약의 체결을「朝淸宗屬關係의終焉」(四九페지)이라고 서술하

였다。(또 저자는 조청통상조약은 一八八一년이라함)

물론 청일과의 그 특수관계를 형식상에서 보는지 내용상에서 보는지는 모르나 외교관계는 조약문으로 나타나는것을 말하게된다. 그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이 조약체결시에는 조미조약과 같이 조회문에 첨부되었던것이다。(日省錄 壬午四月二十二日) 따라서 저자의「終焉」이라는것은 리해할수없는것으로 된다。

다음으로 一八九四년 농민전쟁에 있어서 혁명적 농민군에 대한 외국침략자들의 무장간섭에 대하여 다만 일본군대에 의하여 진압되었다고하였다。(동서 八七—九〇페지) 주지하는 바와같이 一八八二년이후 청국군대는 조선에 주둔하여 내정에 간섭하였고 이 농민전쟁에 있어서도 청국군대는 조선통치계급과 함께 진압에 출동하였던것이며 이것이 일제의 구실로되며 청일전쟁으로 변하였던것이다。저자는 이것을 한곳에서만 아니라 여러곳에서 다 빠뜨려놓은것은 여하한 의도에 근거하였든지 알수없다。어쨌든 당시의 내외관계의 력사적 서술을 빈틈없이 서술못한것만은 사실이다。그러한 부정확한 서술은 또 다른곳에서도 볼수있다。

저자는 토지조사사업의 종말을 一九一七년十二월이라고 서술하였다。(동서一六六페지) 이것은 부정확하다。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한 일제 총독부가 내놓은 문헌(시정—施政—二十五년사)에 의하면 一九一八년 十월에 완료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또 그리고 중추원조직을 저자는 자기의 저서 二四九페지에 三·一운동이후 중추원(中樞院)을 창설하였다고 서술하였다。주지하는바와같이 중추원은 三·一운동(一九一九년) 이후가 아니라 一九一〇년十월一일에 일제가 발표한 소위「조선 총독부 관제」에 의하여 조직되었던것이다。

이상에서 몇가지 지적한 바와같이 저자는 이저서의 서술에 있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취급하였다。과학이란 정확성을 말한다。만일 그가 정확치 않다면 비과학적인것으로 되고마는것이다。

저자는 이「근대사연구」를 서술함에 있어서 사용한 용어중에는 어떤 력사적 사실을 해석하는데 부당한것들이 적지않다。용어는 방법론상으로 보아서 사실(史實)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관점에 대한 문제와 함께 중요한 것이다。용어라는것은 어떤 사물의 력사적 결론이기때문이다。그러나 저자는 이것을 등한히 취급하였다。즉 무역에관한 서술에 있어서 대일본무역(對日本貿易)을 대일(對日) 수출입(輸出入)이라고 하지않고「이출입(移出入)」이라고 하였다。이것은 주지하는 바와같이 일제가 사용한 침략적 반동적인 것이다。이것은 어느곳에서나 그러하였다。또 저자는 리조 여러 농민폭동을「민요(民擾)」라고하였다。이것은 통치계급의 인민들의 봉기를 소위「소요(騷擾)」라고하여 쓴 용어이다。저자는 이런 용어들을 하등의 계급적 당적립장에서 비판 분석하지않고 사용하였다。

또 저자는 자기의 저서에「조선의 로동자는 놈들의 경제적착취의 좋은 미끼가 되었다。」(동서二五五페지)고하였다。「미끼」라는 용어는 저자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나 로동자는 자본가의 미끼인것이 아니라 대상인것이다。그리고 저자는 조선의 명칭에대하여「한(韓)」이라고 많이썼다。물론 一九〇七—一九一〇년간은 그렇게 써도 좋을 것이다。그러나 저자는 여러곳에서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도「한국(韓國)」이라고 썼다。그것은 더말할 필요도 없이 부당한 것이다。

넷째—우리는 어떠한 사실이든지 그의 근본적문제와 보충적문제를 구분하여야할것이다。근본적문제의 해명이 없이 많은 지면을 소모하여도 아무러한 의의가 없는것이다。그러나 저자는 자기의 서술에 있어서 어떤 사실을 근본적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서술하지 않고 보충적문제를 길게 설명한 점이 적지않다。이러한결과 그문제를 완전히 변증법적으로 서술못하였던것이다。이제 그의 구체적 실례를 지적하면 다음과같다。

저자는 一八八二년「군인폭동」에대한 서술에 있어서 그 발생을 단지 구군(舊軍) 불평으로 서술하였으며 (동서 五四페지) 군인과 도시 시민들이 작도(作圖)한 운동으로 서술하였다。(동서五六페지) 이것은 당시의 구체적 력사행정에서 과학적으로 보지않고 다만 나타난 사실을 형이상학적으로 관찰하였다。

저자는 외국의 자본주의적 침략하에서 조선인민은 곤난해한다는것을 지적하였고 그와함께 리조통치계급내부의 부패도 지적하였다。그러나 이 군인폭동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까지는 못갔다。이 군인폭동에 동원된 군인은 군복입은 농민이다。부패해가는 봉건지배층들의 한없는 가렴주구에 외국자본주의 침략이 덮여씌운 조선 농민의 처지와 그에 견디지 못하여 일어나는 농민폭동은 빈번하였고 그의 반영인 동년 七월에 있은 최학길폭동(崔學吉暴動)(在捕盜大將 韓圭稷의 農民에對한 蠻行을 反對하여 捕盜廳을 打破하고 罪囚를 釋放한 ……) 같은것이 많았다。그뿐만아니라 그 전년에 심하였던 수재는 농민들의 생활을 더곤난하게 하였던것이다。이러한 력사환경에 일어난 군인 폭동이 봉건 통치계급과 외국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농민폭동의 하나인것이다。그러나 저자는「이「壬午軍亂」은 貧困과 抑壓에서 解放하려는 軍人과 都市市民

들의「運動」이라고 서술하였다。(五六페지) 이것은 표면상에 나타난것만 말할뿐이다。 군인의 빈곤은 농민의 빈곤이며 농촌생산력의 침체、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의 결과라는것은 말하지 않았다。이렇게 저자는 어떤력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판정하지못하고 객관주의적 또는 민족주의의 방법론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오유는 다른곳에서 볼수있다。一八九四년 농민전쟁의 서술에서 같은 서술방법이였다。저자는 자기의 저서에 농민의 빈곤과 불평에 리속(吏屬)이 결합하여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만 서술하였다。(八○페지) 물론「전충농민(全羅、忠淸農民)의 동요와 그들의 궐기태세」라고까지는 서술하였으나 이 폭동이 일어날 사회적 력사적 근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지못하였다。우리는 당시 봉건리조의 전반적 위기의 첨예화를 말하여 주는 또 농민전쟁의 전주곡(前奏曲)인 농민폭동을 얼마든지 볼수있다。그것은 당시 황해도 재령농민폭동、중화농민폭동、황주농민폭동、강원도 금성농민폭동、전라도 금산(錦山)농민폭동등은 가장 지배계급에게 혼란을 주었던 커다란 폭동들이며 이러한 지방적 폭동에 기초하여 고부봉기(古阜蜂起)가 전삼남(全三南) 또 전국적인 범위를 가질수있었던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사실(史實)을 상호련관하여 보지않고 고립적으로 서술함과 함께 문제를 력사발전행정에서 내부적 본질에서 보지못하였다。일찌기 엥겔쓰는『필연적 호상 련락된 현상을 잃어버린 과학은 진정한 과학이 될수없다』고 말하였다。

또 저자는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서술에 있어서 역시 공식적이고 당시 내외력사행정에서 과학적으로 판정하지못한 점들이 있다。우선 개화당(開化黨)의 형성과정을 력사적으로 구명치 않고 부록 년표(附錄年表)에 一八八三년에 형성되였다고 하였다。

본시「開化黨」이라는것은 어떤 강령이나 규약을 가진 즉 명확한 정치적 조직적 기초에서 형성된것이 아니라 당시 봉건리조는 一八七六년이후 일본의 자본주의적 침략을 받게되자 리조봉건 통치계급은 개화하려는 한가지 수단으로서 또한 일본침략자의 간접적 침략정책의 하나인 소위「別入侍制」가 있었다。그후 이들 구룹이 소위 개화당이며 개화사상이란 더말할것없이 부르죠아 데모크라시적사상이다。그들은 자본주의국가의 문물을 견문하면서 또한 직접 그의 침략이 미치는 데서 영향받았던것이다。그리하여 그들은 부득이 자기들이 개화함으로써 통치계급의 지위를 더잘 유지하려는것이며 그를 위하여 그들은 개량을 시도하지않을수

없었다。즉 그들은 일종의 자본주의 발전의 프로시야식을 취하려하였다。그들은 일본세력에 의하여 청국의 간섭을 덜고 반대파를 소탕하려는 정책이었다。그러나 침략의 틈만보고 또 그러한 침략정책을 암암리에 써온 일본침략자들과 타협했고 결국 그들에게 리용되고 말았던것이다。이것은 그들의 계급적 본질에서 규정되는것이었다。이렇게 개화당과 갑신정변의 력사적행정은 과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의 성격 의의가 비로소 그가 공식적이 아니고 과학적인 서술이 될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결함은 다른곳에서도 볼수있다。즉 김일성장군의 동북지대에서의 일제와 그의 침략도구인 괴뢰『만주국(滿洲國)』을 반대하며 조선의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일제침략하에있는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의 해방을 위한 빨찌잔 투쟁에대한 서술에 있어서 저자는 이 투쟁의 력사적 환경과 관련성을 지적치않고 다만 동만주에서 진행되었다는데서 그쳤다。(三一四페지) 우리는 김일성장군의 빨찌잔 투쟁이 조선인민의 반일무장투쟁인 동시에 二十세기 三○—四○년대 세계제패에 날뛰던 파시스트를 반대하는 국제민주전선의 일환으로서 보아야하며 또한 그러한것이다。김일성장군의 빨찌잔투쟁은 국제적으로 동방에 있어서 일제를 반대하는 중국 몽고인민들과의 국제적 민주주의단결로되는 투쟁이였던데 큰의의가 있는것이다。그러나 저자는 다만 이것을 각국 인민전선 투쟁과 같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통일전선 투쟁만으로 서술하였고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은 국제반팟쇼전선과 그의 실천적 동북항일련군에대한 력사적 평가를 주지못하였다。

일제 통치하에서 당시 조선인민이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은 일제를 타도하는것이요、이것은 국제민주력량의 단결된 기초위에서 파시스트동맹을 진멸하는데서만 가능하였다。사실에 있어서 조선해방은 제二차대전에서 세계민주주의의 성벽인 쏘련의 해방적 역할로 되는 민주주의승리로 해결되었던것이다。

김일성장군은 이러한 투쟁로선을 실천하였던것이다。이와함께 화북의용군、독립동맹에대한 서술도 아무 력사적 관련이 없이 서술하고 말았다。즉 저자는 이렇게 조선민족해방 투쟁을 서술함에 있어서 일제를 반대하고 인민과 민주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중국민주주의의 선봉인 중국공산당과 그의 인민해방군 투쟁과의 끊을수없는 력사적 관련성을 어느곳에서도 볼수없다。물론 어느나라 혁명이나 외재적(外在的)력량이 주가 되는것이 아니고 내재적력량이 주가 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으나 그것을 통일적으로가 아니라 고립적으로만 취급한다면 그것은 형이상학적 비과학적 견지에 떨어지고 마는것이다。

조딸린은 변증법의 특징을 설명하면서「형이상학과 반대로 변증법은, 자연을 호상분리된 호상고립된 호상관련되지않은 사물과 현상의 우연적 집적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사물과 현상을 유기적으로 호상련락되며 호상제약된 그러한 호상련관적 통일체로 본다」고 하였다。

전체의 서술을 쉽게 리해할수있으며 력사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근본적 문제를 중심적으로 명확히 서술하여야 할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도 불충분한점이 없지않다。그는 우선 주석(註釋)에대한 문제이다。물론 본문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것이나 또는 본문에서의 서술을 더 해석하여주기 위하여 주석은 필요하다。그러나 이「조선근대사연구」를 읽은 사람은 다 느끼는 바와같이 주석이 너무도 많다。전체적 리해에 곤난하다。만일 저서가 어떤「력사사전(歷史辞典)」이였다면 그것은 가당할것이다。

저자는 광범한 자료를 취급하여 풍부한 내용을 제공하려고 노력한것만은 사실이다。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성과있게 나타나야할것이다。

저자는 三・一운동에 대하여서 광범한 서술을 하였다면 광주학생반일투쟁、六・十만세 반일투쟁 같은 중요한 력사적 서술은 주석으로서 해결하였다。물론 주석에 쓰건 본문에 쓰건 관계없을듯도하다。

그러나 문제는 주관적견해에 있을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사 서술의 근본적임무에 있는것이다。만일에 과거나 현재나 또는 본래의 인민의 생활과 관계없고 그의 력사발전과정에、물질적 도움을 주는데 관련이 없다면 그러한 노력은 불필요한것이다。

근세 조선인민사의 특징으로 보아 광주학생반일투쟁、六・十만세반일투쟁사를 단편적인 주석으로서 술하고 마는것은 불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을수없다。

즉 여기서 저자의 근본적 문제와 보충적 문제와의 무차별이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이러한 결과 저서에는 一九二五년이후 력사가 대단히 미약하게 서술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계급투쟁의 추이(推移)가 명확히 서술되지않았다。물론 자료상、리론상 충분을 기하기 곤난한 문제이다。그러나 우리는 조선근대사의 특징으로 보아서 다만 내외사변만 서술할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사회 경제생활과 해방투쟁이 서술 되어야할것이다。자료상、리론상 곤난이 있다하여 그것을 피한다는것은 조선력사가의 임무에서 리탈된다。앞으로 조선력사가들은 이 방향에 힘을 돌려야 할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조선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반드시 서술하여야할 쏘련의 해방적역활에 의한 조선인민의 해방의 력사를 서술하지않았다。(저서는 一九四七년에 저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

자가 이 저술에 가진 약점의 큰하나로된다。조선인민이 조선민주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새로운 미제와 리승만등 일체반동파들과의 투쟁에서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민주건설사는 서술치 못한다하여도 조선해방의 력사적과정과 새건설의 력사적 발전의 출발까지라도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것이였다。

저자는 자기의 저서의 서언에서와 결론적부문에서 즉「총괄(總括)」에서 다만 일제패망과 쏘련군대 진수로서 새력사 계단을 지어놓았다는것만으로 그쳤다。

이것만으로서는 부족하다。앞으로의 근대사 서술은 반드시 해방의 력사계단과 그 사실(史實)을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취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 ×

이상으로 나의 평론을 마치려고한다。그러나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저서 전체에 대하여 론진된것이 아니다 다만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그의 결함과 오유에 대하여 근거있는 의견을 제기하였을 따름이다。

이에 대하여 독자 그리고 특히 조선사가 제위의 재비판을 바라며 만일 긍정하는 부분은 더발전시킬것이며 미진(未盡)한 점들에 대하여는 더높은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우리는 이러한 성과의 충분한 검토위에서만이 새발전을 가져올수있는것이며 당면한 조선력사과학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있을것이다。

일찌기 엥겔쓰는「과학은 그가 아무것도 접내지않고 구속받음이없이 뚫고 나가면 나갈쑤록 근로대중의 리익과、요구에 합치된다」고 말하였다。우리조선력사 과학연구에 있어서 특히 이러한 전투적 창조적노력이 요구된다。

113

一九四九년五월二十五일 인쇄
一九四九년五월三十一일 발행

「근로자」 제十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편집인 김 성 용
인쇄인 오 기 익
발행소 로 동 신 문 사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근로자」 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二(二二〇번)

제ㄱ—10932